

ISSN 1226-2838

# 叢論學調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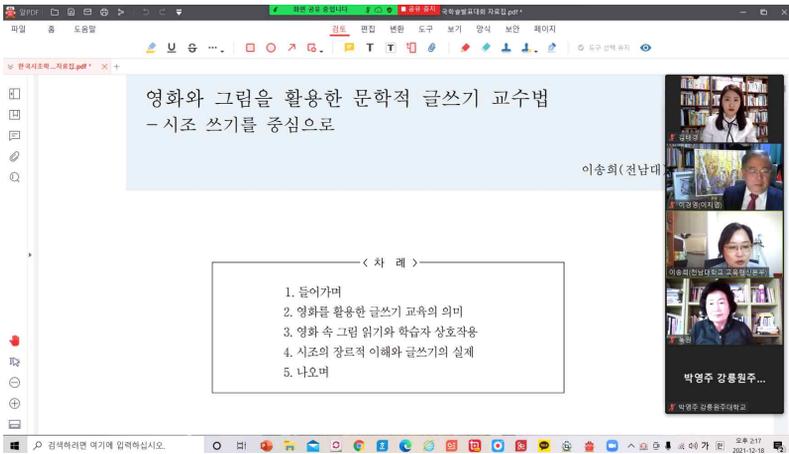
第56輯

2022. 1. 31.

韓國學調時會



## 제 71차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 □ 기획논문 : 시조와 세대성

- 현대시조 전후 세대의 불교성 연구 ..... 권성훈 · 007  
TV 드라마 <황진이>의 시조 재현 양상과 스토리텔링 기법의 의미 고찰 ..... 이채영 · 035

## □ 일반논문

-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시조 분석 ..... 김성문 박근형 · 059  
나르시시즘으로 바라본 황진이와 그 문학 연구 ..... 김지은 · 085  
근대초기 시조담론 연구 ..... 배은희 · 117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 양상 연구 ..... 조춘희 · 141  
조오현 선시조(禪時調)의 미적 특성 고찰 ..... 홍용희 · 175

- 한국시조학회 이사회 자료 · 200  
한국시조학회 제7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 201  
한국시조학회 편집회의 · 202  
韓國時調學會 會則 · 205  
한국시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9  
한국시조학회 출판 · 편집 규정 · 225  
한국시조학회 투고논문 심사조서 · 235  
한국시조학회 회원 주소록 · 236  
한국시조학회 단체회원 주소록 · 251



## 현대시조 전후 세대의 불교성 연구

권성훈\*

### <국문초록>

본고는 1950년대 전후 세대의 현대시조에 나타난 불교적 양상을 통해 고유한 정형 양식과 그 의미를 탐구했다. 현대시조 문학사에서 1950년대 전후 시조는 현대시조 개척기로 평가한다. 현대시조 개척기의 전개 과정은 1910년대 현대시조 태동기와 1920~40년대 현대시조 모색기를 거치면서 발생 되었다. 1920년대 최남선, 이은상, 이병기 조운 등에 의해 펼쳐진 '시조부흥운동'과 함께 고시조라는 구태를 벗었다면 1950년대 시조 개척기에 현대문학 장르로써 시조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서 산업화 시대 사이에 놓인 당대의 문학은 전통과 순수로 구성되면서 세대의 변화와 함께 첨예한 대립을 촉발했다. 당시 소수 시조 시인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상과 폐허 속에서 실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50년대의 전통적 세계관을 시조 문학을 통해 열어갔다. 이들은 민족 유일한 주체적 언어로서 시조를 옹호하며 고전적 미의식과 형식미학을 펼쳤다. 게다가 개화기 근대시조 형성기와 현대시조 개척기에서 고수한 전통성을 수용하면서도 반근대적인 시조 형식의 변화를 모색했다. 이 가운데 삶의 변화와 시대적 문제를 시조를 통해 관찰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불교적 사유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50년대 전후 세대 불교의식을 살피기 위해 2장에서는 1950년대 전후 시대와 시조를 고찰한다. 이어 3장에서는 전후 세대의 시조와 불교의식의 양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탐구했다. 먼저 1950년대 시조에서 불교적 사유로 구성된 시편을 통해 유사한 형식으로 형성된 작품군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 글은 텍스트 시편에서 두드러진 불교적 사유인 자연적 인과성, 부처의 표상, 인드라마의 세계 등을 시적 양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단시조, 연시조, 산문적 시조로 살폈다.

\* 경기대학교 조교수.

\* 본 논문은 2021년 6월 01일 『불교평론』 여름호에 기고한 글을 학술적으로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첫째 단시조와 자연의 인과성에는 이호우, 이영도, 최승범, 송선영을, 둘째 연시조와 부처의 표상에서는 김상옥, 박병순, 이태극을, 셋째 산문적 시조와 인드라마의 세계에서는 정소파, 장순하, 박경용 등의 시조를 중심으로 전후 세대 불교의식을 고찰했다.

1950년대 전후 세대 시조 개척기 시조 시인들은 시대적 좌절과 패허 속에서 시조로서 전통의식을 추구하며 시조 부흥에 이바지했다. 그것은 저마다 시의식 속에서 민족 정서를 보존하고 시대정신을 계승하는데 불교적 사유가 결합 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혼돈과 격동의 시기 불교적 사유를 가진 시조는 초월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연원하며 실존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1950년대 시조, 전후 세대 시조, 불교적 사유, 불교성, 불교의식, 자연적 인과성, 부처의 표상, 인드라마의 세계.

## I. 서론

이 글은 1950년대 전후 세대의 현대시조 불교적 양상을 통해 고유한 정형 양식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과 함께 4·19혁명으로 마무리된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급진적이고도 혼탁하게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된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분단된 현실은 좌우 정치적 대립의 혼란한 시대로 기록된다. 거기에 남북 분단과 이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계층 간의 분열, 전통과 관습의 변화, 가치관의 혼돈 등, 1950년 전후 시조의 형성에도 수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제강점기에서 산업화 시대 사이에 놓인 당대의 문학은 전통과 순수로 구성되면서 세대의 변화와 함께 첨예한 대립을 촉발했다. “1950년대의 역사적 사건은 현대문학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학사적 사건을 파생시켰

다. 소위 전쟁(및 전후)문학과 4·19세대의 문학이 그것이다. 이 전쟁문학과 4·19문학의 긴 자리에 전후문학이 놓여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어정쩡한 자리에 놓여 있는 전후문학이 우리 문학에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전환기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sup>1)</sup> 한국 근대문학사의 전환기로서의 1950년대는 한국전쟁의 폐허에 앞선 식민지의 경험과 독립 후 해방기의 사상적 대립과 이데올로기의 분열은 휴전이라는 냉전 담론을 파생시켰다. 남북문제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미증유의 표상으로 갈음된다. 게다가 1950년대 전후 세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미봉책 권역으로서 현재형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적으로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소수 시조 시인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상과 폐허 속에서 실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시조 문학을 통해 1950년대를 열어가다. 이들은 민족 유일한 주체적 언어로써 시조를 옹호하며 고전적 미의식과 형식미학을 펼쳤다. 또한 개화기 근대 시조 형성기와 현대시조 개척기에서 고수한 전통성을 수용하면서도 반근대적인 시조 형식의 변화를 모색했다. 이로써 삶의 변화와 시대적 문제를 시조를 통해 관철시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불교적 사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1950년대 시조 연구로는 이선희, 유성호, 임곤택, 노춘기를 들 수 있다. 이선희, 유성호, 임곤택은 이태극의 시조를, 노춘기는 이영도의 시조를 테마로 삼으면서 전후 시대의 시조를 밝히고 있다. 1950년대 시조에 대하여 이선희는 “우리 고유의 정형 시조를 중국의 한시나 일본의 와카, 하이쿠 같이 오늘날에 그 맥을 이어갈 만한 현대 한국시로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sup>2)</sup>

1) 남기혁, 「한국 전후 시의 형성과 전개」, 『한국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7, 172쪽.

2) 이선희, 「월하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전통 인식」, 『문예운동』, 1993, 36쪽.

당시 자유시가 아닌 시조를 한국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족 고유언어를 지향하며 현대성을 추구했다. 유성호는 “근대에 대한 재해석과 반성을 토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원형에 대해 탐색하는 이른바 탈근대 혹은 반 근대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시조성과 현대성의 경합을 통한 현대시의 양식적 가능성은, 율격의 해체나 무분별한 이완에 가까운 근대 자유시에 대한 일정한 반성의 몫도 띄고 있다.”<sup>3)</sup> 이 시기 양식적 변화는 근대성을 시조 원형인 고전에서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반대로 자유시의 자유분방한 율격 파괴로 문학성을 지양하는 가운데 시조가 대두되었다. 임곤택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시조를 이해하려 했다는 표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현대문학의 자기 정립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2차 시조부흥운동의 자발적인 참여자로 정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정치적인 것과 문학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sup>4)</sup> 이때 고유언어를 통한 주체적 확립을 도모하는데 국민문학으로서 일제강점기 시조부흥운동을 1차로 보고, 여기서 거둬낸 것이 2차 시조부흥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노춘기는 “좌우의 대립이 비등하던 해방공간에서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곧바로 전쟁의 경량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은 역사의식을 표출하는 작품군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체험으로 작동하며 원체험을 시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시조라는 양식의 특징이다.”<sup>5)</sup> 이 시기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등의 아픔을 체험한 세대의식을 강조하면서 체질적으로 이러한 역사의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조 양식에 구성되는지 등을 살폈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50년대 전후 시대 불교의식을 탐문하기 위해 2장에서는 1950년대 전후 시대와 시조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전후 세대

3) 유성호,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조를 통한 자기 인식」, 『배달말』 36호, 배달말학회, 2005, 233쪽.

4) 임곤택, 「1950년대 현대시조로 연구—율하 이태국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0호, 한국시학회, 2014, 203쪽.

5) 노춘기, 「이영도 시조의 역사의식 연구」, 『우리문학연구』 70호, 우리문화회, 2021, 371쪽.

의 시조와 불교의식의 양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탐구했다. 먼저 1950년대 시조에서 불교적 사유로 구성된 시편을 통해 유사한 형식으로 형성된 작품군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텍스트 시편에서 두드러진 불교적 사유인 자연적 인과성, 부처의 표상, 인드라망의 세계 등을 시적 양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단시조, 연시조, 산문적 시조<sup>6)</sup>로 나누어 분석한다.

## II. 1950년대 전후 시대와 시조

현대시조 문학사에서 1950년대 전후 시조는 현대시조 개척기로 평가한다. 현대시조 개척기의 전개 과정은 1910년대 현대시조 태동기와 1920~40년대 현대시조 모색기를 거치면서 발생 되었다. 1920년대 최남선, 이은상, 이병기, 조운 등에 의해 펼쳐진 '시조부흥운동'과 함께 고시조라는 구태를 벗었다면 1950년대 시조 개척기에 현대문학 장르로서 시조가 확립되었다. 이때 주요 시인으로는 "박재삼, 이태극, 장순하, 고원, 정소파, 최승범, 송선영 시인들이 주로 1960년대 이전 등단하여 활동하였다. 시조 이론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면서 현대시조를 개척하던 시기로 규정해볼 수 있다."<sup>7)</sup> 이 시기 시조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시조 일반 이론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로 현대시조 형식을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실제적 창작 방안을 추구했다.

이러한 성과는 시조 형식과 내용을 감각적으로 구성하고 통합하면서 단조롭게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중에서 내용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바, 획일적인 3장 형태의 고정값을 도출하는 데서 파급적인 형식 실험이 뒤따랐다. 요컨대 시조 자수율이나 음보율의 반복이 아니라 시적 소재나 주제를 살리기 위해 연작 시조와 사설시조 형태가 정착되었다. 또한 시적 의미

6) 산문적 시조는 서사나 이야기 형태의 서술적인 성격을 가진 시조를 말한다.

7) 이지엽, 『한국 현대시조 작가론 III』, 태학사, 2007, 18쪽.

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시연과 시행을 자유롭게 분절하고 분행하는 풍토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무분별한 서구 문학 모방과 모더니즘 지향을 따랐던 자유시와 달리 시조가 문화유산을 전후 전통론으로 삼았다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이러한 시작법을 바탕으로 살펴볼 시조 시인들은 민족주의 이념과 문학적 실천을 표방하고 있는데 불교적 사유가 침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1950년대 시조의 특징은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축적된 문화적 테제에 접근하게 된다. 임곤택은 이 시기를 2차 시조 부흥 운동으로 보고 “민족의 고난과 극복이라는 서사가 오래된 형식인 시조에 투사되었고, 질긴 생명력을 매개로 민족과 시조는 동일시되었다. 반면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재건과 재편’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조는 과거의 형식으로 소멸의 운명을 지닌 것으로 재발견된다. 시조는 ‘민족의 필연적 양식’이라는 절대성이 탈락하고, 고전시가 갈래의 하나로 상대화된다.”<sup>8)</sup> 이른바 1950년대 시조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교육을 담보로 현대화를 지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시조 부흥으로 고시조와 분리되지만, 고시조의 계승과 차이로 재편되는 시기로서 전통 부활과 현대 지향을 통한 시조 위상 정립을 마련하는 데 있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이자 시조 연구자 이태극은 「시조부흥론」에서 1950년대 시조에 대하여 “時調 역시 이 같은 潮流에 휩쓸려 겨우 목숨만은 이어온 셈이 된다. 이러한 潮流에서 時調만은 그 命脈을 꾸준히 維持……시조는 나라의 풍운이 극악해지기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중압탁류 속에서도 밝히고 밝혀도 기어히 돌아나는 불길가의 풀썩과도 같이 살아 소리쳤으며 이 전란의 질식 속에서도 滿身瘡痍인 채 일귀세우려 일어나려 하고 있다.”<sup>9)</sup>라고

8) 임곤택, 「한국현대 시조의 위상과 2차 시조부흥운동」, 『비평문학』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227쪽.

9) 이태극, 「시조부흥론」, 『시조연구』, 시조연구회, 1953, 1월, 34쪽.

전후 세대 시조 부흥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동조하는 1950년대 시조 시인들은 전쟁을 경험한 후 국가의 풍운을 시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고 했다. 나라를 찾는 것은 민족 언어를 찾는 것이며 민족 언어를 잃은 것은 나라를 잃은 것이라는 일제강점기의 교훈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후 세대 시조 시인들의 특징 중 하나로 자유 시인들과 함께 동인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시동인 『아(芽)』, 『맥』, 『설창』, 『시예술』, 『양지문학』 등 자유 시인과 시조 동인들이 함께 편집한 동인지를 발간한다. 이들은 모더니즘의 수용 과정에서 민족적 전통적 가치를 시조로 공유했다. 이렇듯 시조 시인과 자유 시인들은 장르 구분 없이 민족정신으로 계승되어 온 시조의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시조 부흥에 일조할 수 있었다. 동인지는 시조를 '전통적 가치를 지닌 형식미학'으로 발견하고 새롭게 정립된 시형을 알리는 데 주력하게 된다.

한편 1930년 최초 시조 동인지 『참새』에 이어 1951년 순수 시조 시인들로 구성된 시조 동인지 『신조(新調)』가 있다. 『신조(新調)』는 이병기와 함께 그의 제자였던 장순하, 최승범, 이태극 등 동인이 주축이 되어 5집까지 발행하고 폐간된다. 이 동인들의 의지를 모아 이태극이 1960년 『시조문학』을 창간했다는 점에서 동인 『신조』는 최초 시조 문예지 『시조문학』의 전신이 되기도 했다.

살피볼 시조 시인들은 1950년대 전후 세대 시조를 현대시의 대열에 서게 한 장본인들로서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시조 부흥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무렵 활동한 시조 시인은 당대를 대표하는 창작의 주체로서 공통적으로 1910년 이후 출생자이며 1950년대 전후로 등단하여 시단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50년 시조 개척기 시편에는, 1910년대~40년대 현대시조 태동기 또는 모색기에서 볼 수 없었던, 불교적인 사유로 시대정신을 산출하고 있다.

### Ⅲ. 전후 세대의 시조와 불교의식

#### 가. 단시조와 자연의 인과성

불교적인 사유를 자연적 인과율로 투사시키면서 단시조로 창작한 시조 시인으로 이호우, 이영도, 최승범, 송선영을 들 수 있다. 먼저 이호우와 이영도는 남매지간으로서 시조 개척기 자연과 삶의 문제를 서정적 정서로 풀어내는데, 불교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불교 정신을 인위적으로 투사하지 않으면서도 만물의 이치를 단시조 형식으로 구현하면서 불교적 사유를 견인한다. 이호우의 시세계를 요약하자면 한국의 고전적 시조를 현대 감각이나 생활 정서로 전환시켜 간결하고 독특한 시적 경지를 개척한 시인으로 호명되는 반면, 이영도는 현대 최초의 여성시조 시인으로서 여성의 맑고 경건한 계시주의(啓示主義)와 한국적 전래의 그리움과 낭만적 정서를 섬세하고 정결한 언어로 표현했다.

저서 더욱 피는  
생명의 길 앞에서

차라리 아낌없이  
저렇게도 잎 잎들은

스스로 몸들을 조아  
남은 피를 뿜고 있다.

— 이호우(1912~1970), 「단풍丹楓」 전문

사바娑婆도 고쳐 보면  
이리도 고운 것을

유두流頭 달빛이  
연연히 내리는 이 밤

꽃송이  
곱게 떠오른  
연蓮못 가로 나오라.

— 이영도(1916~1976), 「연꽃」 전문

위의 시조는 공통적으로 1수 3연으로 된 단시조로 간결하고 정결한 언어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은 피고 지는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일체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인과(因果)법칙으로 스며들어 있다. 이를테면 “쳐서 더욱 피는” 이호우의 단풍은 “생명의 길 앞에서” 있는데 “차라리 아낌없이/저렇게도 잎 잎들은”이라고 아낌없이 주는 보시행을 나타낸다. 이 보시행은 육바라밀(六波羅蜜) 가운데 제일의 덕목으로서 자비의 마음을 뜻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데 이 시의 낙엽처럼 “스스로 몸들을 조아/남은 피를 뿜고 있다.”는 것이다. 낙엽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질 수 있는 것도 스스로 태우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탐욕을 벗어난 수행의 결과다.

또한 단시조형으로 불교적 세계관이 자연과 합일시켜 응송깊이 그려지는 그의 시편으로 「하(河)」를 빼놓을 수 없다. 시인은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러한 자연의 질서와 조화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살면 어떠며/어떻게 죽으면 어떠랴//나고 살고 죽음이 또한/무엇인들 무엇하랴//대하(大河)는 소릴 거두고/흐를대로 흐르네”라고 성찰한다. 그 모든 시작과 끝은 흐르는 대하(大河)와 같이 연결된 자연 일부분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구분할 수도 없으며 또한 다른 것도 아닌 ‘생사불이(生死不二)’와 같이 하나의 원처럼 돌고 도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불교적 생사관을 관통하게 만든다.

이영도의 「연꽃」은 주지하다시피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사바(娑婆) 세계'에서 피어난다. 사바의 세계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진흙탕 같은 곳이며, 연꽃도 다름 아닌 그러한 세상에서 피어난다고 묘사된다. 첫수 '사바(娑婆)도 고쳐 보면/이리도 고운 것을'이라는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지는 유심 철학(唯心哲學)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서 행복과 불행도, 극락과 지옥도 마음으로 생기며 마음으로 표상된다. 그것은 두 번째 수에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시기 "유두(流頭) 달빛이/연연히 내리는 이 밤"처럼 맑고 청명한 세계로의 진입을 알린다. 게다가 종장에서 번뇌와 탐욕을 제거한 청정한 마음 상태로 피는 "꽃송이/곱게 떠오른/연(蓮)꽃"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진·실·상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그녀의 불교적 인생관은 단수로 된 시편 「탑·3」에서도 펼쳐지는데 '탑'이라는 한국적 전래와 '이별'이라는 낭만적 발상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때 시적 주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건드리면서 "너는 저만치 가고/나는 여기 섰는데...//손 한번 흔들지 못한 채/돌아선 하늘과 땅//애모(愛慕는)/사리(舍利)로 맺혀/푸른 돌로 굳어라." 떠나가는 님과 보낼 수 없는 화자 사이에서 촉발되는 안타까운 '애모(愛慕)'의 감정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돌탑'처럼 굳어 버린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화자 눈에 맺힌 눈물은 탑에 탑재된 '사리(舍利)'로 비유되면서 그러한 상황을 섬세한 여인의 감정으로 대신한다. 가령 참된 수행의 결과로 '사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화자의 눈물은 참된 사랑의 결실로서 청정한 '푸른 돌로' 완성되는 것이다.

푸르름 푸르름 속

알꼴 큰 촛불 밝혀

곧고 바르게 선  
합장의 일념 기구  
속된 이  
범접도 못 하겠네  
저 축원의  
빛살

— 최승범(1931~), 「태산목련 꽃봉오리」 전문

최승범은 이태극의 시조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화의 포문을 열었던 인물이  
다. 그의 시조는 전통적 시조시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 감각을 반영한 현대  
적 시조시형을 확립시켰다. 전북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세계 서예 전북 비엔  
날레’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일본을 오가는 등 시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했다.

단수로 된 이 시조의 달걀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태산목련 꽃봉오리’  
는 불교의 또 다른 표상이다. 그것은 ‘푸르름 푸르름 속’에 ‘큰 촛불’을 밝히고  
있는 합장하는 모습이며, 전심으로 염불하고 있는 일념불생(一念不生)을 나타  
낸다. 이에 ‘태산목련 꽃봉오리’는 ‘일념 기구’로서 이 땅을 한결같이 ‘축원하는  
빛살’로 관음보살의 또 다른 얼굴로 비친다. 반면 그의 단시조 「인두겁」에서는  
“인간의 겸손과 오만/손바닥 뒤집듯//구름이다가/바람이다가//작태는/무성  
하여라//인두겁을/뺐는가”라고 찰나로 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사  
람 아닌 사람을 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쓴 존재로 묘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구름’ 또는 ‘바람’같이 무상하다. 우리 눈에 ‘무성’하게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  
닌 페르소나로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찰하게 한다.

언젠가  
취한 망나니

제 너머 버리고 간

서슬 퍼런

칼이 하나

서천(西天) 아래 떠오르고

황급히

하산하는 바람,

영재(永才)스님이 다가온다.

— 송선영(1936~), 「그믐 밤」 전문

송선영의 시조에 등장하는 영재(永才) 스님은 삼국시대 신라를 대표하는 승려 시인이다. 이 시는 영재 스님의 향가 우적가(愚賊歌)를 모티브로 호연한 신라 불교를 내세우고 있다. 송선영의 시조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표출하면서 초월적 자연이나 추상적 세계를 떠나 「그믐 밤」이라는 자연계로부터 출발한다. 이같이 시대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그의 시조는 민족의 전통적 탐색과 현실의 극복의지를 시조형식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단수로 된 이 시는 3연으로 나누어지면서 3단계의 묘사로 구성된다. 첫수에서 ‘술 취한 망나니가 버리고 간’ 것을 둘째 수에서 이어받는다. 그것은 ‘서슬 퍼런 칼’이며, 이 칼은 ‘서천(西天)’이라는 서방극락세계 아래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수 ‘황급히/하산하는 바람/영재(永才)스님이 다가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삼국유사에서 영재 스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도적의 칼날에 오히려 태연하게 “이 칼이사 지내고 나면 좋은 날이 새리니”라고 「우적가(愚賊歌)」를 부른다. 그러자 도적들은 이에 감동된 나머지 함께 머리를 깎고 입산해 버렸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그믐 밤’ 이 땅 위에 떠오른 ‘망나니의 서슬 퍼런 칼’로부터 지켜주는 자비를 영재 스님의 교법에서 찾고 있다. 이 시는 시대를

초월하여 자연계의 역사성을 넘어 불교 미학으로 재해석된다.

#### 나. 연시조와 부처의 표상

연시조로 부처의 표상을 형상화한 김상옥, 박병순, 이태극 등은 시조를 ‘시조시’로 확립하면서 제2차 시조 부흥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시조 시인들이다. 특히 김상옥의 시조 미학은 고전적인 조형물을 통해 민족정신을 탐미하며 그것을 시대정신으로 삼았다. 그는 “가장 구체적인 조형 언어로 빚어진 우리의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형의 시’는 우리의 시인 동시에 인간의 아픔, 즉 인간의 진실에 공명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지극한 사랑을 ‘자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sup>10)</sup> 이처럼 그는 시조를 최상의 예술적 가치로서 민족정신이 빚어낸 ‘조형 언어’로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부처님이 주신 ‘자비’와 동일시하고 있다. 당시 문학사의 전통주의와 모더니즘의 대립 구도 속에서 김상옥은 민족정신을 신라정신에서 발굴한다. 이러한 시의식은 전후 전통주의 시인들의 ‘신라정신론’이라는 시론을 낳기도 했다.

의젯이 연좌(蓮座) 위에 발돋움하고 서서  
속눈썹 조으는 듯 동해(東海)를 굽어보고  
그 무슨 연유(緣由) 깊은 일 하마 말씀하실까.

몸짓만 사리어도 흔들리는 구슬 소리,  
웃자락 겹친 속에 살결이 피비치고,  
도도록 내민 젓가슴 숨도 고이 쥐도다.

해마다 봄날 뱀에 두견(杜鵑)이 슬피 울고,

10) 김상옥, 『詩와 陶磁』, 아자방, 1975, 55~56쪽.

허구헌 긴 세월이 덧없이 흐르건만  
황홀한 꿈속에 쌓여 홀로 미소(微笑)하시다.

— 김상옥(1920~2004), 「십일면관음」 전문

3수 3연으로 된 이시는 신라정신과 불교 유적에서 한국의 미를 발견하고 민족적 정서로 승화시키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는 간절한 심경을 담아낸다. 3수로 된 「십일면관음」은 열한 가지의 얼굴을 가진 보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것은 십일면관음이 가진 다양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이 “속눈썹 조으는 듯 동해(東海)를 굽어보고” 있다면서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대한다. 따라서 이 시의 ‘동해’는 동방의 나라이고 관음보살은 우리 민족을 지키는 부처의 형상이면서 수호신으로 표상된다. 그것도 “몸짓만 사리어도 흔들리는 구슬 소리”와 “황홀한 꿈속에 쌓여 홀로 미소(微笑)”를 가진 ‘십일면관음’의 한량없는 자비를 나타낸다.

오직 지아비를 위하여  
청춘을 고스란히 바쳤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 아닌 죄로 하여,

산처럼 외로운 고독을  
참아 가는 생부처!

단 하나 찢줄인  
딸자식을 데불고,

빠끔히 트이는  
희망을 의지하여,

어디든 살아 보겠다는  
가득하다 생부처!

그대 생부터로  
이생을 곱게 나서,

저승에 다시 만나  
겹을 두고 누리다가,

인간에 되 태어나는 날  
영킴 없이 펴세나

— 박병순(2017~2008), 「생부처」 전문

당시 시조 시인들의 글에서 시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 시편을 창작한 박병순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태극과 함께 시조를 창작하고 보급하는 것이 민족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발로, 곧 시대적 사명으로 여겼다. 마치 민족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어떠한 전통의 계시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사유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침윤된 시조 개척기 시인들의 고유한 문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3수 9연으로 된 박병순의 시 생부처는 살아 있는 생불(生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형상화한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 유교 이념이 팽배하게 이어지는 시기로 출가한 여자는 오로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했다. 게다가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으로 여자가 슬하에 아들이 없으면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시집살이를 감내

해야 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다처제가 암묵적으로 허용됐다.

말하자면 ‘딸자식’만 있는 화자의 아내는 ‘오직 지아비를 위하여/청춘을 고스란히 바쳤’지만 ‘아들을 못 낳는다는/죄 아닌 죄로’ 평생 죄인처럼 혹사당하며 살았다. 이러한 아내를 화자는 2수 종장과 3수 종장에 와서 ‘생부처’라고 칭한다. “산처럼 외로운 고독을/참아 가는 생부처!”와 “어디든 살아 보겠다는/가득하다 생부처!”가 그것이다. 원래 생부처는 불가에서 살아있는 부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인격과 덕행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의미한다. 시인은 아내의 공덕을 세속의 법과 도덕에 구애되지 않는 자로서 완전무결한 인격체와 같이 생불에 비유하고 있다. 마지막 수에서는 이성이 아닌 저승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데 “인간에 되 태어나는 날”이라는 윤회 의식을 보이기도 한다.

솟아 솟으려구 창공을 떠받고서  
수련한 숲과 숲의 철 따른 변화 속에  
억년을 한 모양으로 살아온 낮이어라

해와 달 별빛 받아 사념은 깊어가고  
구름과 바람 님늬를 쓸어안은 채  
너는 저 속념을 등진 생불로서 숨 쉬나

오가는 인간들은 애환의 멩엘 메고  
역사의 톱니바퀴로 시각을 다투는데  
지극한 예지의 미소로 명암(明暗) 속에 사나 너.

— 이태극(1913~2003), 「뿔부리」 전문

이태극은 이병기의 제자로서 박병순과 함께 활동한 시조사의 중심인물이

다. 이화여대 재직시절 1958년 『시조론』으로 시조 형식을 정립하고 1960년 『시조문학』을 창간한 이태극은 시조 개혁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근대 시조로부터 갈등을 빚었던 표현방식과 형식의 혼돈을 시조 이론으로 정립했다는 점은 문학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조 동인을 시동인과 연대하여 폭넓게 구성하는 등 시조 창작과 시조 보급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은 이전과 다른 현대시조 이행기의 면모를 보여준다. ‘시조’가 어디까지나 ‘시’임을 주장했던 이태극은 ‘자유시’와 다름없음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시조는 ‘시조시’로서 궁극적으로 언어의 고유성과 민족의 전통성을 파급할 수 있었다.

3수 3연으로 된 「뗏부리」는 뗏부리의 방언으로 산동성이나 산봉우리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다. 화자는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뗏부리를 통해 ‘생불’을 발견하며 ‘부처의 미소’를 떠올린다. 첫수에서 이 뗏부리를 “솟아 솟으려구 창공을 떠받고서” 있는 역발상 속에서 “수련한 숲과 숲의 철 따른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억년을 한 모양으로 살아온 냇”으로 현현된다. 이 ‘냇’은 ‘뗏부리’의 변하지 않는 영혼으로서 유기체적인 존재로 투사시키는 데 있다. 그것은 다음 수에서 ‘해와 달 별빛 받아 깊어지는 사념’ 속 ‘구름과 바람’이 넘나들면서 불교적 사유를 끌어안고 있다. 이에 뗏부리의 냇은 모든 것을 초월한 이른바 ‘저 속념을 등진 생불로서 숨 쉬’는 존재로서 파급된다. 3수에서 뗏부리는 인간들의 ‘애환과 멍에’ 속에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도 ‘예지의 미소’를 가지고 있다. 이때 예지의 미소는 뗏부리같이 살아있는 부처님의 변하지 않는 자비로서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등 삶의 근원적 명암을 비추고 있다.

#### 다. 산문적 시조와 인드라마의 세계

인드라마는 불교의 신적 존재 가운데 하나인 인드라(Indra)에서 온 말로서 모든 존재들을 각자의 고유한 구슬로 현현한다. 이 구슬들은 보배 구슬로서 그

물코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를 비추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인드라마의 구슬들은 법계의 일체 현상도 중중무진하게 관계를 맺으며 연기하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화엄의 세계를 표상한다.

살피볼 정소파, 장순하, 박경용 시조는 각기 산문적 요소를 가지면서 인드라마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이병기, 백석, 조운 등과 교류하며 1959년 「시예술」 발기 동인을 펼친 정소파는 자연 친화적인 암시와 여백의 미학으로 동양 정신을 불교적 사유로 구현하는 시조를 창작했다. 또한 「산창일기」는 정소파의 대표작으로 이 세계의 실상을 밝혀주는 불교의식이 지배적인 시편이다.

1.

봄 눈이 스러진 골  
물소리 마냥 높다.

별 바른 미단을  
산새 스쳐 날아가고,

봉마다 머금은 불꽃  
명울 지어 트인다

2.

만나절 송경소리  
줄음 절로 오는 데,

부처님 미소 띠신 채  
대서 내려 오시고—

어디서 산땡 우는 소리...  
자즈러진 메아리—

3.  
웅기중기 솟은 맏부리  
비치는 햇살!

느릅나무 등걸 마다  
속잎 트는 데,

보조개 지우며, 웃는  
꽃과 같은 젊은 승

4.  
천산처럼 살고지랴!  
비는 이 마음...

숲길 거닐다 말고  
한 모금 마신 샘물,

사슴의 애먼 향기는  
속된 얼에 스민다.

— 정소파(1912~2013), 「산창일기(山窓日記)」 전문

4수 각 3장으로 된 연작 시조 「산창일기(山窓日記)」는 장마다 봄이 오는 시간적 풍경에 따라 화자 내면을 서술적으로 비추고 있다. 여기서 ‘산창(山窓)’은 산속에 있는 집의 창문을 의미한다. 이 창문을 통해 화자는 봄이 오는 무한

한 생명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린다. 1수 초장 “봄 눈이 스러진 골”에서 발현되는 산속은 “봄마다 머금은 불꽃”으로서 ‘명울 지어 있는 봄’을 트이게 하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세계가 열린 것은 2수에서 불경을 외는 ‘반나절 송경소리’에서 “부처님 미소 띠신 채/대서 내려 오시고”로 묘사된다. 이 땅에 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인해 3수에서 “보조개 지우며, 웃는/꽃과 같은 젊은 승”이 있는 것이며, 4수에서 부처님 마음과 같은 “천산처럼 살고지라!/비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시조는 수마다 ‘봄마다 머금은 불꽃’ ‘용기중기 솟은 맺부리 비치는 햇살!’ ‘한 모금 마신 샘물’ 등의 표현을 통해 봄의 강한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산속 봄을 알리는 신비한 기운들은 인드라마와 같이 세계 곳곳에 머무는 부처로부터 생겨난다.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을 가진 ‘인드라마’는 그물코마다 보배구슬이 박혀서 발산되는 빛들이 무수히 겹치며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시에서 봄을 태동시키는 불꽃 같은 햇살들이 내는 ‘자즈러진 메아리’는 인드라마의 보배구슬에서 오는 빛의 소리로 드러난다. 이처럼 이 시편에서 형상화되는 인드라마는 봄이 오는 산창에서 “각양각색의 꽃에 의해 위엄있게 되는 화엄의 세계”<sup>11)</sup>를 밝혀주는 데 있다.

소리란 소리, 글자란 글자들이 대천바다 백사장에 모래알로 널렸다.

산 위에 야호 소리, 오러는 새 쫓는 소리, 신작로 경적 소리, 서당방 글 읽는 소리, 장바닥의 골라 소리, 곡마당의 나팔 소리, 선늪은이 잠꼬맷소리,

하룻밤 비바람에 말끔히 씻기면서 첫소리 가운데소리 받침소리가 모조리 훈민정음으로 분해되어 대천 바다 백사장에 모래알로 널렸는데,

입술에 한일자 그은 탁발 스님이 바릿대에다가 흠어진 소리 흠어진 글자들을 연신 주워

11) 길상, 『불교대사전』, 흥법원, 2005, 2853쪽.

담고 있었다.

— 장순하(1928), 「백사장에 널린 소리」 전문

인드라마의 보배로운 구슬 소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곳에서 세계를 연결하고 관계 맺고 퍼지는 불법의 세계다. 생태적으로 수많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사물들이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역시 존재라는 각각의 구슬이 전체라는 구슬로 다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존재의 본성은 장순하 시편에서 사설시조로 전개되면서 불교적 사유가 확장된다. 1951년 시조동인 『신조(新調)』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장순하는 1950년대 한국현대시조 문학사에서 평시조를 비롯하여 엽시조와 사설시조에 이르기까지 현대시조를 감각적, 실험적으로 창작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된 위 시는 ‘대천바다 백사장 모래알’ 속에서 널려있는 ‘소리와 글자’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흩어진 소리와 글자들을 인드라마의 상상력에서 바라보면 모래알은 인드라 그물의 씨줄과 날줄로서 백사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분리된 것 같지만 서로 얽힘과 되먹임이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것도 영롱한 구슬과 같이 서로 결절점으로 관계하며 빛과 소리를 내고 글자를 이룬다. 종장에서 수많은 “산 위에 야호 소리, 오려논 새 쫓는 소리, 신작로 경적 소리, 서당방 글 읽는 소리, 장바닥의 골라 소리, 곡마당의 나팔 소리, 선늬은이 잠꼬맷소리” 등을 자아내고 있다. 종장에서는 ‘스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스님은 ‘입술에 한일자 그은 탁발 스님’으로서 묵언수행을 하는 자로서 수행 길에 있다. 따라서 “바릿대애다가 흩어진 소리 흩어진 글자들을 연신 주워 담고” 있는 묘사에서 깨달음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말 밖에 있는 진실이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워 담는 스님의 바릿대는 인드라마의 그물적 사유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굵진 주름살마다  
 일렁일렁 나울이 잦던  
 시름의 나울, 바람의 나울  
 그 바다는 잠이 들고  
 바닷가 밀려난 조개론듯 오,  
 깨어 남은 한쌍 염주!

먼 훗날 잠든 입자의  
 그 바다가 도로 깨어  
 해일(海溢)토록 넘친단들  
 시방 오죽한 외롭이야  
 오늘에, 뉘 바다에 들어  
 씻기고플 것이여.

— 박경용(1940~), 「염주」 전문

2수 2연의 서사를 가진 이 시조를 창작한 박경용의 특이점은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이나 동시조집을 출간하면서 한국 동시조를 개척한 시조 시인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세속에 길들지 않으려는 순진무구한 인생관이 그의 문학적 질료로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시조 세계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근원적 탐구로부터 실존적 개인사의 여정을 담고 있다.

박경용의 「염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처음과 끝이 없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위무하는 범구를 소재로 한다. 이 염주는 돌아간 할머니의 유품으로 나타나는데 주석에서 “할머니 살아 계셨을 적, 한 쌍 염주를 보듬으셨다”에서 출발한다. “생전에 지니셨던 것 모두 가신 입자 몸 따라 자취 감추었는데, 오직 그 염주 한 쌍만이 빈 방의 빈 벽에 걸려 남아 있었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염주의 구슬은 보살의 훌륭한 과를 표상하는 것으로 구슬들의 중간에 구멍을 뚫린 것은 번뇌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드라

망의 그물코와 같이 연결된 인연설에서 기인한다.

할머니의 오래된 염주는 바다 같은 할머니의 마음을 생태학적으로 상상하는 데 있다. 1수에서 “끓진 주름살마다/일렁일렁 나울이 잣던/시름의 나울, 바램의 나울”과 같이 한시라도 파도치면 안 되는 바다와 할머니를 전치시킨다. 이를테면 썰물이 지나간 자리에 조개가 남듯이 할머니라는 삶이 지나간 자리에 ‘한쌍 염주’가 있었다. 2수에서 죽었던 할머니(바다)가 살아나더라도 넘쳤던 외로움은 ‘해일(海溢)’ 같은 파도에도 씻지 못한다. 이처럼 할머니의 ‘염주’는 외로움이라는 번뇌를 없애는 유일한 범구로서 짙을 이루는 동반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 IV. 결론

1950년대 전후 세대 시조 개척기 시조 시인들은 시대적 좌절과 폐허 속에서 시조로서 전통의식을 추구하며 시조 부흥에 이바지했다. 그것은 저마다의 시의식 속에 민족 정서를 보존하고 시대정신을 계승하는데 불교적 사유가 결합 되어 나타난다. 혼돈과 격동의 시기 시조에 나타난 불교의식은 초월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동되며 실존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살펴본 1950년대 전후 세대 시조 시인들은 현대시의 대열에 편성하게 한, 창작의 주체로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시조 부흥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무렵 활동한 시조 시인은 당대를 대표하는 창작의 주체로서 공통적으로 1910년 이후 출생자이며 1950년대 전후로 등단하여 시단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1950년 시조 개척기 시편에는 1910년대~40년대 현대시조 태동기 또는 모색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층적인 불교적인 사유로 시대정신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시조 시인으로 첫째 단시조와 자연의 인과성에는 이호우, 이영도, 최승범,

송선영을, 둘째 연시조와 부처의 표상에서는 김상옥, 박병순, 이태극을, 셋째 산문적 시조와 인드라마의 세계에서는 정소파, 장순하, 박경용 등의 시조를 중심으로 전후 세대 불교의식을 고찰했다.

이로써 당시 시조 시인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상과 폐허 속에서 실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시조 문학을 통해 1950년 세대를 열어갔다는데 주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민족 유일한 주체적 언어로서 시조를 옹호하며 고전적 미의식과 형식미학을 다양한 불교적 사유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전후 세대의 시조와 불교의식의 양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폈다. 1950년대 시조를 불교적 사유로 구성된 시조 형식으로 정형화 했는데, 두드러진 불교적 테마로 자연적 인과성, 부처의 표상, 인드라마의 세계 등을 시적 양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텍스트 시편을 단시조, 연시조, 산문적 시조로 나누어 분석했다.

<참고문헌>

- 길 상, 『불교대사전』, 흥법원, 2005.
- 김상옥, 『詩와 陶磁』, 아자방, 1975.
- 남기혁, 「한국 전후 시의 형성과 전개」, 『한국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7.
- 노춘기, 「이영도 시조의 역사의식 연구」, 『우리문학연구』 70호, 우리문학회, 2021.
- 이선희, 「월하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전통 인식」, 『문예운동』, 1993.
- 이지엽, 『한국 현대시조 작가론 III』, 태학사, 2007.
- 이태극, 「시조부흥론」, 『시조연구』, 시조연구회, 1953.
- 임곤택, 「1950년대 현대시조로 연구—월하 이태극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0호, 한국시학회, 2014.
- 임곤택, 「한국현대 시조의 위상과 2차 시조부흥운동」, 『비평문학』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 유성호,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조를 통한 자기 인식」, 『배달말』 36호, 배달말학회, 2005.

<Abstract>

## Buddhist studies of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the contemporary sijo

Kwon, Sung-hun(Kyongg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sijo orthopedic style and its meaning through the contemporary sijo Buddhist aspects of the generation around the 1950s.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sijo literature, sijo before and after the 1950s is evaluated as a pioneering period of contemporary sijo.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odern sijo pioneering period occurr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modern sijo in the 1910s and the search for the modern sijo in the 1920s and 40s. If the old form of ancestor sijo was removed along with the 'Sijo Revival Movement' conducted by Choi Namseon, Lee Eunsang, Lee Byeonggi and Jo Un in the 1920s, Sijo was established as a genre of contemporary literature during the pioneering period of sijo in the 1950s.

The contemporary literature, which was placed betwee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s composed of tradition and innocence, triggering a sharp confrontation along with the change of generations. At that time, the minority sijo poets experienced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liberation, and the crisis of existence in the tragedy and ruins of the Korean War, and opened their world view

through the sijo literature in the 1950s. They defended Sijo as the nation's only independent language and cultivated classical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While accommodating the traditions adhered to in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modern sijo and pioneering period of contemporary sijo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nti-modern sijo change was sought. By observing the changes in life and the problems of the times through sijo, it reveals a variety of Buddhist thinking that has never existed b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Buddhist consciousness in the before and after period in the 1950s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 this article, Chapter 2 examines the before and after period and sijo of the 1950s. In Chapter 3, we sought to classify the founders of the before and after generation and Buddhist consciousness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a group of works formed in a similar format through the psalms composed of Buddhist thought in Sijo in the 1950s.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e Buddhist thoughts prominent in text psalms, such as natural causality, Buddha's representation, and the world of Indraman, by dividing them into short sijo, sequence sijo, and prose sijo in poetic style.

Studying on Buddhist consciousness of before and after generations focusing on sijo, the sijo poet of the text sijo, first, Lee Hou, Lee Yeongdo, Choi Seungbeom and Song Seonyeong for the short sijo and the natural causality, second, sequence sijo and Buddha's representation, Kim Sangok, Park Byungsoon, Lee Taeguk, prose sijo and the world of Indraman, Jeong Sopa, Jang Soonha, Park Kyungyong.

The sijo poets of the before and after generation in the 1950s who were examined in this way contributed to the revival of sijo by pursuing

traditional consciousness as sijo amidst the frustration and ruins of the times. It preserves the ethnic sentiment in each ritual and manifests itself in combination with Buddhist reasons to inherit the zeitgeist. Buddhist consciousness, which appeared in a time of chaos and turbulence, operates realistically rather than transcendently, and delves into existential problems.

Keywords : 1950 sijo, before and after period sijo, Buddhist reasons, Buddhist consciousness, natural causality, Buddha's representation, the world of Indraman

이 논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TV 드라마 <황진이>의 시조 재현 양상과 스토리텔링 기법의 의미 고찰

이 채 영\*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황진이'라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TV 사극 드라마에서 시조의 양상이 영상과 함께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시조 재현의 스토리텔링 기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TV 드라마 <황진이>에 재현된 시조의 양상과 스토리텔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조 「어저 내일이야~」의 재현을 통해 기녀로 살아야 할 운명을 선택하고 고난을 수용하는 황진이 캐릭터의 강화와 함께 이별의 애상적 정서 표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의 재현에서 시조가 벽계수 유혹의 수단이자 극 중 변화된 황진이의 팜므파탈(femme fatal)적인 캐릭터 면모 강화의 스토리텔링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조 「산은 옛산이로되~」가 재현을 통해 情人 감정함과 교감하는 수단 및 세계에 대한 인식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시조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에서 황진이의 獨舞와 시조가 결합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법을 통해 황진이의 예술 세계와 藝人으로서의 황진이 삶의 절정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조를 스토리텔링에서 활용한 TV 드라마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조와 영상콘텐츠가 결합되었을 때 영상콘텐츠의 캐릭터 묘사 및 특성 강화에서, 그리고 캐릭터 간의 교류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시조, 영상콘텐츠, 스토리텔링, TV 드라마 <황진이>, 시조 재현 양상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조교수.

## I. 서론

20세기 이후, 많은 고전 문학 작품들이 저마다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매체와 장르로 재창작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조 향유의 대중적 확산 및 새로운 장르로의 재매개를 통한 현재화의 진행은 여타의 고전 장르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한 시대 이상을 품미한 시조의 위상,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많은 시조 작품 편수를 고려한다면, 시조가 오늘날 현대의 문화콘텐츠로 재창작되는 사례나, 현대의 대중들이 시조를 일상적으로 감상하고 향유하는 상황은 다른 고전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조의 문화콘텐츠 재창작 사례가 全無한 것은 아니다.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영상콘텐츠에서 시조가 서사를 풀어내는 소재나 극적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콘텐츠는 시조의 현재적 변용 양상과 시조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을 일정 부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현재의 시조 창작과 전승을 분석하면서 시조의 현재성을 진단하거나, 시조의 현재화의 가능성과 방안, 그리고 현재적 위치와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주제로 분포되어 있다. 시조를 포함한 다양한 고전 시가의 작품들의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거나 방안을 구체화한 연구<sup>1)</sup>, 시조의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이나 사

1) 이찬욱, 「時調 朗誦의 콘텐츠화 研究」, 『時調學論叢』 19집, 한국시조학회, 2003.

\_\_\_\_\_, 「時調文學 텍스트의 문화콘텐츠화 研究」, 『우리문학연구』 21집, 우리문화회, 2007.

한창훈, 「시조문화 정보시스템 개발의 가능성과 전망」, 『時調學論叢』 19집, 한국시조학회, 2003.

김성문, 「시조문학의 가치와 위상, 그리고 세계화 방안 모색」, 『時調學論叢』 41집, 한국시조학회, 2014.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시가문화연구』 34,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4.

권성훈, 「문화콘텐츠로서의 현대시조와 아카이브 구축」, 『동아인문학』 48, 동아인문화회, 2016.

례, 가능성을 도출한 연구<sup>2)</sup>, 시조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양상을 논의한 연구<sup>3)</sup>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조의 현재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이어져 왔으나, TV나 영화 등의 영상콘텐츠에 나타난 시조의 양상을 분석하거나 시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분석한 논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영상콘텐츠 중 시조가 가장 많이,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된 TV 드라마 <황진이<sup>4)</sup>>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TV 드라마 <황진이>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한 논문들이 다수 존재한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중 영상콘

박영우, 「시조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국어문학』 63, 국어문화회, 2016.

장정수, 「계몽기-근대시조 DB의 개선 및 콘텐츠화 방안 연구」, 『時調學論叢』 44집, 한국시조학회, 2016.

김지은,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캐릭터 형상」, 『時調學論叢』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2) 류수열, 「시조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능성」, 『時調學論叢』 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김세림, 김상진, 「시조 스토리텔링의 유형 및 활용 방안」, 『時調學論叢』 51집, 한국시조학회, 2019.

이다정, 김윤희,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안동 陶山書院이 지닌 가능성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 시조 <陶山十二曲>의 활용을 중심으로」, 『은지논총』 59, 은지학회, 2019.

이수근, 「국문시가의 효율적 인문 교양 교육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서강인문논총』 4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_\_\_\_\_, 「시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수용의 두 사례」, 『時調學論叢』 51집, 한국시조학회, 2019.

3) 나정순,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본 시조」, 『時調學論叢』 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이경영, 「전통성과 현대성의 경계」, 『時調學論叢』 35집, 한국시조학회, 2011.

4) KBS2 TV 드라마 <황진이>, 2006.10.11.~2006.12.28. 방영, 24부작.

5) 이 중 다수의 학술 논문이 드라마 <황진이>에 나타난 의상이나 복식, 미용, 헤어 디자인, 춤 등을 연구하는 주제인데 이러한 논의를 제외하면 드라마 <황진이>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신익철,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야담 문학의 활용과 TV 드라마, 영화의 창조적 상상력 - 「어우야담」과 <왕의 여자>, <황진이>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7, 한국한문학회, 2006.

손정희, 「소설을 각색한 TV드라마의 대중성강화 기법 연구 - 「허준」, 「황진이」, 「커피프린스1호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4,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7.

이명현, 「영상서사에 재현된 황진이 이야기의 두 가지 방식 - 드라마 <황진이>와 영화 <황진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11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0.

텐츠 <황진이>에 드러난 시조의 양상과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 분석하거나 논의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황진이’라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TV 사극 장르에서 시조의 양상이 영상과 함께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펴 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시조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조의 스토리텔링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시조의 영상콘텐츠 스토리텔링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는 나아가 시조의 세대성의 일맥을 진단하는 논의의 장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TV 드라마 <황진이>의 스토리텔링 특징과 의미 고찰

1. 이별의 情恨을 표출하는 장면과 시조의 결합 - 이별에 대처하는 황진이의 캐릭터 구축 및 애상적 정서 확장의 스토리텔링 - 「어저 내일이야~」

TV 사극 <황진이>에서 황진이는 빼어난 미모와 지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일관되게 묘사된다. 그러나 서사의 면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사 전반부의 황진이와 중반부의 황진이, 그리고 후반부의 황진이의 캐릭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부작 <황진이>의

이수미, 「여성중심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젠더 담론: <대장금>, <황진이>,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희라,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창작 교육방안: 드라마 <황진이>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경성, 「서사양식의 장르전이에 따른 스토리텔링 변화 양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종호, 「문명을 읽어내는 관점의 다양성과 가치관의 변화 - 황진이 소재 서사를 중심으로」, 『문명연지』 14-2, 한국문화학회, 2013.

김종호, 「황진이 소재 서사의 궤적과 이태준의 『황진이』」, 『우리문학연구』 42집, 우리문화회, 2014.

전반부에 해당하는 8화 이전까지 서사는 주로 기생으로 활약하기 전 황진이의 삶을 개연성 있는 사건들로 전개해 간다. 특히 서사의 전반부의 주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첫사랑 ‘은호 도령’과의 만남은 황진이의 성장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처럼 ‘은호 도령’과 사랑에 빠지고, 그와 교류하는 상황이 서사의 전반부를 메워 나간다면,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은호 도령’과 이별하는 황진이의 선택에 따른 과장이 9화 이후 서사의 중반부 전개에 급속한 변화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서사의 초반부와 중반부 사이의 변환점에서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일이야~」가 재현되는 장면(Scene)이 등장한다. 장면의 카메라 이동 등이 촬영 기법이나 편집 기법과 함께 시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영상과 함께 배치되는 시조 내용 <sup>6)</sup>	장면(Scene)에서 묘사되는 주요 인물과 행위	샷(shot)	배경	비고
어더 너 일이어 그릴 줄를 모로던가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걸어가는 진이의 모습	미디엄 샷	낮, 집과 나무가 이어지는 마을 길	황진이의 낭송(독백) + 배경 음악의 고조 및 강화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퓌야	도끼로 나무를 패며 땀을 뉘다가 웃으며 하늘을 올려 보는 은호	미디엄 샷	낮, 집 뒤뜰	
보너고 그리는 情은	홀로 다리 위에 올라 연못을 바라보며 서 있는 진이	롱샷	낮, 연못 위 다리	
나도 몰나 흐노라	결국 눈물을 흘리며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는 진이	클로즈업 → 롱샷	낮, 연못 위 다리	

<표 1> 시조 「어저 내일이야~」<sup>7)</sup>의 영상 재현 양상 분석

6) 시조의 내용은 심재환의 『교본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에 수록된 기준 작품을 텍스트로

첫사랑이었던 은호와 이별한 후 그와 함께 거닐던 다리 위에서 홀로 황진이 가 눈물을 흘리며 회상하는 장면에서 「어저 내일이야~」가 자연스럽게 삽입된다. 시조 자체는 독백의 낭송 형태로 재현된다. 시조가 황진이의 음성으로 구현되는 동안, 단조의 바이올린 선율 위주로 전개되는 OST(Original Sound Track)가 함께 삽입되어 황진이의 비통한 심정과 이별의 정한이 더욱 미학적으로 강화되어 표출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배경 음악과 함께 시조가 구현되는 동안, 영상 화면에서는 눈물을 참으며 마을 길을 걸어가는 진이의 모습이 잠시 보이고 이와 교차되도록 서생 은호의 해맑은 모습이 삽입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카메라는 다리 위에서 눈물을 참다가 흘리며 주저앉아 흐느껴 우는 황진이의 모습을 비춰 주는데 이러한 구성과 화면의 배치에서 이별 후 애상적 정서 강화의 스토리텔링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조의 재현과 함께 진행되는 서사 전개에서, 황진이가 이별에 대처하는 외강내유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황진이 캐릭터의 독자성을 구축해 나가는 기능도 발견된다.

TV 드라마 〈황진이〉의 특징으로, 꽃과 풀이 아름답게 펼쳐진 연못이나 정원, 또 한옥 등의 풍경과 함께 황진이나 다른 인물들의 대화, 또 각자의 회로애락이 묘사되는 영상 구성을 자주 시도한 점을 들 수 있다. 위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숲의 배치에서도 황진이와 은호 도령, 그리고 이별의 정한과 이에 대비되는 배경의 아름다움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숲에 의해 포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 화면은 웅장함을 드러내며, 좁아지면 섬세함을 드러”<sup>8)</sup>내는데 즉, 「어저 내일이야~」를 통해 황진이가 이별 후 슬픔을 참다가 쏟아내는 장면을 황진이의 표정이나 행위 등을 클로

---

삼아 정리함을 밝힌다.

7) 심재완, 앞의 책, 697쪽(1965번).

8) 허만옥, 『시각과 상상의 즐거움, 영화의 이해와 탐색』, 보고사, 2013, 126쪽.

즈업하는 장면과 함께 은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연못 위의 다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룡솷으로 교차 편집하여 사극 장르의 드라마가 잘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적인 이별의 정한과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워 할 줄 알면서도 님을 보내야 하는 자신의 모순적 처지,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sup>9)</sup> 을 엿볼 수 있는 시조「어저 내일이야~」와 같이, TV 드라마 <황진이>에서 「어저 내일이야~」와 함께 재현되는 영상에서도 서생 은호를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하는 모순적 처지와 함께, 이별 선택 이후 본인이 겪게 될 입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는 황진이의 모습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별 또는 이별 직후의 황진이의 상황 및 운명에 저항하고 싶어하나 기녀로서의 삶을 결국 수용해야 하는 황진이의 심정을 드라마에서 재현하면서 이를 시조「어저 내일이야~」와 함께 결합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드라마 전반부의 어린 소녀 황진이가 본격적인 기생의 삶에 뛰어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황진이 내면의 후회와 통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알고 있던 황진이 시조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2. 벽계수 유혹의 수단이자 극 중 변화된 황진이의 팜므파탈(femme fatal)적인 캐릭터 면모 강화의 스토리텔링 -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가 은호 도령과 이별한 이후 결국 은호 도령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밝고 당차면서도 순수한 면이 있던 황진이는 냉정하고 현실적이면서 필요에 따라 남성을 유혹할 줄 아는 기녀이자 예인으로 과격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TV 드라마 <황진이>의 중반부인 9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황진이 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

9) 김은미, 「황진이 시조에서 독백의 문제」, 『국학연구』 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322쪽.

하나가 바로 「청산리 벽계수야~」인데 이 시조에서 호명된 벽계수 역시 드라마 서사의 중반부인 9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왕실의 종친이자 권력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는 벽계수는 황진이를 다른 기생과 마찬가지로 여겨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나, 황진이는 그런 벽계수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응수하여 벽계수가 끝끝내 사로잡을 수 없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결국 둘의 대면은 서사에서 주로 팽팽한 긴장을 이끌어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의 지속에서 긴장이 극대화되는 장면인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의 낭송과 황진이와 벽계수의 대치 장면이 결합되어 재현된다. 시조의 재현이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영상과 함께 배치되는 시조 내용	장면(Scene)에서 묘사되는 주요 인물과 행위	샷(shot)	배경	비고
靑山裏 碧溪水야 수이 감을 즈랑마라	벽계수를 바라보며 도도한 표정과 담담한 목소리로 시조를 낭송하는 진이	클로즈 업 샷	밤, 산속	황진이의 낭송 + 긴장감을 유발하는
一到 滄海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진이의 낭송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는 벽계수	클로즈 업 샷	밤, 산속	배경 음과 함께 재현 +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 간들 엇더리	벽계수를 바라보며 도도한 표정과 담담한 목소리로 시조를 낭송하는 진이	클로즈 업 샷	밤, 산속	시조 자막 제시

<표 2>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sup>10)</sup>의 영상 재현 양상 분석

10) 심재완, 앞의 책, 1045쪽(2858번).

벽계수를 자연에 비유해 우롱하는 능청스러움이 담겨 있다<sup>11)</sup>고 평가받는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의 내용과 유사한 서사가 <표 2>와 같이 전개된다. 이 장면은 황진이와 벽계수의 대치 과정 중에 자신을 외면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벽계수를 향해 황진이가 던지는 유혹의 메시지이자, 벽계수의 진의를 시험해 보는 황진이의 의중이 발현된 결과이기도 하다.

벽계수는 황진이의 생모이자 기생인 현금에게 ‘황진이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황진이에게 관심이 없는 척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는다.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벽계수는 황진이를 등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도중에 황진이가 벽계수를 유혹하기 위해 「청산리 벽계수야~」를 당당하게 읊고 벽계수는 황진이가 읊는 시조를 들으며 황진이를 향해 돌아설지 말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말을 돌리지 않고 힘겹게 가던 길을 간다.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가 황진이의 입을 통해 낭송되는 동안, 화면에서는 황진이와 벽계수의 얼굴 위주의 클로즈업 샷이 계속 교차되면서 제시된다. 클로즈업 샷의 빠른 전환과 교차를 통해 벽계수를 호명하며 유혹하는 황진이, 이에 흔들리나 억지로 황진이를 외면하면서 힘없이 발길을 돌리는 벽계수, 그러한 벽계수를 보고 의아하게 여기는 황진이의 표정과 눈빛이 다이내믹하게 제시되고, 캐릭터의 감정 변화와 대치 상황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을 계속 외면하는 벽계수를 의아하게 여기던 황진이가 곧 자신의 가마를 타고 가마꾼들에게 벽계수와 반대 방향으로 가마를 돌려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벽계수는 이러한 등 뒤의 정황을 자신의 노비에게 전해 들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벽계수와 노비의 대사를 통해 전개된다. 결국 벽계수는 말을 돌리려다가 낙마하고 이를 본 황진이는 웃으면서 유유히 가마를 타고 사라진다.

11) 金彰頌, 「妓女時調作品小考」, 『국문학』 8집, 고대국어국문학회, 1964, 86쪽.

한편, 『금계필담』에 의하면 벽계수는 황진이의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이달에게 조언을 구해 황진이와 만나게 되었으나 결국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를 부르자 나귀의 등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진다.<sup>12)</sup> 드라마에서는 이달이 따로 등장하지 않고, 이달의 조언이 변형되어 황진이의 생모 '현금'을 통해 벽계수에게 전달되는 점이 기록과는 다른 지점이다.

이 대목은 TV 드라마 〈황진이〉에서 황진이 캐릭터의 다양한 면모를 묘사하면서도 그 중 주된 특성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당차고 자신감 넘치며 매력적인 기생으로서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산리 벽계수야~」가 재현된 장면에서는 첫째, 황진이의 평소의 가치관과 벽계수의 진의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황진이의 내적 동기의 발현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이 지향하는 예능인의 삶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매한 인격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녀가 벽계수를 향해 “풍류는 있으나 명사가 아니다.”<sup>13)</sup>라고 지적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고, 사대부들이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기준이 높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14)</sup>라는 이화형의 언급처럼 황진이는 고매한 인격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중요시했다. 드라마 〈황진이〉에서도 이러한 황진이의 가치관과 벽계수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詩作을 해내는 순발력을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로 풀어내면서 황진이의 빼어난 시적 감각을 형상화하였다. 셋째, 이 대목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진이의 유혹에 굴복한 벽계수가 낙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황진이가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기생 황진이의 팜프파탈(femme fatale)적인 캐릭터 형상이 강화되는 효과를

12) 유육래, 「황진이의 연정시 연구」, 『은지논총』 제41집, 은지학회, 2014, 78~79쪽 참조.

13) 이화형, 「황진이의 예능과 인격의 융합」, 『시조학논총』 50, 한국시조학회, 2019, 131쪽에서 재인용: 서유영, 『금계필담』

14) 이화형, 위의 논문, 131쪽.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대중들은 황진이에게서 억압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유혹하는 팜므파탈(femme fatale)의 이미지를 찾는 것이다. 또한 매혹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상이 결합된 황진이에게 매력을 느낀다.”<sup>15)</sup>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드라마 〈황진이〉에서 황진이는 기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과감하게 선택하는 자유로운 캐릭터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청산리 벽계수야”라고 자신을 지배하는 계층을 당당히 호명하면서 벽계수와의 대치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조절할 줄 아는, 주체적 의지를 지닌 황진이의 면모가,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와 함께 영상으로 개연성 있게 맥락화되는 이 대목에서 더욱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대담하며 자유롭고, 그래서 팜므파탈적인 황진이 캐릭터에 대한 대중의 현대적 관심과 호응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 3. 情人과 교감하는 수단 및 세계에 대한 인식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 「산은 옛산이로되~」

TV 드라마 〈황진이〉에서 황진이는 두 번의 사랑과 이별을 겪고 끝없이 고뇌하면서도 藝人으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서생 은호와의 이별 이후 황진이가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지는 인물은 예조 판서 ‘김정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황진이는 ‘김정한’과 함께, 예술과 문화, 또 나라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깊이 교감하는데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도 더욱 깊어진다. 이처럼 情人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조가 활용된다.

15) 이명현, 앞의 논문, 151쪽.

영상과 함께 배치되는 시조 내용	장면(Scene)에서 묘사되는 주요 인물과 행위	샷(shot)	배경	비고
산은 냇 山이로되	거문고를 들고 한 정자에 오르는 김정환과 이를 뒤따르는 황진이	롱 샷	낮, 대나무 숲 정자	황진이의 낭송 + 쓸쓸한 단조의 배경 음악과 함께 재현
물은 냇물 아니로다	김정환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황진이	황진이 클로즈업 샷	낮, 대나무 숲 정자	
晝夜에 흐르거든 냇 물이 이실소냐	황진이를 바라보며 미소로 화답하는 김정환	김정환 클로즈업 샷	낮, 대나무 숲 정자	
人傑도 물과 굶도다 가고 아니 오는조다	정자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황진이와 감상하는 김정환	롱 샷	낮, 대나무 숲 정자	

〈표 3〉 시조 「산은 냇 山이로되~」<sup>16)</sup>의 영상 재현 양상 분석

〈표 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환과 황진이가 각자의 말을 타고 가을 단풍이 흐드러진 풍경을 뒤로 하며 숲길을 거닐다가 한 정자에 이르러 거문고를 들고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황진이의 낭송으로 시조 「산은 냇 山이로되~」가 재현되기 시작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황진이의 낭송이 있기 전, 김정환이 먼저 시조 「오백년 도읍지를~」을 낭송하는 장면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여타의 황진이 시조의 경우, 드라마에서 황진이의 독백이나 황진이가 홀로 낭송하는 과정을 통해 재현되나 「산은 냇 山이로되~」의 경우, 김정환의 시조 낭송 후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환이 먼저 낭송한 시조 「오백년 도읍지를~」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기

16) 심재완, 앞의 책, 518쪽(1441번).

를 거절한 고려 유신 길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장의 ‘산천은 의구  
 흥되 인결은 간 디 없다’, 그리고 종장의 ‘꿈’이라는 표현에서 역사와 인생에 대  
 한 무상감, 허무함이 집약되어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한편 TV 드라마  
 〈황진이〉에 등장하는 ‘김정환’은 가공의 인물로, 임금의 총애와 함께 주위의  
 견제를 받는 젊은 예조판서라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야반도주까지 하며  
 황진이와의 사랑을 이루고 싶어했으나 결국 붙잡혀 거열형에 처해질 뻔하다가  
 형 집행 도중 풀려난 인물로, 예술과 문화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고 백성의 삶  
 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함께 하고자 하는 진솔하면서도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김정환의 캐릭터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김정  
 환이 길재의 시조로 알려진 「오백년 도읍지를~」을 황진이에게 낭송한 것은,  
 파벌과 견제가 심했던 정치 세태에 대한 우려와 개탄이자, 동시에 황진이와의  
 사랑을 끝내 이룰 수 없는, 신분제 질서에 순응해야만 하는 본인의 처지에 대  
 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환의 시조에 화답하여 황진이가 시조 「山은 넷 山이로디~」를 읊는데,  
 이는 정자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며 거문고를 연주하는 황진이와 이를 감  
 상하며 교감하는 김정환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는 장면과 함께 이어진다. 쓸쓸  
 한 단조의 배경 음악과 함께 대숲을 뒤로 한 가을 정취가 화면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롱 샷과 두 인물의 클로즈업 샷을 교차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조의  
 초,중,종장의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 시조의 종장 “人傑도 물과 긋도다 가고 아니 오는쪼다”는, 김정환이 낭송  
 한 길재의 시조 ‘인결은 간 디 없다’ 구절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결에 대한 회의, 또 세월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담하게  
 표현한 황진이 캐릭터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황진이는 흘러간 허무와  
 상실의 공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적 신뢰의 회복과 지속에 대한 강  
 렬한 염원을 내재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17)</sup> 이처럼 맥락이 서로 연

결되는 대화의 양상으로 시조를 재현하는 장면을 통해, 황진이와 김정한의 공감과 소통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시조 「山은 냇 山이로되~」는 情人과 교감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황진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인식 표출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도록 보조하는 스토리텔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조 「山은 냇 山이로되~」는 황진이가 서경덕의 인간적인 품성과 자질에 감화되어 서경덕이 죽은 뒤에 서경덕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山水에 대한 태도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그런데 드라마 〈황진이〉에서는 서경덕에 대한 묘사가 전체 서사의 후반부에 소략 제시되고, 서경덕의 역할 역시 매우 축소되어 드러난다. 서경덕과 황진이의 사랑 서사나, 서경덕과 관련된 황진이의 여러 일화는 드라마 〈황진이〉에서는 소거되었다. 오히려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던 허구의 인물인 서생 은호나 예조 판서 김정한이 〈황진이〉 서사 초반과 중후반의 주요 사건이자 황진이가 겪는 고난과 성장의 중심에 함께 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드라마 〈황진이〉가 실제 역사 기록이나 기존 선행 연구의 해석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역사나 기존의 해석과는 무관하게, 드라마의 서사 구성과 전개에 적합하게 허구의 인물과 관련된 서사에 시조 낭송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獨舞와 시조의 결합을 통해 황진이의 예술 세계와 藝人으로서의 황진이 삶의 절정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 「冬至人들 지나긴 밤을~」

17) 이화형, 「사대부와 기생의 문학세계 비교」, 『우리문학연구』 39집, 우리문화회, 2013, 192쪽.

18)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220쪽.

전술했듯이 드라마 속 황진은 사회적 제약에 맞서 김정한과 사랑을 실현하고자 야반도주를 시도하나 결국 김정한은 붙들려 심한 고초를 겪는다. 김정한을 구하기 위해 황진이 궁중 연회에서 임금의 위해 춤을 진연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진연의 장면에서 황진이 시조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이 재현된다. 하얀 소복을 입고 종이를 펼쳤다가 접기를 반복하면서, 슬픔을 최대한 절제했으나 고통과 한이 느껴지는 獨舞를 천천히 진행하는 황진이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황진이의 獨舞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행수 '매향'과 임금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교차 제시된다. 곧이어 시조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이 황진이의 목소리로, 느린 속도와 비장한 음색으로 낭송된다.

영상과 함께 배치되는 시조 내용	장면(Scene)에서 묘사되는 주요 인물과 행위	샷(shot)	배경	비고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시조가 적힌 종이를 접었다가 펼치며 獨舞를 추는 진이	미디엄 샷	낮, 연회가 진행되는 궁궐	황진이의 낭송 + 슬픈 배경 음악과 함께 재현 + 한지에 시조를 적어 춤에서 활용
春風 니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빙글빙글 돌며 毒霧를 추는 진이와 그것을 바라보는 임금의 모습	임금 클로즈업 샷 + 황진이 미디엄 샷	낮, 연회가 진행되는 궁궐	
어른 님 오신날 밤이여든	심한 고초를 겪다가 거열형을 하기 직전 거적 위에서 밧줄로 발목을 묶이며 부들부들 떠는 김정한	김정한 미디엄 샷 + 김정한 클로즈업 샷	낮, 형장	

구뵤구뵤 퍼리라	시조가 적힌 한지가 하늘 위로 펼쳐졌다가 던져지며 손을 하늘로 들고 잠시 춤을 멈추는 진이 + 입을 벌리고 감탄하여 진이를 바라보는 입금	황진이 미디엄 숫+입금 클로즈업 숫+황진 이 클로즈업 숫	낮, 대나무 숲 정자	
어론 님 오신날 밤이여든	슬픈 얼굴로 자리에 앉아 獨舞를 이어가는 진이 + 진이를 보며 눈물 흘리는 매향, 슬픈 표정의 입금	황진이 클로즈업 숫+ 황진이 미디엄 숫 매향 클로즈업 숫+입금 클로즈업 숫	낮, 연회가 진행되는 궁궐	
구뵤구뵤 퍼리라	獨舞를 마무리하는 진이	황진이 클로즈업 숫	낮, 연회가 진행되는 궁궐	

〈표 4〉 시조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sup>19)</sup>의 영상 재현 양상 분석

사랑을 포기하고, 情人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슬픔을 춤으로 승화하는 황진이  
의 내면이, 시조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과 결합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시조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이 더욱 무겁고 깊고 애절하면서 비통  
하게 묘사된다는 점이 이 대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진이의 느리  
고 비장한 춤이 이어지는 궁중 연회 장면과 함께, 고문을 당한 김정환이 거적  
위에 눕혀지고 밧줄이 발목에 걸리는 장면이 함께 교차로 제시된다. 고초를 겪

19) 심재완, 앞의 책, 322쪽(894번).

어 산발을 하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김정환의 모습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임이 암시된다. 이 장면과 함께 황진이의 독무를 경탄하며 바라보는 임금의 시선과 초조한 심정으로 황진이의 독무를 지켜보다 결국 눈물을 흘리는 매향의 시선이, 독무를 추는 황진이의 손끝에서 맞닿게 된다. 독무를 추는 황진이의 손끝에는 시조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이 한지에 기록되어 들려 있다.

황진이가 시조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을 먹으로 질게 흘려 써 내려간 한지를 활용하여 獨舞를 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주로 황진이의 목소리를 통해 낭송으로 시조가 재현되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황진이가 시조를 실제 붓으로 질게 흘려 쓴 종이를 굵이굽이 접었다가 펼치는 춤과 함께 이미지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獨舞와 시조의 결합이 불러일으키는 영상 미학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조의 종장 ‘어론 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가 반복 낭송되어 구현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렇듯 “종장에서는 이제 초장에서 잘라내 종장에 간직해 놓은 그리움의 절편을 ‘굽이굽이’ 영원히 펼쳐내며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황진이의 그리움은 영원한 것이며 이 또한 황진이의 사랑이 그리움의 절편에 의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수식해 주는 것”<sup>20)</sup>처럼 보이다가 결국 “黃眞伊는 이별의 시간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自然의 法則(時·空間)에 積極的으로 挑戰하여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意志를 표명”<sup>21)</sup>한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분석처럼, 드라마 <황진이>에서도 종장의 반복 재현을 통해, 세계의 억압에 의한 이별, 정인의 죽음을 목전에 앞둔 긴박한 상황을 겪으며 비통과 회한에 찬 황진이의 심정이 독무, 그리고 시조의 재현을

20) 박인과, 「그리움의 절편을 빚어내는 황진이의 영원한 사랑」,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5-2,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210쪽.

21) 金成紋, 「黃眞伊 時調의 離別 形象化와 對應樣相」, 『時調學論叢』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327쪽.

통해, 정한에 대한 그리움과 결합하여 '구뵤구뵤' 펼쳐지다가 마침내 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의지로 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임금의 마음마저 움직이고 보는 좌중을 온전히 압도하는 황진이의 獨舞, 그 독무의 의미를 함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필체로 보여주는 글, 그리고 그 글이 적힌 한지를 활용하여 서리서리 접었다가 굵이굵이 펼치는 움직임의 반복과 황진이 시조「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의 조화로 전개되는 이 장면은 결국 황진이의 예술 세계를 입체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결국 이 진연을 통해 예인으로서의 삶의 절정을 펼쳐 보인 황진이는 연회가 끝난 후 한 여인으로서 누리고자 한 사랑도 깨끗이 묻고, 기방의 행수로서 누리고자 한 권세나 승부욕도 저버린 채 진정한 藝人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황진이의 변화는 극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기능한다.

### Ⅲ. 결론

TV 드라마 〈황진이〉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 '황진이'의 다양한 면모 중 藝人적 면모에 초점을 두고, 어린 황진이가 사랑과 이별을 겪으며 성장하고 여러 고난과 시련을 예술로 승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藝人의 가치관과 예술에 대한 인식을 다채롭게 재현한 영상 콘텐츠이다. 본고에서는 TV 드라마 〈황진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라마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황진이의 시조 4수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TV 드라마 〈황진이〉에 재현된 시조의 양상과 스토리텔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생 은호와 이별 후 情恨을 표출하는 장면과 시조「어저 내일이야~」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장면 재현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기녀로 살아야 할 운명을 선택하고 고난을 수용하는 황진이 캐릭터의

강화와 함께 애상적 정서의 표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를 재현하는 장면에서는 시조가 벽계수 유혹의 수단이자 극 중 변화된 황진이의 팜므파탈(femme fatal)적인 캐릭터 면모 강화의 스토리텔링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조 「산은 옛산이로되~」가 재현된 장면을 통해 情人 김정한과 교감하는 수단 및 세계에 대한 인식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시조 「冬至사들 지나긴 밤을~」에서 황진이의 獨舞와 시조가 결합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시하면서 황진이의 예술 세계와 藝人으로서의 황진이 삶의 절정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조를 스토리텔링에서 활용한 TV 드라마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조와 영상콘텐츠가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미학적 효과가 생성되는지, 또 시청자를 비롯한 대중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시조가 서정 장르여서, 서사를 주로 다루는 영화나 TV 드라마와 같은 영상콘텐츠에서는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보다 입체적이면서도 다채롭게 묘사하고, 그 인물의 정서나 가치관을 극적으로 부각하는 극적 장치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영상콘텐츠의 시조 재현 양상을 영상과 함께 분석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영상 장면의 배경 설정 및 샷의 배치에서 발견되는 인물이나 배경 묘사, 서사 전개 속도의 특징, 음악을 비롯한 음향 효과, 그리고 이와 함께 재현되는 시조의 구절 구조화 등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금 더 다양하고 정치한 연구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토대로 영상콘텐츠의 시조 재현 양상 분석을 심화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출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과제로 삼는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KBS2 TV 드라마 <황진이>, 2006.10.11.~2006.12.28.방영, 24부작.

### 2. 참고자료

- 권성훈, 「문화콘텐츠로서의 현대시조와 아카이브 구축」, 『동아인문학』 48, 동아인문학회, 2016.
- 金成紋, 「黃眞伊 時調의 離別 形象化와 對應樣相」, 『時調學論叢』 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 \_\_\_\_\_, 「시조문학의 가치와 위상, 그리고 세계화 방안 모색」, 『時調學論叢』 41집, 한국시조학회, 2014.
- 김세립, 김상진, 「시조 스토리텔링의 유형 및 활용 방안」, 『時調學論叢』 51집, 한국시조학회, 2019.
- 김은미, 「황진이 시조에서 독백의 문제」, 『국학연구』 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 김종호, 「문명을 읽어내는 관점의 다양성과 가치관의 변화 - 황진이 소재 서사를 중심으로」, 『문명연지』 14-2, 한국문명학회, 2013.
- \_\_\_\_\_, 「황진이 소재 서사의 궤적과 이태준의 『황진이』」, 『우리문학연구』 42집, 우리문학회, 2014.
- 김지은,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캐릭터 형상」, 『時調學論叢』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 金彰頭, 「妓女時調作品小考」, 『국문학』 8집, 고대국어국문학회, 1964.
- 나정순,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본 시조」, 『時調學論叢』 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류수열, 「시조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능성」, 『時調學論叢』 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박영우, 「시조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 박인과, 「그리움의 절편을 빚어내는 황진이의 영원한 사랑」,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5-2,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기>의 가능성」, 『한국시가문화연구』 34, 한국고시  
가문화학회, 2014.
- 손정희, 「소설을 각색한 TV드라마의 대중성강화 기법 연구 - 『허준』, 『황진이』, 『커피프  
린스』호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4,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7.
- 신익철,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야담 문학의 활용과 TV 드라마, 영화의 창조  
적 상상력 - 『어우야담』과 <왕의 여자>, <황진이>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7, 한국한문학회, 2006.
- 심재완, 『교본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 유유례, 「황진이의 연정시 연구」, 『온지논총』 제41집, 온지학회, 2014.
- 이경영, 「전통성과 현대성의 경계」, 『時調學論叢』 35집, 한국시조학회, 2011.
- 이다정, 김윤희,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안동 陶山書院이 지닌 가능성과 문화 콘텐츠 활성  
화 방안 - 시조 <陶山十二曲>의 활용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9, 온지학회,  
2019.
- 이명현, 「영상서사에 재현된 황진이 이야기의 두 가지 방식 - 드라마 <황진이>와 영화  
<황진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11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0.
- 이수근, 「국문시가의 효율적 인문 교양 교육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서강인문논  
총』 4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_\_\_\_\_, 「시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수용의 두 사례」, 『時調學論叢』 51  
집, 한국시조학회, 2019.
- 이수미, 「여성중심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젠더 담론: <대장금>, <황진이>, <선덕  
여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찬욱, 「時調文學 텍스트의 문화콘텐츠화 研究」, 『우리문학연구』 21집, 우리문학회,  
2007.
- \_\_\_\_\_, 「21世紀 時調文學의 演行樣式」, 『時調學論叢』 26집, 한국시조학회, 2007.
- 이화형, 「사대부와 기생의 문학세계 비교」, 『우리문학연구』 39집, 우리문학회, 2013.
- \_\_\_\_\_, 「황진이의 예능과 인격의 융합」,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 이희라,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창작 교육방안: 드라마 <황진이>를 중심으로」, 이주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 장정수, 「계몽기·근대시조 DB의 개선 및 콘텐츠화 방안 연구」, 『時調學論叢』 44집, 한국시조학회, 2016.
- 최경성, 「서사양식의 장르전이에 따른 스토리텔링 변화 양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한창훈, 「시조문화 정보시스템 개발의 가능성과 전망」, 『時調學論叢』 19집, 한국시조학회, 2003.
- 허만욱, 『시각과 상상의 즐거움, 영화의 이해와 탐색』, 보고서, 2013.

<Abstract>

## A Study of the Meaning and Storytelling Techniques of Sijo as Reproduced in the TV Drama Hwang Jin-i

Lee, Chae-young(Dongguk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the aspects of Sijo are reproduced in a TV historical drama that is based on a real person, Hwang Jin-i, in order to examine the meaning and storytelling technique of the Sijo reproduction.

We analyzed each character's description and expression of specific emotions, exchanges between characters, and every character's perception of the world.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orytelling method of the video content on Sijo and the method of diversifying the technique of reproducing Sijo are presented through four types.

A case analysis of TV drama using Sijo in storytelling, wherein Sijo and video content are combined, reveals the possibility of fully utilizing Sijo in character descriptions and character enhancement, and as a device to dramatically express the interaction between characters.

Keywords : Sijo, video content, storytelling, TV drama Hwang Jin-I,  
Reproduction aspect of Sijo.

이 논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시조 분석

## — 코로나-19 제재 창작 시조를 중심으로

김성문 · 박근형\*

### <국문초록>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이제 낯설지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전에도 세상은 늘 변해왔으며, 변화하는 세상이 고전문학 연구자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던져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국가를, 세대를,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문학 연구도 마찬가지이고 고전문학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뿌리째 바뀌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전문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연구가 지속될 것이고 또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고전이 一朝一夕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말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고전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본고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분석해 보는 방식으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보고자 한 시도이다.

연구를 위해 먼저 대학생들에게 ‘코로나-19’를 제재로 하여 시조를 창작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05편의 분석 대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105편이 분석 대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연구자가 작품 모두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많은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하는 본고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작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KoNLPy의 Mecab을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는 gensim 라이브러리의 Word2Vec 기능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학부생 보조연구원.

활용하여 워드 임베딩을 진행, ‘코로나’와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어 벡터 간에 덧셈과 뺄셈의 의미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나 - 코로나’ 형태의 의미 연산을 통해 코로나 종식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Word2Vec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조 창작 과정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 100개를 추출하여 이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진행한 작품 분석은 필자가 직접 몇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 작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고가 새로운 방법론 탐색으로서의 의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미화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시조,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문학, 디지털 분석, 코로나-19, Word2Vec, 워드 임베딩

## I.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등의 말들이 더 이상 생경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의 가치가 변하거나, 그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학자들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게 될 인공지능의 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생활에서의 적용은 아직遙遠할 것만 같았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오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문 기사들이 사람이 아닌 ‘AI기자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소재로 하는

개그 코너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문학 연구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첨단 기술의 발달이 인문학 연구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요즘의 인공지능은 많은 문학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문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본고는 기존에 모색되었던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전문학 연구들의 성과를 인정하며, 그 토대 위에서 몇 가지의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창작 시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특히 이 작업은 필자가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sup>2)</sup>의

1) 인공지능을 고전문학 연구에 활용한 선행연구 중에서 본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우규·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의 문체론적 고찰 - 컴퓨터를 활용한 계층분석을 바탕으로」, 『인문과 학연구』 5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권기성·김동건, 「아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모색」,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연구학회, 2017; 권기성,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전망 - 필기, 아담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권혁래, 「디지털 인문학과 고전문학의 만남」, 『열상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김바로·강우규, 「계량적 문체 분석을 통한 <소현성록> 연작의 변이양상 고찰 - 이대15 권본과 규장각21 권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0, 국제어문학회, 2019; 김성문, 「인공지능 시대와 고전문학」, 『문화와 융합』 40(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김성문·김바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조문학 연구」,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김성문·김바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조 연구 방법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34,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김성문·김바로, 「딥러닝을 활용한 시조의 유형 고찰」, 『문화와 융합』 43(8),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김성문·김바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조문학 연구 - 인공지능(AI) 제재 창작 시조를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박경우,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시조 연구 방법론 탐색 -운율 패턴 추출 방안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4, 열상고전연구회, 2021; 이명현·유형동, 「인공지능 시대에 고전문학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고전서사 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최운호·김동건,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한 <토끼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58, 우리문화회, 2018; 장정수, 「계몽기·근대시조 DB의 개선 및 콘텐츠화 방안 연구」, 『시조학논총』 44, 한국시조학회, 2016; 최운호·김동건,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 디지털콘텐츠의 유사도에 따른 이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2(7),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2) 김성문·김바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조문학 연구」, 『문화와 융합』 제41권 5호, 한국문화융

연장선에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시조 분석 연구 방법론의 가능성을 재확인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시조 창작의 제재로 삼은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時節歌調’로서 시조가 갖는 현실 반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sup>3)</sup>

본고의 연구 대상은 2021년도 1학기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공수업 시간에 105명의 학생들이 창작한 시조 105편이다. 물론 105편은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해야 할 데이터로는 소략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분석은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지며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5편 정도면 개인 연구자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품 하나하나를 확인하여 직접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 작품들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개인 연구자의 힘으로는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고전시가 작품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해 본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sup>4)</sup> 따라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상의 데이터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

---

합학회, 2019: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AI)을 제재로 하여 창작한 90여 수의 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딥러닝 기법의 하나인 'FastText'를 활용한 의미 연산, 'K-mean 기법'을 활용한 클러스터 분석 등을 시도한 바 있다. 아울러 본고의 전반적인 방법론은 김바로 교수와 함께 한 이 작업에 기반을 둔 것으로 김바로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3)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창작 시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현대시조를 분석한 김태경의 논의를 통해서 코로나와 시조를 한 데 놓고 바라볼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경, 「코로나19 관련 현대시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70, 우리문화회, 2021)
- 4) 고전문학 작품의 분석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분석 기법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여전히 인문학 연구의 주체는 개인 연구자이며,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개인 연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작품들을 단시간 내에 분석해 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목적이 아닌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고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소한의 요건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코로나-19 팬데믹과 시조 창작

### 1. 코로나와 時節歌調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시조를 함께 논할 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대 이후(1930년대)에서야 등장한 바이러스이고<sup>5)</sup>, 시조는 고려 때 형성되어 조선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고전문학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발생하여 세계인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19는 우리 곁에 온 것이 채 3년이 되지 않았으니, 시조와의 접점을 찾는 것은 더욱 난해해 보인다. 그러나 시조의 본령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시조의 틀에 코로나를 엮는

---

5) 코로나바이러스는 외막이 둘러싸인 RNA 계놈을 가진 바이러스로 사람, 포유동물, 조류사이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1930년대 초기 전염성 기관지염이 걸린 닭, 전염성 위장염에 걸린 돼지, 중증도의 간염 또는 신경 증상을 가진 쥐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바 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에 곤봉 모형의 돌출부가 있는 특징적인 형태가 관찰되었고 이는 왕관을 연상시켜 라틴어 왕관을 뜻하는 'corona'에서 파생되어 coronavirus로 명명되었다. 지난 40년동안 주로 가축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호흡기, 소화기 관련 감염병 사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체로 보고되었다. 대표적으로 조류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Infectious bronchitis virus, IBV),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virus, FIPV), 소 코로나바이러스(Bovine coronavirus, BCV) 등이 알려져 있다. 사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그리고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신규 전염성 폐렴과 같이 사람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목 받고 있다. (Oxford, J., Kellam, P., and Collier, L. Coronaviruses, Human Virology,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USA, 2016, pp. 133-140./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94275&cid=61232&categoryId=61232>)

작업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시조는 ‘時節歌調’<sup>6)</sup>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그 시대에 유행하던 노래라는 뜻이니, 당연히 시조의 내용은 당대의 이슈와 관련을 맺기 마련이다. 황희나 맹사성의 시조에서 사계절의 질서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사육신의 시조에서는 癸酉靖亂의 혼란한 시대상과 단종을 향한 그들의 절개를 느낄 수 있으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는 강호에서 한가로이 살아가는 假漁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기녀들의 시조에는 특수한 신분으로 말미암은 특유의 표현과 情恨이 담겨 있고, 정철을 비롯한 목민관들의 시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治者로서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나라를 위한 무인의 충절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무인들의 시조가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대나 작가에 따라서 당시의 이슈들을 세 줄의 형식에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시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코로나-19의 모습을 그들이 창작한 시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으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 2. 코로나-19 제재 시조의 창작

고전시가는 여러 세부 갈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가요에서부터 시작하여 향가, 고려가요를 거쳐서 악장, 시조, 가사, 잡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문학을 만들고 향유해 왔다. 각각의 문학 양식들은 저마다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존속해야 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에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그 양식이 형성되던 당시에 마련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오늘날까

6) 申光洙, 『石北集』, 「關西樂府」其15: 初唱聞皆說太眞 至今如恨馬嵬塵 一般時調排長短 來自長安李世春.

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시조이다. 수백의 星霜을 거치는 동안에도 소멸되지 않고 창조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초·중·종 3장이 갖는 형식적 고정성<sup>7)</sup>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적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것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시조는 변화하는 시절의 이야기들을 수렴하면서도 고유한 형식을 전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조가 비록 겉으로는 간단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조의 주된 작가층이 식견을 두루 갖춘 양반사대부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중인가객의 등장으로 그 작가층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어엿한 시조 전문가들로서 문학적, 음악적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시조 창작에 대한 소양을 갖춘 부류들이었다. 또한 조선 중기에 등장해서 시조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기녀들 또한 양반들의 연회나 사신의 접대 현장 등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신분적 특수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육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시조의 미학을 익혔으며, 그 결과로 절창이라 불리는 수작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시조를 창작하는 것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시조의 미학을 제대로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초장에서 일으킨 시상을 중장으로 전개한 후 종장에서 전환하여 종결하는 시조의 특징을 세 줄에 담아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시조를 창작하기까지 2주에 걸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우선 첫 주에는 시조 발생과 문학사적 전개 양상, 대표적인 시인과 작품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둘째 주에는 시조 창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7) 물론 상황에 따라 중형시조와 장형시조로의 형식적 변화를 피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또한 3장의 형식 미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尹善道の 〈漁父四時詞〉 春 4에 해당하는 아래의 시조를 예로 삼아 설명하였다.

우는 거시 벉구기가 프른 거시 벉들솅가  
 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위의 시는 초장에서 ‘청각적 이미지+사물(동물)’과 ‘시각적 이미지+사물(식물)’을 나란히 배치하여 안정적인 대우를 취하면서 멀리 보이는 자연을 노래하며 시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자연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안개 속에 가려 들락날락 하는 인간 세상을 노래하며 자연과 인간을 나란하게 대비시킨다. 그리고 중장 첫 음보의 ‘말가흔’을 통해서 투명하고 맑은 새로운 심상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어서 온갖 고기가 함께 뛰노는다고 하여 조화로운 경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시상을 종결하고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3장 6구의 형식과 의미 단락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음보별, 구별, 장별 대우 또한 질서 정연하게 구사되어 있다. 그리고 나아가 초장의 자연, 중장의 인간, 중장의 조화가 밀도 있게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시조 창작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이 작품에서는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조의 형식 미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장 제 2음보의 과음보로서의 특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학생들에게 다른 작품<sup>8)</sup>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 결과 105명의 학생들

8)

靑山는 엇데햐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엇데햐야 晝夜에 굿다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 李滉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벉혀 내며 春 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뵤구뵤 퍼리라 - 黃眞伊
---	---

이 시조 창작에 참여하여 전체 106편의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이 중 1편은 정형시로서의 시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2수로 구성된 연시조 1편을 포함한 총 105편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 중 1학년(21학번) 학생이 지은 작품을 소개한다.

<질병(疾病)의 징벌(懲罰)><sup>9)</sup>

김현○

까치는 지저귀고 풀꽃은 웃는데

어찌하여 인간만 面具에 갇혔는가

아마도 인간사 口禍之門 하늘께서 아셨네

주지하듯이 까치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새로, 우리 민족에겐 오랫동안 吉鳥로 여겨져 왔다. 그런 까치가 지저귀는 상황은 손님이 찾아오는 생기 넘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특별할 것 없는 흔한 풀꽃이 웃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주변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초장이 자연물의 일상을 노래했다면, 중장은 인간의 비일상을 얘기한다. ‘마스크’를 ‘面具’라 표현한 것은 중장의 ‘口禍之門’과 궤를 맞추기 위한 한자 표기일 수도 있고, 시조라는 장르에 외래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어찌 되었건 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낮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럽다’는 의미를 지니는 ‘면구하다’를 연상케 하면서 뒤에 오는 ‘갇혔는가’와도 자연스레 연결되기 때문이다. 듣고 보니 그렇다. 개도 소도, 까치도 꽃도, 나무도 쓰지 않는 마스크를 인간만이 幽閉된 죄인처럼 늘 쓰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아마 중장에서 말하고 있는 ‘口禍之門’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

9) 고시조에는 제목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현대시조의 경우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창작 의도를 보다 잘 확인하기 위해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인가 보다. 종장 제1음보의 ‘아마도’와 제4음보의 ‘아셨네’의 유기적인 호응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세 줄에 잘 녹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바라보는 한 대학생의 시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불편들을 그저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초유의 사태 앞에서 겸허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학 연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다양한 문학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단시간에 분석하여 일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물론 연구에 있어 효율성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기 마련이다. 본고는 여기에서 출발하였다. ‘어떻게 하면 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작품을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러한 시도가 쌓이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개인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 연구자의 관점이나 노력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새로운 층위에서 문학을 연구할 수 있을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Ⅲ.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시조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코로나-19를 제재로 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창작한 105수의 시조 작품이다. 이를 디지털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전환하여 보면, 총 글자 수는 공백을 제외하고 4,758자이고 형태소는 1,542, 낱말은 489개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아래 <표 1>과 같이 작품번호, 성별, 학번, 제목,

본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시조 분석 데이터 양식

번호	성별	학번	제목	본문
1	여	2021 ****	마스크 속 진심	저 멀리 다가오는 반가운 임의 얼굴 붉은 얼굴 하얀 얼굴 어느 것이 진심인가 아마도 같은 마음이라니 붉으리오 하련다
2	여	2021 ****	코시국의 새내기	스무살 되었는데 열이면 집에가네 대학생 되었는데 집에서 강의듣네 언제쯤 마스크 벗고 대학 생활 누릴까
3	남	2019 ****	신입생	마스크로 입 가리고 집 안에서 거리두고 사람들이 못 나오니 거리가 행하구나 슬프다 대학에 왔건만 화면만 쳐다보네
4	남	2015 ****	회상	사이를 갈라놓은 몸살 병은 여전한데 바뀌는 계절들에 흐릿해진 그대 얼굴 남은 건 젖은 이름 세 글자 저려오는 코 끝
5	여	2021 ****	사회적 거리두기	갈수록 멀어지고 올수록 멀리하고 대면은 줄어들고 비대면은 늘어나고 내일은 나아질는지 걱정 끝이 없어라

디지털 분석에 사용하는 환경은 AMD Ryzen 7 4700U with Radeon Graphics 2.00 GHZ, RAM 8.00GB이며, 디지털 분석은 Python 3.7.12를 바탕으로 하는 구글의 Colaboratory(Colab)<sup>10</sup>에서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10) Colaboratory(Colab)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치가 필요 없고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무료 주피터(Jupyter) 노트북 환경이다.

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KoNLPy의 Mecab을 사용하였고, 단어 임베딩은 gensim 라이브러리의 Word2Vec 기능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 1. 형태소 분석을 통한 텍스트 사용 단어의 출현 빈도와 워드클라우드

시를 창작할 때 사용되는 단어, 곧 시어는 시를 짓는 사람의 핵심적인 생각이 녹아 있는 결정체이다. 특히 시조와 같이 40~50자 정도로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단형의 정형시를 창작할 때에는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주제로 하여 창작한 시조에 어떤 단어들을 주로 구사했는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학생들이 코로나-19,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바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KoNLPy의 Mecab을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작품 전반에 걸쳐서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상위 10개 명사를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2> 출현 빈도수 상위 명사 10개

명사	형태소	개수
마음	일반명사/NNG	21
사람	일반명사/NNG	20
것	의존명사/NNB	15
코로나	고유명사/NNP	14
우리	대명사/NP	14
나	대명사/NP	14
마스크	일반명사/NNG	13

시간	일반명사/NNG	11
거리	일반명사/NNG	11
얼굴	일반명사/NNG	10

애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는 막연히 ‘코로나’, ‘마스크’ 등의 단어가 최상위 빈도로 출현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명확한 제제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보다 더 많이 사용된 명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인 ‘마음’의 경우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sup>11)</sup>’로 불리는 아프고 우울한 마음을 시조로 형상화한 경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위에 ‘사람’, 공동 4위에 ‘우리’와 ‘나’가 각각 자리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우리 공동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시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마스크’, ‘얼굴’ 등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으로서 코로나-19의 전과 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리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제시한 상위 10위까지를 포함하여 분석 대상 시조에서 사용된 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은 모습이 된다.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중요도나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형태로 배치한 것이다. 이때 시각적 중요도, 빈도수 등에 따라 강조를 위해 글자의 색상, 굵기 등을 변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성한 워드클라우드는 명사의 출현 빈도수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출현 빈도수가 높을수록 글자가 크고 굵다. 다

11)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딩 대신 임베딩을 사용해 단어를 유의미한 수치를 가지는 벡터로 변환한다. 즉, 임베딩이란 단어나 문장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벡터로 바꾼 것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연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컴퓨터는 자연어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 별도의 연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자연어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임베딩이다.

Word2Vec은 딥러닝을 활용한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모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임베딩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통계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째는 문장에 어떤 단어가 쓰이는 지이고, 둘째는 단어가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 지이며, 마지막은 문장에 어떤 단어가 함께 출현하는지와 관련된 정보이다.<sup>13)</sup> 이 중에서 Word2Vec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베딩을 활용하면 단어에 할당된 벡터값을 활용하여 벡터 연산이 가능하다. Korean Word2Vec 사이트에서는 더하기와 빼기 같은 간단한 벡터 연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14)</sup>

“한국” - “서울” + “도쿄” = “일본”

“엄마” - “여자” + “어른” = “아빠”

본 논문에서는 gensim 라이브러리의 Word2Vec을 활용하여 임베딩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시조에서 사용한 단어들의 벡터값을 구한 다음,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통하여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코사인 유사도란,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두 벡터의 유사도를 의미한다.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1의

13) 위의 책 60쪽.

14) <https://word2vec.kr/search/>, (검색일자: 2021.12.19.)

값을 가지며,  $90^\circ$ 의 각을 이루면 0,  $180^\circ$ 로 반대의 방향을 가지면 -1의 값을 갖게 된다. 즉, 코사인 유사도는 -1이상 1이하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임베딩하여 수치화한 뒤,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문서의 유사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3〉 ‘코로나’의 코사인 유사도 상위 10개

순위	단어	코사인 유사도
1	우리	0.7962607145309448
2	나	0.7936590909957886
3	마음	0.7897018194198608
4	수	0.7876584529876709
5	시간	0.784411609172821
6	이	0.7818435430526733
7	집	0.7780667543411255
8	거리	0.7721794843673706
9	사람	0.7700784206390381
10	얼굴	0.7668095827102661

〈표 3〉의 단어는 ‘코로나’라는 단어와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해당 단어를 의미하고, 뒤의 숫자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코사인 유사도 값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베딩을 통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 결과, ‘코로나’와 유사한 벡터값을 가지는 상위 10개 단어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 ‘마음’, ‘수’, ‘시간’,

‘이’, ‘집’, ‘거리’, ‘사람’, ‘얼굴’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명사 ‘우리’와 ‘나’가 ‘코로나’와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핀 형태소 분석 결과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불편함과 위험함을 초래한 원인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결국 우리와 나의 몫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창작한 시조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한편 벡터는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연산(유추 평가)이 가능하다. 단어 벡터 간에 덧셈과 뺄셈을 통해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 문법적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아래 <표 4>는 ‘나’라는 단어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는 의미 연산을 한 결과, 도출된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벡터 연산 결과 상위 20개

벡터 연산	순위	단어	결과값
‘나’ - ‘코로나’	1	백신	0.11331716179847717
	2	젊음	0.09892301261425018
	3	온난	0.0915687307715416
	4	온기	0.08935146033763885
	5	미움	0.08144593983888626
	6	모습	0.07960911095142365
	7	너	0.07753295451402664
	8	리	0.0755782276391983
	9	밤	0.07513228803873062
	10	미래	0.0732350796461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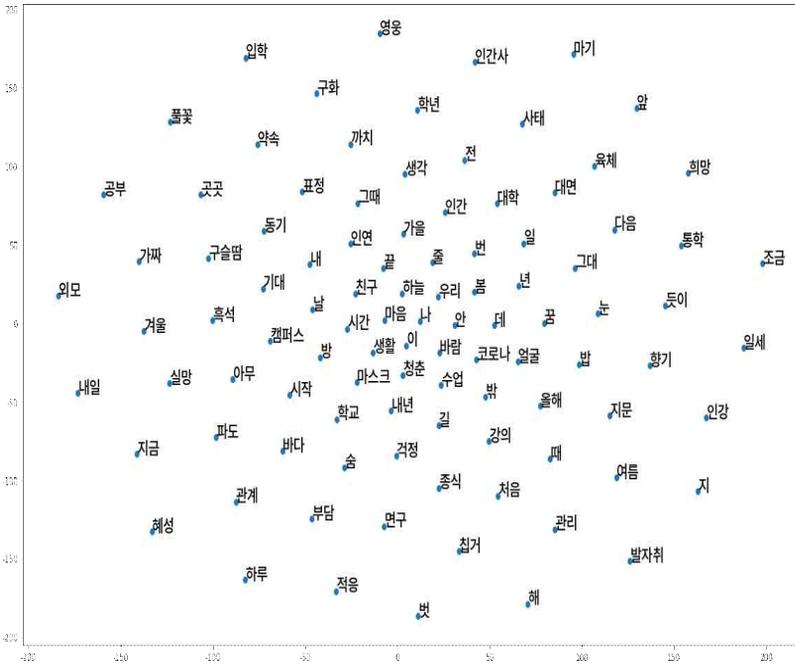
여기서 ‘나’에서 ‘코로나’를 빼는 연산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없는 나, 즉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나, 혹은 이를 극복한 이후의 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관련이 높은 값은 ‘백신’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이 거론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온난’, ‘온기’도 상위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어 따라서 서로 온기(인정)를 느끼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언급한 Word2Vec을 활용한 의미 연산이 보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작품)가 필요함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 분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Word2Vec 결과물의 시각화

앞서 설명하였듯이, 임베딩은 단어나 문장 각각을 벡터로 변환해 벡터 공간(Vector Space)로 끼워 넣는(embed) 것을 뜻하는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모델 중 하나가 Word2Vec이다. 따라서 Word2Vec의 연산 결과로 산출된 숫자값(좌표값)을 토대로 n차원 공간에 시각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공간에 출현 빈도수 상위 100개 단어를 시각화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2> 전체 단어 상위 100개 Word2Vec 결과물



임베딩은 각각 단어에 하나의 벡터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100개의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론적으로 100개의 차원이 생성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보통 2·3차원의 공간을 친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100차원의 공간을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방법을 사용해 2차원에 축소하여 나타내었다.

2차원에 시각화된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어는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또한 서로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Word2Vec이 “단어의 의미는 곧 그 언어에서의 활용이다 (the mean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라고 말한 언어학

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15)</sup>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이론(Use Theory)에 의하면 언어는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의미를 갖게 된다.<sup>16)</sup> 그렇기에 어떤 한쌍의 단어가 비슷한 문맥 환경에서 자주 등장한다면 그 의미 또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의미는 고정되지 않는다. 영화 〈부시맨〉에 나온 콜라병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콜라병을 버린 비행기 조종사에게 콜라병은 그저 콜라를 담기 위한 用器, 즉 음료수병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그러나 콜라병을 처음 본 원주민(부시맨)들에게 있어 그것은 악기일 수도 있고, 망치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신의 물건이 될 수도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의 용법을 안다는 의미이다.

〈그림 2〉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림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보면, ‘흑석’과 ‘캠퍼스’라는 단어가 좌표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조 작품에서는 ‘흑석’이 ‘캠퍼스’를 일컫는 일종의 대명사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외모’와 ‘인강(인터넷 강의의 준말)’이라는 두 단어는 각각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 양 끝에 치우쳐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두 단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된 것과 관련이 있겠다. 이와 같은 시각화 작업은 문자만을 이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작업에 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실 문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에서 아래로, 혹은 좌에서 우로, 그 해독의 방향

15) 이기창, 앞의 책, 72쪽 참조.

16) 김성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인천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77쪽 참조.

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도표나 그림 등의 시각 자료에 비해 이해하는데 더 많은 주의와 수고로움이 따른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시각화 자료에 활용하는 문자에 색깔을 입혀서 공통되는 특징을 강조하는 등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시각 자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나오며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비교적 보수적이라 인식되었던 고전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통의 고전적인 연구 방법론은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단한 고민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시조 작품을 분석해 본 시도이자 試論이다.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우선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작품은 대학생들이 창작한 시조 105편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시조의 기본 이론과 창작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를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시조 창작의 제재로 ‘코로나-19’를 제시하였다. 時節歌調로서의 시조는 그 형식은 수백 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조의 제재로 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KoNLPy의 Mecab을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조 창작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도출하였는데, ‘마음’, ‘사람’ 등 상위 10개의 명사를 통해서 창작 시조

에 반영되어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다소나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형태의 시각 자료로 변환하여 제시함으로써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gensim 라이브러리의 Word2Vec 기능을 활용하여 워드 임베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조에 사용된 단어들의 벡터값을 구한 다음, '코로나'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값을 지닌 단어로 '우리', '나', '마음'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상처, 즉 우울과 슬픔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단어 벡터 간에 더하고 빼는 의미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활용하여 '나 - 코로나'의 연산을 실시하고 그 값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백신'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대학생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온난'과 '온기'가 각각 3, 4위에 자리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였다. 끝으로 Word2Vec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조 창작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단어를 2차원 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이 논문이 갖는 한계에 비하여 가능성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디지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충분치 않았으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한 연구자의 역량 탓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시조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부여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본고의 단점을 극복하고, 탐색의 수준을 넘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참고문헌>

- 강우규·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의 문체론적 고찰 -컴퓨터를 활용한 계층분석을 바탕으로-, 『인문과학연구』 5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권기성·김동진,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모색-,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연구학회, 2017.
- 권기성,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전망 -필기, 야담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 권혁래, 「디지털 인문학과 고전문학의 만남-, 『열상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 김바로·강우규, 「계량적 문체 분석을 통한 <소현성록> 연작의 변이양상 고찰 -이대15권 본과 규장각21권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0, 국제어문학회, 2019.
- 김성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인천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성문, 「인공지능 시대와 고전문학-, 『문화와 융합』 40(6),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 김성문·김바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조문학 연구-,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 김성문·김바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시조 연구 방법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34,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 김성문·김바로, 「딥러닝을 활용한 시조의 유형 고찰-, 『문화와 융합』 43(8),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김태경, 「코로나19 관련 현대시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70, 우리문학회, 2021.
- 박경우,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시조 연구 방법론 탐색 -운율 패턴 추출 방안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4, 열상고전연구회, 2021.
- 이기창, 『한국어 임베딩-, 에이콘, 2019.
- 이명현·유형동, 「인공지능 시대에 고전문학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고전 서사 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 장정수, 「계몽기·근대시조 DB의 개선 및 콘텐츠화 방안 연구-, 『시조학논총』 44, 한국시조학회, 2016.

최운호·김동건,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 디지털콘텐츠의 유사도에 따른 이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2(7),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최운호·김동건,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한 <토끼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58, 우리문학회, 2018.

<Abstract>

## Analysis of Sijo using digital techniques

Kim, Seong-Moon(Chung-Ang University)

Park, Keun-Hyeung(Chung-Ang University)

The world is changing everyday. The phras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longer unfamiliar. The same is true of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used in several fields of our society. In fact, the world has always been changing; however, it seems that the changing world has never given serious consideration to classical researchers. These days, the strong wind of change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ountries, generations, or regions. The same holds for literary research, and classical science is no exception.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verything has to change. In the case of classical science, traditional research still exists and needs to continue that way, as the classics were not created in a day.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 new methodology for classical studies. This work attempts to address this need by analyzing literary works using digital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ol.

For the study, first, college students were required to create a predecessor by focusing on COVID-19. Therefore, 105 analysis targets could be secured, although certainly, 105 works are insufficient for analysis. Considering that it takes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for individual researchers to analyze all works one at a tim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s a methodology to analyze many works in a short duration. The above works were analyzed using digital techniques. First, morpheme was analyzed using KoNLPy's Mecab. Next, word embedding was performed using the gensim word2vec function, to derive words with high cosine similarity to 'Coron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addition and subtraction between word vectors can be calculated, the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were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end of COVID-19 through the calculation of a meaning in the form of 'I-Corona'. Through word2vec, 100 words that students frequently us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ijo were extracted, visualized, and expressed in two-dimensional space.

The analysis conducted on the above works provided results similar to those conducted by myself on several of the works, although I admit that the target works are insufficient for generalization. Therefore, for this work to be recognized for its significance as a new methodology in research, a sufficient number of target works should be secured to analyze and develop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digital analysis results.

Keywords : Sijo, Artificial intelligence(AI),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Digital analysis, COVID-19, Word2Vec, embedding

이 논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나르시시즘으로 바라본 황진이와 그 문학 연구

김 지 은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황진이와 황진이의 문학을 나르시시즘의 관점으로 바라본 논의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생은 조선시대 八賤의 하나로 신분의 위계상 가장 열악한 위치에 속하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도취와 자신감이 지극히 충만한 인간형이고 그 속성들이 그대로 문학 속에 형상화되고 있다. 폐쇄적 사회에서 기생과 같은 천민집단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 자기애를 실현하는 것은 대단히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황진이는 자신의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기녀들의 일화나 기녀시조와 차별화되는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관·문학관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듯 툭툭 튀는 감성과 자기애를 견인하는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본 논의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함에 있어 코허트의 자기심리학은 매우 유용하다. 그는 나르시시즘을 정신적으로 병들고 미성숙하며 적절한 정신분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릇된’ 것으로 보지 않고 대상과의 관계 맺기를 포함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황진이의 나르시시즘은 건강한 자기애이며 이러한 성숙한 자기애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황진이,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127)

\* 중앙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황진이는 21세기에도 다양한 매체 속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어 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황진이〉의 포스터에 전면으로 내세운 ‘16세기를 살다간 21세기의 여인’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녀가 지닌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황진이는 비록 과거 중세 속의 인물이지만 그녀만이 지니는 인간적 매력에는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해도 전혀 낮설지 않은 현대적 감성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친숙함의 이유는 황진이가 그간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해 재생산된 까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지닌 세계관, 특히 스스로를 대하는 자기애(自己愛, self-love)적 태도와 욕망이 오늘날 젊은 대중들이 지향하는 코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자기애에 대한 인식들은 크리스터퍼 래쉬가 그의 저서 『나르시시즘의 문화』에서 지적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적 성향과 풍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 시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자기애적 특성들을 가진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애적인 사회가 지속해서 자기애적 성격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자기애적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서는 매우 자신만만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자신들의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매우 목표 중심적이고 성공적인 면들이 종종 부각되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현상 속에서 독특하게 자기애적 성향을 대변해주는 소위 “공주병, 왕자병” 신드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sup>1)</sup>

1) 홍이화, 「자기심리학 이야기1, 나르시시즘, 지독한 자기사랑」, 『기독교사상』 통권 제618호, 대한기

그러나 이러한 신드롬을 단순히 사회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적인 문제에서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자체의 고유한 본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가 있다. ‘자기애’적 속성은 인간이라면 본래 생래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천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타적이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근원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생은 조선시대 八賤의 하나로 신분의 위계상 가장 열악한 위치에 속하는 존재였다. 폐쇄적 사회에서 기생과 같은 천민집단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 자기애를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요원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이는 자신의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러한 속성이 문학작품에 고스란히 표출된다. 다른 기녀들의 일화나 기녀시조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관·문학관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듯 툭툭 튀는 감성과 자기애를 견인하는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본 논의는 시작되었다.

그간 이루어진 황진이와 그녀의 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체적’이거나 ‘당당한 여성’, ‘藝人’으로서의 평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동안 황진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칫 ‘주체적’ 혹은 ‘당당함’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무게에 과몰입되어 평가할 수 있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녀가 당당하지 않거나 비주체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연구의 다양성과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측면에서 황진이의 태도에 작용하는 내적속성의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의미이다.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격심리학적·정신분석학적 측면<sup>2)</sup>인 나르시시즘적 입장에서 살펴볼 가

---

독교서회, 2010. 272쪽에서 재인용.

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자기를 세계의 중심에 놓으려는 사고방식과 행동들은 단순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만 정의하기에 범상치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황진이 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학작품들에 대해서 섬세한 독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가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당차고 자신만만한 태도들을 견지할 수 있었는지 그녀와 관련한 일화와 작품 세계의 면면을 살펴보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다분히 편향적으로 독해한 일단에서 벗어나 미진하게나마 새로운 관점인 나르시시즘으로 작품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간 황진이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기에 다시 황진이를 재조명하는 본 논의가 다소 새삼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를 통틀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끈 여성 문학가는 몇 안 된다. 그만큼 황진이에 대한 연구는 문학사, 특히 여성문학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을 지닌 나르시시스트로서 인간 황진이를 재조명해봄으로서 그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새로운 이해과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

2)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문학치료 등과 연관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문학 치료적 효과-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2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고영화, 「이미 치료적 관점에서의 고전시가 읽기 - 영원성에 대한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1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장만식, 「황진이의 작품 속에 내재된 트라우마와 욕망 탐색」, 『열상고전연구』 NO.45, 열상고전연구회, 2015.

박인과, 「황진이 시조에 나타나는 브라운운동의 문학치료학」, 『문화기술의 융합』 제4권3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_\_\_\_\_, 「황진이의 긴장과 이완의 신경생리학:『靑山裡 碧溪水』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권3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 II.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황진이의 자기에

### 1. 코허트의 건강한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기에(自己愛, self-love)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단어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의 네케가 만든 용어이다.

나르키소스에 관한 옛 신화를 심리적 장애와 결부시켰던 최초의 인물은 19세기 후반의 성의학자인 엘리스였다. 그의 작업을 논평하던 중 네케(Wilhelm Nacke)가 만들어 냈던 새로운 용어인 나르시시즘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병적인 자기사랑’ 또는 ‘자기감탄’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수식어인 ‘병적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 사랑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적인 건강함을 보여준다.<sup>3)</sup>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그 용어는 자기 중심 또는 자기 몰두와 동의어이며 ‘나’라는 대명사를 남발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sup>4)</sup>

나르시시즘 혹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들은 자기에라는 용어로부터 느껴지듯 일상생활에서 자기중심적이며 대인관계에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래서인지 자기에와 관련하여 “자기(self)”란 말 역시 정상적인 자기사랑이거나 건강한 자존감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어쩐지 매우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포괄하는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의미하

3) 제레미훅즈, 『나르시시즘』, 이제이북스, 2002, 8쪽.

4) 제레미훅즈, 위의 책, 8~9쪽.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sup>5)</sup>

래쉬와 같은 필자들은 나르시시즘을 극단적인 개인주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심의 결여, 타인에 대한 무시, 정치적 활동의 희생 위에 선 사회적 관계에의 집착, 사회적 유대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일련의 태도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회학적으로 사용해 왔다<sup>6)</sup>고 설명한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은 리비도 나르시시즘, 파괴형 나르시시즘, 그리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프로이트<sup>7)</sup>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정상적인 발달단계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대상관계 즉 타인에게 ‘리비도를 투

5) 홍이화, 『하인츠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현대정신분석연구소, 2011, 26쪽.

6) 제레미홍즈, 앞의 책, 10쪽.

7)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을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분류하여 이를 나르시시즘의 발달노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아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것은 유아자신과 다른 대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엄마가 유아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눈을 맞추거나 때에 맞게 젖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축축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 유아의 모든 욕구의 충족은 유아자신이 한 것이거나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생애초기의 유아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마술같은 환상적 진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일차적 나르시시즘(primary narcissism)이라고 불렀고 이를 정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자아에게 집중되어있는(자아-리비도 : ego-libido) 최초의 상태로 설명했다. 이것은 바로 유아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차적 나르시시즘은 유아기에 필요한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속하지만 대상사랑을 향해 성숙해가야 하는 원시적이고 미숙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있던 유아는 외부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숙해진다. 이때 아직 미숙해서 대상으로 향하지 못했던 유아의 자아-리비도는 대상을 향하게 되는데(대상-리비도 : object-libido), 이것이 바로 대상사랑(object love)의 상태이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외부대상을 보게 되는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대상의 상태에서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리비도는 그 대상으로부터 철수하여 다시 자아를 향하여 투자된다. 즉 대상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리비도를 다시 자아에게 투여함으로써 다른 외부 대상을 사랑하거나 외부대상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키거나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시키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secondary narcissism)인데 이것은 성숙한 대상사랑으로부터 실패하여 다시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유사한 상태로 퇴행을 나타내는 병리적 상태를 의미한다.(홍이화, 앞의 논문, 274-275쪽.)

자하는' 또는 타인과 관계를 갖는 능력의 전 단계이다. 프로이트는 편집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그리고 일부 심기증(역주 :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질병) 환자들이 상실감에 젖게 되면 종종 '이차적' 나르시시즘의 상태로 후퇴한다고 믿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세계로부터 리비도를 회수하여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육체에 재투자한다. 브리튼은 자신에게로 후퇴하는 이와 같은 정신의 상태를 '리비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특히 후기 클라인학파의 로젠펠드와 케른버그 등은 나르시시즘의 파괴적 측면, 즉 대상인 타인을 병적으로 시샘하고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파괴하려는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오직 자기의 존재만이 허용될 뿐이다.<sup>8)</sup>

나르시시즘에 대한 세 번째 종류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코허트의 자기심리학파와 관련되어 있다. 코허트는 자기 사랑인 나르시시즘과 대상 사랑이 연속선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나름대로의 특징들과 병리현상들을 가지면서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발전 선상에 놓은 것으로 본다. 그는 부모의 자식숭배, 자기 자신과 자기 세계에 대한 어린아이의 흥분감, 그리고 정상적인 희망, 포부, 야망, 이상 등의 모든 현상들이 긍정적인 나르시시즘의 영역 속에 속한다고 봄으로써 나르시시즘의 건강한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모형에서 나르시시즘은 성장해 감에 따라 대상 사랑에 의해 대체되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환멸감에 의해서 약화되며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바람직한 자기 존중과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지속적인 토대가 된다.<sup>9)</sup> 따라서 코허트는 나르시시즘을 정신적으로 병들고 미성숙하며 적절한 정신분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릇된' 것으로 보지 않고 대상과의 관계 맺기를 포함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sup>10)</sup>

8) 제레미훅즈, 앞의 책, 11~12쪽.

9) 제레미훅즈, 위의 책, 12~13쪽.

이처럼 코허트는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의 단일적 발달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개의 분리되고 독립적인 나르시시즘의 발달을 주장한다. 즉 그 하나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사랑으로의 발달이고 나머지 또 하나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성숙한 형태의 나르시시즘으로의 발달이다. 여기에서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사랑으로의 발달은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나 코허트는 대상사랑으로부터 다시 자기사랑으로 퇴행하는 의미에서의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 아닌 일차적 나르시시즘(유아적 자기에)으로부터 보다 성숙한 형태로 변형되는 나르시시즘(건강한 자기존중, 자기사랑)의 고유한 자기발달을 말하고 있다. 코허트에게 있어서 나르시시즘은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가 아니라 자기의 일부로 경험하는 대상(자기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즉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은 자기관심, 자기집중 혹은 자기몰두와 관련하지만 코허트의 나르시시즘은 자기와 대상간의 관계들의 속성에 그 초점이 있다.<sup>11)</sup>

여기서 코허트가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자기대상이다. 코허트가 “자기의 일부로 경험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하는 자기대상의 의미는 자기대상의 기능을 경험하는 자기의 주체적인 경험적 측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대상이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상의 어떤 기능들에 대한 자기의 내적 경험<sup>12)</sup>을 뜻한다.

코허트의 자기심리학은 프로이트의 대상관계이론<sup>13)</sup>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0) 제레미홀츠, 앞의 책, 49쪽.

11) 홍이화, 앞의 논문, 275쪽.

12) Heinz Kohut, “Selected Problems in Self Psychological Theory(1980),” in *The Search for the Self*, vol. 4, ed. P. Omstein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1), 494.

13) 대상관계이론에서 대상이란 실제 외부세계에서의 구체적 대상, 즉 사람, 사물, 장소와 같이 구체적으로 직접 관계를 맺게되는 외적 대상(external object)과 그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 속에 내적으로 형성된 관계경험의 흔적, 즉 기억, 개념, 상상이나 환상 등과 같은 내적대상(internal object)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홍이화, 앞의 책, 50쪽).

여겨지나 사뭇 다른 점을 보인다. 자기대상은 사회적 관계 혹은 대인관계 안에서 주변의 사물 혹은 돌보는 사람(대상) 그 자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자기감(sense of self)을 유지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제공된 심리적 기능들을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대상은 대상의 기능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국면을 지칭하는 것이다.<sup>14)</sup> 가령 엄마 혹은 치료자가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공감적 반응을 통해서 아이 혹은 환자에게 자기대상의 기능을 제공할 때 그 아이 혹은 환자에게 대상이 제공한 기능은 아주 만족스럽게 경험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별로 의미 없게 경험될 수도 있다. 즉 자기대상 개념에 있어서 대상이 제공한 기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내적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이 되어야 자기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대상이 어떻게 무슨 기능을 제공했는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자기대상은 결국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기능하는 자기의 구조, 즉 응집적 자기를 세우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라고 하겠다.<sup>15)</sup>

## 2. 황진이의 자기애적 성향

자기애적 성향이 지배적인 이들의 행동패턴은 항상 자신만만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자신들의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목표 중심적이고 능동적인 면들이 부각되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황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녀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적 태도나 문학관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특히 그녀와 교류하는 남성들과의 관계형성에서도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14) Heinz Kohut, "Letters 1980," in *The Search for the Self*, vol. 4, ed. P. Ornstein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1), 670~674;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ed. Arnold Goldber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49~50.

15) 홍이화, 앞의 책, 54~55쪽.

있다. 황진이는 사대부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다른 기녀들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 포착되고 그에 따라 같은 기녀시조 부류와도 노래의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한대로 황진이는 주체적, 당당함, 개방성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면이 많다. 그러한 가운데 김상진은 황진이가 그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에서 ‘감정의 거리두기’와 함께 ‘우월적으로 인식하기’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sup>16)</sup>고 한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요소는 흔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적동기이며 바로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실제로 자신을 우월하게 인식하는 면모들은 그녀에 대한 여러 일화와 함께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 외에도 한시를 포함한 작품 곳곳에 여과 없이 드러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작품 전면에 우월감을 드러내는 화법을 즐겨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황진이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에게 적 요소들을 솔직하지만 투박하지 않고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황진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인 〈송도삼절〉이다.

진랑이 평소에 화담에게 아뢰기를,  
 “송도에는 삼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일컫는고?”  
 “박연폭포와 선생과 소녀이옵니다.”  
 이에 선생은 웃었다.

이 말이 비록 우스개말이긴 하나 또한 일리가 있다. 대개 송도의 산수는 울창하고 장관을 이루어 많은 인제가 배출되었다. 화담의 이학은 나라의 최고가 되고 석봉의 필법은 나라 안팎에 펼쳐 빛났으며 근래에는 차씨 부자형제가 또한 글로 이름이 높다. 진랑 또한 여자 가운데

16) 김상진, 「〈청산리 벽계수야〉와 〈텐미니츠〉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한국언어문화』 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193~194쪽 참조.

데 빼어나니, 곧 그녀의 말이 망녕되지 않았음을 이에서 알 수 있다.<sup>17)</sup>

위에 제시한 화담과 황진이의 대화를 통해 황진이가 얼마나 자기애가 강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자신감이나 당당한 태도는 그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 자기도취적인 면모까지 발견할 수 있다. 보편적인 관점으로 도 당시 조선사회에서 일개 기생의 신분으로 자신을 화담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발상자체가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칙하기까지 하다. 비록 화담선생을 유혹하는데 실패하였지만 그를 유혹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황진이는 목표 대상이 되는 남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대로 유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화담 선생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후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일화는 그에게 거부된 여성으로서 훼손된 자존심의 회복전략인 동시에 본인의 지적 우월함까지 드러내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 밖에도 30년동안 面壁參禪을 하며 生佛로 이름이 높았던 선승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거나 소세양이나 이사종, 이생과 이루어진 애정 관계 속에서도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고 이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점 등은 모두 황진이의 자기애로부터 근원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 등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에 황진이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이와 상응한다. 실제로 황진이는 용모가 출중하며 총명이 뛰어나고 민감한 예술적 재능을 갖추어 많은 일화가 전한다. 미모와 가창 뿐 아니라 書史에도 정통하고 詩歌에도 능하였으며 당대 석학 서경덕을 사숙하여 거문고와 주효를 가지고 그의 정사를 자주 방문, 唐詩를 精工하였다고 한다.<sup>18)</sup>

17) 許筠(1569~1618), 『惺翁識小錄』 下(『惺所覆瓿藁』, 권24, 說部3)

김정문은 자기애를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가 개발한 자기주도적 자기애 문항은 대체적으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황진이의 태도는 자기 주체성의 발현이었으며 그 근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기애(自己愛)<sup>19)</sup>'가 표출된 것이다. 다시 말해 황진이의 '선택'이라는 측면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의 표현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20)</sup>

황진이가 지닌 문학적 명성과 위상과는 별개로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생몰연대가 정확하지 않아 正史의 기록은 전혀 없고 그나마의 기록들은 野史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녀는 출생으로부터 기녀가 되기까지의 삶과 그 과정이 여러 설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기에 신비감마저 형성하고 있다.

황진이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黃進士의 庶女'와 '盲女之子'의 두 계통이 있으나 황진사의 서녀라 하더라도 그가 교방에 떨어진 것을 보면 사생아였을 것이고 맹인지자라 함은 音曲을 부르고 다니던 盲女絃首의 딸이니 문헌적으로 진이의 생존연대와 근접하고 보다 많은 신빙성을 부여한다면 허균의 『識小錄』에 있는 <맹인지자>설이 사실에 가깝다.<sup>21)</sup>

탁월한 상상력의 소유자로 고결하며 지모가 뛰어났던 진이지만 아버지를

18) 노인숙, 「황진이 한시연구」, 『청람어문교육』 2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1년, 225쪽.

19) Bursten은 자기애를 자기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의 집중을 의미하고, 이는 긍정적 성격 특질일 아니라 건강한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정문, 「자기애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쪽. (문미희, 「황진이의 삶, 사랑(愛), 그리고 교육」,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제1호, 안암교육학회, 2011, 67쪽에서 재인용)

20) 김정문에 의하면 자기애가 연속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적응적 자기애의 측면과 부적응적 자기애의 측면을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구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도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미희, 위의 논문 67쪽에서 재인용)

21) 金用淑, 「황진이연구」, 『조선조여류문학연구』, 혜진서관, 1990, 418~419쪽.

보지 못한 사생아로서의 유년기의 영향인지 언제나 이별을 전제로 하고 만남을 가져 늘 會者定離의 아픔을 갖고 살아갔다. 이는 정신적으로 아버지와의 이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삶에서 남성에 대한 불신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남성은 언제나 떠날 수 있고 여성들은 그들에 의해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입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써 떠나보내 자존심을 다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며 그 뒤에 숨은 이별의 정한이 남달리 아프게 나타난다. 이는 신분적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그녀의 자존심으로 보여진다.<sup>22)</sup>

이러한 삶의 조건은 황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가 다른 기녀에 비해 총명하고 예인적 자질과 미모를 겸비했다고 해서 그 삶의 본질적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그 삶의 불구성은 두드러지게 된다.<sup>23)</sup> 따라서 황진이가 보이는 '자기애', '나르시시즘'적 태도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의 역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결핍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황진이의 자기결핍적 요소는 평생에 걸쳐서도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구보다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던 그녀에게는 절대적인 탈출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수치심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적절함의 표현이며 주로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감 등으로 나타나지만 수치심은 또한 그러한 무가치함과 부적절함에 대한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운 느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흔히 다른 행동들의 '현상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즉 수치심의 방어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는 Gershen Kaufman과 John Bradshaw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꼽는다면 격노, 완벽주의, 교만, 경멸,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것, 비판과 책망, 타

22) 서종남, 「황진이 시가에 나타난 의식구조」, 『시조학논총』 13, 한국시조학회, 1997, 148쪽.

23) 노인숙, 앞의 논문, 237쪽.

인을 기쁘게 하거나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런 행동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좀 더 잘 보이려 하며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4)</sup>

결국 수치심의 돌봄은 자기애적 결함이 있는 자기의 상처를 돌보는 것이 되며 이러한 돌봄은 공감적인 자기대상의 기능에 달려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치심을 자기구조의 결핍으로 인한 자기의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자기대상으로 기능하는 돌보는 이의 공감적 역할을 통해 그들은 이전에 결핍된 어느 영역의 자기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치심 안에서 결함으로 가졌던 자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온전한 자기를 다시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수치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구축된 자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sup>25)</sup>

### Ⅲ. 자기대상으로서의 문학과 성숙한 자기애의 발현

성인의 일상적 삶의 전반에서 성숙한 자기대상은 다양하게 선택되고 경험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직장동료들과 같은 사람들 말고도 학술적 연구, 예술적 창작 혹은 문화와 사상과 같은 형태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자기대상의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활기차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며 또한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6)</sup> 그런

24) 홍이화, 앞의 책, 125쪽.

25) 홍이화, 위의 책, 126~127쪽 참조.

26) 홍이화, 위의 책, 260쪽.

의미에서 황진이의 문학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진이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문학 작품들이 자기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을 통한 공감과 치유는 그녀가 지녔던 자기 결핍이나 수치심으로부터 회복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체험은 황진이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토대가 된 것이다.

현존하는 황진이의 작품은 한시 8수, 시조 6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의 높은 명성에 비하면 작품 수가 너무 소량이어서, 아쉬운 바가 많으나 고작 총 14수에 지나지 않는 작품에서도 그녀의 공통되는 시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황진이 시가 가졌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한 시인이 한시와 시조를 함께 썼던 조선시대의 시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sup>27)</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황진이 시가문학에서 나르시시즘적인 면모가 어떠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었는가를 탐색하기 위함임으로 장르적 특질은 잠시 유보하고 시조와 한시 작품을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기로 한다.

코허트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애적 욕구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것인데 인간이 생애적으로 지니는 자기애(유아적 자기애; 일차적 자기애)가 자기대상과의 공감적 모체 안에서 건강하게 잘 발달될 때 그러한 자기애는 창의력, 공감능력, 유한성에 대한 수용, 유머감, 그리고 지혜와 같은 성숙한 자기애로 변형되며 이러한 자기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는 튼튼한 자기구조의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sup>28)</sup> 즉, 창조성, 유머, 명랑함, 그리고 꿈의 사용은 모두 변형된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증상들<sup>29)</sup>이다.

27) 김주수, 「黃眞伊 한시와 시조의 비교연구- 수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25호, 2011, 241쪽.

28) 홍이화, 앞의 책, 253~254쪽.

29) 제레미훅즈, 앞의 책, 81쪽.

## 1. 창의적 활동

나르시시즘이 성숙하게 변형된 첫 번째 형태로 코히트가 들고 있는 것은 ‘창의적 활동’이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창조적 활동 속에서 자기를 튼튼하게 유지하게 하는 이상화의 관계구조를 가진다. 이는 마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혹은 갓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확장된 자기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공감적이고도 헌신적인 사랑에 비유될 수 있는데 유사한 구조 속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바로 확장된 이상화 자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의 작업과 연구를 통하여 이상과 신념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재화하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게 된다.<sup>30)</sup> 황진이는 기녀로서 ‘종합 예술인’이지만 그녀가 지닌 여러 재능 가운데 문학적 재능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그 능력은 매우 탁월하기까지 하다. 때문에 그녀의 삶에 있어 詩作은 운명이고 詩作활동은 당연히 창의적 사고와 활동을 수반한다.

〈小栢舟〉<sup>31)</sup>

汎彼中流小栢舟 저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잣나무 배  
 幾年閑繫碧波頭 몇 해나 푸른 물가에 한가로이 매였던고  
 後人若問誰先渡 뒷사람이 만약 누굴 먼저 건넜냐고 묻는다면  
 文武兼全萬戶侯 문무를 함께 갖춘 만호후라 하리라.

위에 제시된 작품은 〈小栢舟〉라고 하는 한시이다. 이 시는 자신의 첫사랑에

30) 홍이화, 앞의 책, 254쪽.

31) 이 논고에 인용된 한시는 金智勇 편 『歷代女流漢詩文選』, 대양서적, 1972에서 참조하였음. 이하는 같음.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정시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애나 자존감을 고수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배가 지나는 상징성과 가치를 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적 관습으로 볼 때 배(舟)는 주로 떠나가는 주체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황진이는 자기 자신을 강물이 아닌 '배'에 빗대고 있다. 이 배는 배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심지어 몇 해나 한가로이 매여 있다. 즉, 아무나 태우지 않겠다는 의지와 기본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의지는 결국에서 말했듯, '文武兼全'의 '萬戶侯'와 같은 사람만이 황진이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기 자신을 조그만 잣나무 배라고 겸허하게 시작하고 있는 듯하지만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면의 저의는 매우 도도하고도 콧대가 높기 이를 데 없다.

황진이는 妓女이면서도 性品이 高潔하여 '市井의 賤'한 족속 같으면 千金을 준다고 하여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風流名士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할 만큼 자아가 강한 인물이며 상당히 능동적인 남성편력을 가지고 있다.<sup>32)</sup> 제아무리 뛰어난 기생일지라도 八賤의 신분을 넘어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문무를 겸비한 재상만을 상대하겠다는 그녀의 자세는 선뜻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과 자기애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 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프로이트가 사랑은 어떤 경우든 소유욕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sup>33)</sup>라고 한 것처럼 황진이 역시 인간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다음은 연정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32) 서종남, 앞의 논문, 133쪽.

33)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철학탐구』 2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280쪽.

어더 너 일이어 그릴줄를 모로던가  
 이시라 ㅎ더면 가라마는 제 구틱  
 보늬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나 ㅎ노라<sup>34)</sup>

〈어저 내일이야〉에서도 황진이의 자기애를 확인할 수 있다. 황진이의 대표적인 시조로 이별의 아픔을 곡진하게 담아내어 다른 기녀시조들의 작품처럼 이별시로서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나 다른 기녀들의 작품처럼 이별의 회한이 그다지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화자는 이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비교적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이 시조의 의미가 특별하게 읽히는 것은 ‘구태여’라는 어휘 때문이다. 이별 앞에서 눈물로 상대방에게 읍소하거나 매달리는 처사와는 다르게 오히려 화자는 님을 굳이 보내놓은 상황이다. 시적상황을 통해 아마도 님은 화자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 달라고 했다면 그대로 황진이 곁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먼저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하는 행동은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황진이가 상대방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애의 의지인 셈이다.

코허트가 말하는 자기(self)란 모든 심리구조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집행기관이다. 자기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며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구조이다. 자존심(self-esteem)의 유지와 자기통합(self cohesion)의 유지가 성적 요구보다 중요하고 공격적 요구보다도 중요하다<sup>35)</sup>고 한 것처럼 그녀에게 있어 자존심과 자기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트

34) 이 논문에 실린 황진이의 시조 작품들은 심재완의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에 수록된 기준 작품을 텍스트로 한다. 이 작품은 심재완, 위의 책, 697쪽(1965년).

35)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도서출판이유, 2008, 333쪽.

는 자기사랑이 강하면 대상사랑이 적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사랑이 많아지면 자기사랑이 적어진다고 보고 발달에 있어서 대상사랑으로 성숙해가기 위해서 자기사랑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차적 나르시시즘, 즉 대상사랑보다 자기사랑을 다시 더 많이 가지게 된 나르시시즘은 병리적이 되는 것이다.<sup>36)</sup>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진이의 사랑하는 방식이 이와 흡사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프로이트의 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황진이가 자기애가 크다고 해서 그녀가 상대했던 남성들에 대한 사랑이 전부 부정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코허트가 가진 나르시시즘의 개념은 프로이트가 보았던 미숙하거나 병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고 평생에 걸쳐 계속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단계로 보았다.<sup>37)</sup> 에고이즘과는 다르게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삶의 태도이다.

## 2. 유한성에 대한 수용

성숙한 자기애의 두 번째 형태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유한성’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즉 인간의 육체적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기의 일차적 자기애 역시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수용과 인정은 그 유한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받아들인

36) 홍이화, 앞의 논문, 275쪽.

37) 홍이화, 위의 논문, 276쪽.

창조적 결과이다.<sup>38)</sup>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물 아니로다  
 晝夜에 흐르거든 넷물이 이실소나  
 人傑도 물과 갯도다 가고 아니 오는조다<sup>39)</sup>

이 시조는 ‘송도삼절’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황진이  
 이가 지은 것으로 이 시조를 일화와 결부할 때 ‘넷’과 ‘넷물’의 이별은 삶과 죽음  
 으로 갈려진 이별이며 물은 이승을 떠난 花潭이 된다. 그러므로 ‘가고 아니오  
 는’은 존재에 대한 미련은 시인에게 인생무상을 느끼게 해준다.<sup>40)</sup>

황진이의 시조는 불변성에 기본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지만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자연 현상과의 관련을 통해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른 의미 자질을 확보하게 되며, 그렇게 함  
 으로써 비애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종의 자기이탈(self - detch ment)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신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상황도 객관화하여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사실 자체를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진다. 위 시조에서 ‘님’ 대신 ‘人  
 傑’이라는 어휘를 쓴 것도 객관적 거리 유지의 한 방법으로서, 자기 개인의 이  
 야기가 아닌 인간사에 두루 적용되는 바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처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문제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sup>41)</sup>

38) 홍이화, 앞의 책, 255쪽.

39) 심재완, 앞의 책, 518쪽(1441번).

40) 정영문, 「황진이의 시세계」, 『東方學』 제5호, 동양고전연구소, 1999, 190쪽.

41) 고영화, 「의미 치료적 관점에서의 고전시가 읽기-영원성에 대한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

인간·인생의 유한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므로 이를 객관화하면서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객관화의 자세와 화법은 황진이 작품에서 종종 드러나는데 이는 그녀가 자질구레한 속세적 현실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달관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죽음’과는 무관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유한성’과는 그 의미가 닿아 있다.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논고<sup>42)</sup>

지족선사를 파계시키고 이별한 후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위 시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곡진하게 착색되었다고 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작자의 실망과 허무가 컸을 것이라는 점이다. 화자는 가변적인 인간의 감정에 대해 회의를 보이면서 종장에서 같이 자아의 의지적 태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sup>43)</sup>

결국 흘러간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남녀의 정 또한 그러한 상대적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원불변의 것일 수 없다는 인식<sup>44)</sup>이 이 시조에 형상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화형의 지적처럼 가변적인 인간의 감정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만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감정들을 수용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깨닫는 에피파니(epiphany)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핀 인생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두 시조에서는 공통적으

구] 제1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87쪽.  
 42) 심재완, 앞의 책, 1049쪽(2865번).  
 43) 이화형, <사대부와 기생의 문학세계 비교-윤선도와 황진이의 시조를 통한>, 『우리文學研究』 제39집, 우리문화회, 2013, 184~185쪽 참조.  
 44) 김연옥, <황진이 시조의 멋과 풍류>, 『새국어교육』 6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215쪽.

로 자기 자신을 '청산/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한시에서 '배(舟)'를 자기 자신에 빗대어 표현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문학적 관습상 '산'은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물'이나 '강'은 여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한 두 작품에서 모두 '청산'과 '산'은 황진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남다른 기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황진이는 자신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원천을 단순한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문학 작품들은 절대유학으로 무장한 당시 사대부의 문학과 견줄 만큼 그녀의 정신적·문학적 심미관이 매우 절륜한 까닭에 어디서나 늘 당당하게 자기애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유머감(풍류)

'유머'는 성숙한 자기애의 형태로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을 수용하는 우주적 자기애를 가지게 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코허트는 설명하고 있다. 둘 다 자기애적 자기의 요구들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지는 유한성을 잘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코허트에 의하면 유머와 우주적 자기애의 가장 심오한 형태는 과대성이나 의기양양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우울함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조용한 내면의 승리를 나타내준다.<sup>45)</sup> '유머'라는 어휘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웃기는 말과 행동'이다. 고전적 정서로는 '해학'이 가장 적합한데, '재치표현', '기지', '풍류'도 전체맥락에서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기 인용한 바대로 유머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유한성을 수용하는 우주적 자기애를 가진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정신적인 여유로움과 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풍류'는

45) 홍이화, 앞의 책, 255~256쪽.

오히려 '유머'보다 한 층 더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발한 재치와 시적 창의력, 수사법 등은 풍류적 태도와 함께 황진이의 철학적 세계관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다음은 황진이의 한시 중 景物을 노래한 작품이다. 박연폭포와 서경덕과 더불어 '송도삼절'로 일컬어지는 황진이는 송도에 대한 애향심이 유달리 많았던 것 같다. 박연폭포를 읊고 있는 이 시는 박연폭포가 중국의 여산의 폭포보다 나으며 해동에서 제일이라고 할 만큼 박연폭포에 대한 극진한 자부와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sup>46)</sup>

<林淵瀑布>

一派長川噴壑巖 한 줄기 긴 물줄기가 바위골에서 뿜어나와  
 龍秋百仞水淙淙 폭포수 백 길 넘어 물소리 우렁차네.  
 飛泉倒瀉疑銀漢 나는 샘물 거꾸로 쏟아져 은하수 같고  
 怒瀑橫垂宛白虹 성난 폭포 횡으로 드리워 흰 무지개 완연하네.  
 電亂霆馳爾洞府 어지러운 물벼락에 천둥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珠春玉碎徹晴空 구슬 절구에 부서진 옥 창공에 치솟는다.  
 遊人莫道廬山勝 노니는 이여, 여산이 좋다 마시길  
 須識天磨冠海東 모름지기 천마산이 해동에서 최고이거니.

눈앞에 그림처럼 전개되는 위와 같은 유쾌한 표현은 박연폭포의 멋스러운 실경을 가늠케 한다. 특히 의인법, 도치법, 과장법 등의 묘사법과 더불어 폭포를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데서는 자유분방하고 활달하기가 남성과 같았다는 황진이의 호탕한 기상을 쉽게 떠올<sup>47)</sup>릴 수 있다.

시는 황진이의 인간적 자량이 한껏 표현된 작품이다. 스스로 송도삼절이라

46) 김주수, 앞의 논문, 250쪽.

47) 이화형, 「황진이와 薛濤의 漢詩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별성」, 『우리문학연구』 52, 우리문학회, 2016, 21쪽.

일컬은 박연은 곧 황진이 자신이기도 하다. 아름답고 힘차며 깨끗하여 거칠 것 없는 기상으로 자부심을 드높게 드러내었다.<sup>48)</sup>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詠半月〉이라는 한시작품이다. 이별의 서글픈 정서를 견우직녀 설화를 차용하면서 반달을 ‘빋’으로 빗대는 예술적 개성이 독특하고 기발하다. 특히 이 시의 結句에서 빋을 던지는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詠半月>

誰斷崑山玉 누가 곤륜산 옥을 깎아 내어  
 裁成織女梳 직녀의 빋을 만들었던고  
 牽牛離別後 견우와 이별한 후에  
 愁擲碧空虛 슬픔에 겨워 碧空에 던졌다오

이 작품에서 핵심 어휘인 ‘빋’은 그토록 사랑하던 견우가 곤륜산의 옥을 깎아 만들어준 사랑의 정표이면서 그를 위해 단장할 때 사용하던 직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지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빋을 효용하게 만들어줄 대상인 견우가 떠나감으로 인해 빋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고 황진이는 이별이라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때 황진이가 빋을 ‘던지는’는 행동은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여성 문학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다른 閨房詩나 기녀시조 같았으면 여성화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 빋을 소중히 간직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짙다. 황진이가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미 이별한 님의 정표 같은 것은 더 이상 소용도 없을 뿐더러 미련도 두지 않으려는 자각과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즉 그녀의 자신만만하고 자기애적 태도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이별의 상황에서 빋을 던져버리는 행위로 자신

48) 노인숙, 앞의 논문, 237쪽.

의 불편한 심리를 대변한다.

그러나 〈詠半月〉의 시적 지향점은 원망의 우회적 표현에 있지 않다. 이 시에서는 사랑의 배신이나 이에 대한 원망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반달을 기발하고 멋스럽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또한 빛은 사랑의 정표에서 쓰라린 배신의 기억으로 돌변한 것이다. 여주인공은 이것을 결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이별을 결심하고 마침내 사랑의 매개물인 빛을 허공에 던져버린다.<sup>49)</sup>

그러므로 이 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긴 하지만 여타 기녀시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서나 태도 등과는 사뭇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별에 대해 슬픔과 회한 속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마저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통해 황진이의 문학 세계에 있어 풍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황진이의 풍류적 기질이나 문학적 창의력이 두드러지는 것 역시 황진이의 건강한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4. 지혜와 가르침

또 다른 형태의 성숙한 자기애는 ‘지혜’이다. 지혜는 삶과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는 안정된 태도라 정의될 수 있는데 코허트에 따르면 이는 곧 고도의 인지적 기능이 유머와 유한성의 수용 그리고 확고하게 검증된 가치체계와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태도라 하고 있다.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며 심리적 삶을 살아오면서 얻게된 성취의 결과이다.<sup>50)</sup>

49) 김태봉, 「中國漢詩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황진이의 〈詠半月〉 연구」, 『중국학보』 제71호, 한국중국학회, 2015년, 160쪽.

50) 홍이화, 앞의 책, 256쪽.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청산리 벽계수야〉이다. 종친인 벽계수가 황진이의 유명세를 듣고 그녀를 만나러 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게 된 일화로 유명하다. 황진이는 종친인 벽계수와 같은 유명 인사에게조차 당당한 태도를 견지한다. 특히 종장 대목은 자신의 妓名인 ‘明月’을 차용하고 있는데 ‘명월이 만공산하다’는 표현은 자신을 매우 우위에 놓은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靑山裏 碧溪水야 수이 감을 즈랑마라  
一到滄海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 간들 엇더리<sup>51)</sup>

벽계수의 가치는 부단히 흘러간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일도창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도창해하고 나면 벽계수의 생명은 소멸하고 만다. 목표에 이르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자신인데도 벽계수는 위험을 알지 못하고 쉽 없이 흘러갈 뿐이다. 그 위험을 일깨워주는 이가 화자이다. 벽계수는 알지 못하는 것을 화자가 안다는 사실은 화자가 벽계수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암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명월은 곧 화자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명월이 하늘, 천상에서 만물을 비추는 존재이므로 명월은 벽계수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지만 벽계수는 명월의 앞날은커녕 자신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처지이다.<sup>52)</sup>

이 시조는 표면적으로는 벽계수를 유혹하는 노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진리를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벽계수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며 일깨우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이다.

51) 심재완, 앞의 책, 1045쪽(2858번).

52) 김상진, 앞의 논문, 195쪽.

#### IV. 나가는 말

나르시시즘에 대해 코허트는 그의 일상적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자기애가 언제나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가지는 자기애는 제거해버려야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모두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정상적인 요소로 보았다.<sup>53)</sup>

황진이는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도 출중하였기에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었지만 타고난 자기결핍으로 삶의 불구성은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황진이가 보이는 ‘자기애’, ‘나르시시즘’적 태도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의 역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결핍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황진이의 자기결핍적 요소는 평생에 걸쳐서도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구보다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던 그녀에게는 절대적인 탈출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문학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대상의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활기차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며 또한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황진이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토대가 된다. 황진이의 건강하고 성숙하게 구현된 나르시시즘은 문학작품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물론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야사로 전해지는 일화나 작품에서 포착되는 화자의 언술이나 태도만을 바탕으로 나르시시스트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거칠고 불편한 논의일수 있다.

그러나 인식론적 차원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해석자의 개입 없이 작품/텍스트가 제 스스로 의미를 발화할 수 없고 모든 독서행위는 독자와 텍스트사이의 대화 내지 상호조명을 통한 의미구성 작용의 산물<sup>54)</sup>이기에 이와 같은 고찰은

53) 홍이화, 앞의 책, 253쪽.

황진이라는 한 인간과 문학에 대해 새로운 맥락과 관점에서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

54)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23쪽.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심재완,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金智勇 편 『歷代女流漢詩文選』, 대양서적, 1972.

### 2. 참고자료

- 고영화, 「의미 치료적 관점에서의 고전시가 읽기 - 영원성에 대한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1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철학탐구』 2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문학 치료적 효과-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_\_\_\_\_, 「청산리 벽계수와 텐미니츠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김연옥, 「황진이 시조의 멋과 풍류」, 『새국어교육』 6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金用淑, 「황진이연구」, 『조선조여류문학연구』, 혜진서관, 1990.  
김주수, 「黃眞伊 한시와 시조의 비교연구」, 『한문학보』 제25호, 우리한문학회, 2011.  
김태봉, 「中國漢詩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황진이의 <詠半月> 연구」, 『중국학보』 제71호, 한국중국학회, 2015.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노인숙, 「황진이 한시연구」, 『청람어문교육』 2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1년.  
문미희, 「황진이의 삶, 사랑(愛), 그리고 교육」,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1호, 안암교육학회, 2011.  
박인국, 「황진이 시조에 나타나는 브라운운동의 문학치료학」, 『문화기술의 융합』 제4권3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_\_\_\_\_, 「황진이의 긴장과 이완의 신경생리학:『靑山裡 碧溪水 | 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권3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 서종남, 「황진이 시가에 나타난 의식구조」, 『시조학논총』 13집, 한국시조학회, 1997.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도서출판이유, 2008.
- 이화형, 「황진이와 薛濤의 漢詩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별성」, 우리문학연구52, 우리문학회, 2016.
- \_\_\_\_\_, <사대부와 기생의 문학세계 비교-윤선도와 황진이의 시조를 통한>, 『우리文學研究』 제39집, 우리문학회, 2013.
- 장만식, 「황진이의 작품 속에 내재된 트라우마와 욕망 탐색」, 『열상고전연구』 NO.45, 열상고전연구회, 2015.
- 정영문, 「황진이의 시세계」, 『東方學』 제5호, 동양고전연구소, 1999.
- 제레미홉즈, 『나르시시즘』, 이제이북스, 2002.
- 홍이화, 「자기심리학 이야기1, 나르시시즘, 지독한 자기사랑」, 『기독교사상』 통권 제 618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 『하인츠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현대정신분석연구소, 2011.

<Abstract>

## A study of Hwang Ji-ni and its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narcissism

Kim, Ji-eun(Chung-A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 discussion of Hwang Ji-ni and Hwang Ji-ni's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narcissism. As is well known, a gisaeng was one of the lowly ranks of the Joseon Dynasty and belonged to the most inferior position in the hierarchy of ranks. Nevertheless, Hwang Ji-ni is a humanoid who is extremely full of narcissism and confidence in himself, and his attributes are being embodied in literature as they are. In a closed society, low-income groups such as gisaengs have no choice but to live by accepting and acknowledging their situation, so it seems very far from them to realize self-love. However, Hwang Ji-ni is not engrossed in her situation and is revealed as a person full of self-love. There is clearly a unique view of the world and literature that sets her apart from the anecdotes of other prostitutes and the progenitor of prostitutes. This discussion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re the driving force for this bouncing sensibility and self-love really originates.

In supporting this discussion, Cohart's self-psychology is very useful. He argued that narcissism was a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life, including engaging with objects, without seeing it as the "wrong" found in

people who were mentally ill, immature, and not adequately psychoanalyz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nfirmed that Hwang Ji-ni's narcissism is a healthy narcissism, and this mature narcissism is embodied in literature.

Keywords : Hwang Ji-ni , narcissism, narcissist

이 논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근대초기 시조담론 연구 — 최남선과 최영년을 중심으로

배 은 희 \*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근대초기 시조담론을 대상으로 하여 시조의 변이양상과 시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남선은 노래로서 시조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성률'에 능통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작품에서는 '성률'을 배제하여 노래가 아닌 '시'로서 읽을 것을 제안했다. 최남선 작품 중 『소년』지에서 실린 시조는 종구가 생략된 시조창에 형식적 기반을 두고 창작하였다. 그러나 『청춘』지에서는 가곡창 중 '평조'를 형식적 기반으로 하여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라졌던 시조의 종장의 종구가 되살아나게 되었고, 평시조와 연시조의 형식으로 창작되어 정형시로서 시조를 창작하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반면 최영년은 가곡창 중 평조, 남창시조 등 다양한 곡조를 기반으로 시조를 창작함으로써 시조를 노래로서 인식하였고, 평시조·사설시조의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때 지향했던 유교적 덕목을 주제의식을 표현하였고 한시·고사 등을 차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고시조의 품격을 계승하려고자 하였다. 1900년대 대중화되고 통속적으로 향유되었던 시조를 한시와 같은 품격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0년대 시조는 창작 주체의 변화와 주제의식의 변화, 표현 기법의 변화를 겪으면서 시대적 변화의 양상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시조와 한시 등 다양한 장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본격적인 근대문학으로 창작되기 이전 1910년대 시조는 고시조가 지닌 시대의 변화를 담지할 수 있는 형식적 유연성을 간직하고 있었고, 당대인들이 추

\* 인천대학교 강사.

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해 내는 문화적 양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제어: 최남선, 최영년, 시조, 시조담론, 시가, 곡조, 가사변이, 가사개혁, 가곡창, 시조창

## I. 서론

근대초기에 해당하는 1900년대~1910년대에 창작된 시조와 시조론에는 근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은 학계에서 논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화기 시조’ 혹은 ‘근대 이행기 시조’라 명명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1)</sup> 그간의 연구들은 1900년대 창작된 작품에 관심이 집중되어 연구되었는데, 이는 『대한매일신보』와 『대한민보』에 600여수가 넘는 다량의 작품이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소략히 밝히자면 1900년대 시조는 애국계몽기라는 시대적 현실을 다룬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통시가의 의미를 재맥락화하거나 변형 또는 새로운 양식으로 창안되어 일제의 식민지배 야욕에서 벗어나 구국과 근대국가 건설<sup>2)</sup>을 향한 열망을 노래한 작품이 대다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들은 ‘신문’이라는 매체

1) 박을수, 『한국개화기 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연구』, 새문사, 2004.

김학동,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2009.

신명란, 「한국 근대 이행기 시조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조해숙, 「〈대한민보〉시조에 나타난 계몽기 시가의 전환과 대응 양상(1)-매체 변화와 내용 특성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2)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의 역사미론적 이해」, 『한국시가연구』 제37집, 한국시가학회, 2014.

적 특징에 주목하였기에 ‘노래로 불리던 시조’는 인쇄 매체를 통해 ‘읽기 위한 시조’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형태라 논하였다. 근대초기 시조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주로 1900년대 후반 다수의 작품이 게재된 『대한매일신보』와 『대한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이후 시대인 1910년대 작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하였다.

1910년대에 이르러 시조는 이전 시대인 1900년대 작품 주제 의식과는 전혀 다른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친일적 성향을 지닌 잡지 편찬자들이 창작을 하였기에 당시 시대상과는 유리된 풍류적인 취향의 작품이 많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주제 의식을 표출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조선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암시적이고 고답적인 관념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3)</sup> 다만 1910년대 시조는 친일적 성향을 지닌 주제에 따른 주제 의식에만 주목되었고 시조 자체가 가진 형식 변화, 창작 기반의 변화, 주제 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록 친일파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일지라도 근대초기 시조담론 중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에 온전한 근대초기 시조담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1910년대 잡지에 게재된 창작시조 작품 수는 총 86수에 해당한다. 이 중 창작 작품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최남선(24수), 天嘯子(20수), 紫霞山人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최영년(9수)이다. 천소자라는 필명을 쓰는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고 창작시조 외에는 다른 시조에 대한 논의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남선과 최영년은 시조작품 뿐만 아니라 시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며 시조를 창작했다. 물론 주지하

3) 최진희, 「1910년대 시조의 변화 양상과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윤설희, 「1910년대 잡지에 수록된 시조 텍스트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학회 제87차 정기학술대회발표회집』, 한국시가학회, 2018.

듯이 최남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방대하게 이루어져왔다.<sup>4)</sup> 그러나 최남선이 1910년대 초기에 창작한 시조 작품과 1910년대 중반 시조 작품에 형식적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영년에 대한 논의는 최남선의 연구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편이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10년대 본격적인 시조담론을 연구하기 위한 선행 연구단계로 최남선과 최영년이 창작한 시조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시조 창작의 형식적 기반과 주제의식의 존재양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상이한 관점을 지닌 최남선과 최영년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10년대 시조의 다각적인 면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II. 최남선의 시조 형식기반의 변이 양상

18세기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집의 등장은 ‘창곡왕성시대’<sup>6)</sup>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했다. 이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기존의

4) 서영채, 「최남선 시가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사연구』제 14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 1910년대 최남선과 竹內録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48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구인모, 「최남선과 국민문학론의 위상」, 『한국근대문학연구』제6권 제2호, 2005.

윤영실, 「최남선의 근대 ‘문학’관념 형성과 고전 ‘문학’의 수립」, 『국어국문학』150, 2008.

김윤희, 「잡기『소년』에 수록된 고시조와 최남선의 창작 시조에 대한 연속적 고찰」, 『한국시가연구』제32집, 2012.

서철원, 「시조사의 편성 과정과 최남선의 시가인식」, 『민족문화사연구』49,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5) 이상원, 「최영년의 고시조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언어문학』 제58호, 한국언어문학회, 2006.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14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박영미, 「최영년 문학론 고찰 - 친일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22집, 근역한문학회, 2004.

조혜숙, 「‘新文’으로 호명된 전통시가의 행방 - 1910년대 잡지 수록 창작시조와 시조비평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58호, 한국고전문학회, 2020.

강혜정,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의 창작 향유 양상」, 『시조학논총』 제52집, 한국시조학회, 2020.

6) 조윤제, 『조선시가사상』, 동광당서점, 1938, 415쪽.

전해져 오는 작품에 곡조를 다양화하여 향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0년대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시조는 곡조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가사를 짓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신문, 잡지에 시조 작품이 실리게 되면서 곡조의 변화는 향유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고 새로운 가사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창작 기반은 여전히 시조창이었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와 『대한민보』에 실린 시조 작품들 대부분이 마지막 종구가 생략된 채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기사들은 시조창이 대중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 昨日下午九時에銅峴某家에서內部官人幾員과有志紳士幾員이日前閔忠正公紀念筆筒及酒盞을見ᄃᆞ고 紀念宴을 設ᄃᆞ기 爲하야 發起人率冕根氏를 請來同席ᄃᆞ는디 大韓酒肴와 妓生二名을 招來ᄃᆞ야 同夜一時까지 醉興이 陶然ᄃᆞ는디 紳士姜위史가 詩調一篇을 製作ᄃᆞ야 妓生으로ᄃᆞ야금 傳唱케ᄃᆞ얏는디 大韓高節閔忠公은忠則盡命ᄃᆞ여잇고○竭忠報國崔勉菴은竟死馬鳥ᄃᆞ엿스니○아마도日月同光은兩忠公인가

— <歌曲新唱>(『대한매일신보』, 1907. 2.6.)

(나) 開城 名士 林圭永 리면根 車斗漸 三氏가 閔忠正公에 忠節을 紀念ᄃᆞ기 爲ᄃᆞ야 筆筒과 酒盞을 發起製造ᄃᆞ야 廣布ᄃᆞ얏는디 雖妓女街童이라도 歌謠를 新唱ᄃᆞ니 △泰山高節閔忠正이 忠則盡命ᄃᆞ얏스니 △ 竭忠報國말근節槩大한日月빛낫도다 △아희아竹葉盃가득이부러라同胞 의게

— <慕忠歌曲>(『대한매일신보』, 1907. 2.10.)

(가)는 신사강위사가 시조 한 편을 제작하여 기생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였다는 기사문이고, (나)는 임규영·리면근·차두환 세 사람이 민중정공의 충절을 기념하기 위해 기녀가동에게 가요를 창작하여 부르게 하였다는 기사문이다. 이 기사문들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는 1900년대까지도 시조를 창작함에 현장성과 즉흥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가) 기사문에서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여 거나하게 취하자(陶然) 신사강위사가 시조일편을 창작하여 기녀에게 부르게 하였고, (나)에서는 민중정공의 충절을 기념하기 위해 필통과 잔을 제작하여 널리 알리면서 기녀에게 시조를 부르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시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창작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신문에 게재될 때 곡조명은 따로 부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10년대 잡지에 실린 작품 중에는 곡조명을 부기하여 창작 기반이 곡조에 있음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나, 신문에는 곡조명을 기록하지 않았기에 그 형식적 기반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위 인용문을 통해서 당대 창작된 시조의 형식적 기반은 시조창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전히 가창의 형태로 향유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조의 즉흥성이나 현장성은 최남선에게 있어서 시조가 문학적이지만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서영채는 최남선에게 있어서 시는 “우선 한글로 써야 하고, 동시에 시조나 가사가 지니고 있던 음악성과의 분리가 수행되어야 했다”고 논한 바 있다.<sup>7)</sup> 시조에서 음악성을 제거하는 것은 시조가 ‘시’이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최남선은 시조의 향유방식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었다.

因하여 偶成한것 세머리를 부쳐 記錄하옵나니 毋論 格도 본것아니오 調에도 맞추지아닌 것이라 하물며 聲律에 석길 理가 잇스리오마는 詩를 만일 노래할것과 읽을 것 둘에 난홀수가 잇다하면 읽을것 편에 석거 넘어주시기를 바라노이다.

— <快少年世界周遊時報>(『소년』 3권 3호, 1910.3.)

최남선은 시조를 그 향유 방식에 따라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것’과 ‘읽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격(格)’과 ‘조(調)’를 맞추지 못하였고, ‘성률(聲律)’ 즉 곡조에 어울리지 못함을 토로하며 이 작

7) 서영채, 「최남선 시가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1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품은 노래로 부르기보다 읽는 것으로 권하고 있다. 최남선은 시조를 노래로 부르기 위해서는 '성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률'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 가집이나 퇴계의 <도산십이곡 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사와 곡조의 조화를 중시한 가곡창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지식인 최남선은 가곡창 혹은 시조창에서 핵심 요소인 '성률'을 배제한 것이다. 시조에서 성률을 배제했다는 것은 노래로서의 의미보다 시로서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곡조에 정통하지 않아도 시조를 창작할 수 있는 대중성이 보장되는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1910년대 초기 최남선은 가곡창 혹은 시조창으로 향유되던 시기의 시조에 대한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 기반을 시조창에 두고 있었다.

#### <최남선 작품 현황>

	작품제목	곡조명	수록잡지, 판	비고
1	漢江水 홀으난물	·	<快少年世界周遊時報> 『소년』, 3권3호(1910.3)	평시조
2	白雲을 잡아타면	·	"	평시조
3	산이가고 물지나고	·	"	평시조
4	봄마지	·	『소년』, 3권4호(1910.4)	연시조 7수
5	太白에	·	『소년』, 3권5호(1910.5)	연시조 4수
6	또 皇靈	·	"	연시조 3수
7	大同江	·	『소년』, 3권6호(1910.6)	연시조 6수
8	鴨綠江	·	『소년』, 3권7호(1910.7)	연시조 3수
9	威化島	·	"	연시조 2수
10	△△△	·	"	평시조
11	國風二首	·	『소년』, 3권8호(1910. 8)	연시조 2수
12	大朝鮮精神	·	"	연시조 7수
13	제의 불으저심	·	"	연시조 5수
14	더위 치기	·	"	연시조 5수
15	淸川江	·	『소년』, 3권9호(1910. 12)	연시조 3수
16	님	·	『青春』1호(1914. 10)	연시조 3수
17	가을, 님생각	·	『青春』2호(1914. 11)	연시조 3수
18	붓	·	『青春』3호(1914. 12)	연시조 3수

19	치위	·	『青春』6호(1915. 3)	연시조 3수
20	東京 가는 길	·	『青春』7호(1917. 5)	연시조 3수
21	窮한 선비	·	『青春』8호(1917. 6)	연시조 4수
22	내숙	·	”	연시조 3수
23	扶餘가는이에게	·	『青春』9호(1917. 7)	연시조 3수
24	너름길	·	『青春』10호(1917. 9)	연시조 3수

위의 표는 최남선이 1910년대에 창작한 시조 작품 목록이다. 창작 작품 중 평시조는 4수이고, 연시조는 20수나 된다. 연시조는 평시조를 2수 이상 묶어서 제목을 붙인 형식이기에 최남선은 평시조를 중심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곡조명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 『소년』지와 『청춘』지에 실린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최남선의 시조창작 형식기반의 변화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英雄이라 말올마라 地體업신 더 불상하다

龍장스째 썩은 풀에 腰斬이 무슨일가

밤낮에 피눈물고여 沼되엿나

— <淸川江> 중 첫째 수(『소년』, 3권9호, 1910. 12.)

(라) 님이 거기 계시다하니 뵈오려면 가올거시

님이 거대한계셔도 가보아야 아올거시

그리는 그님이시니 아니가고 어이리

— <님>중 두 번째 수(『青春』1호, 1914. 10.)

(다) 작품은 1910년도에 발표된 작품으로 종장이 ‘밤낮에 / 피눈물고여 / 沼되엿나’로 읽게 되어 3음보로 종구가 생략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1900년대 신문에 게재된 시조작품의 형식으로 시조창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라)처럼 『청춘』에 발표된 작품은 ‘그리는 / 그님이시니 /

아니가고 / 어이리'로 종장의 마지막구를 넣어서 가곡창의 형식을 기반으로 창작하였다. 『소년』지에 발표된 1910년 3호부터 1910년 9월에 창작된 작품들은 단 한 편도 빠짐없이 모두 종장의 종구가 생략된 시조창의 형식을 기반으로 창작되었으나, 『청춘』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종장의 종구를 다시 살린 가곡창 중 평조의 형식을 기반으로 창작되었다. 여기에서 시조에 대한 이중적인 최남선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읽기 위한 시'로 시조를 창작하였지만 작품의 형식적 토대가 된 것은 바로 시조창 혹은 가곡창의 형식이었다.

(다)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남선은 시조창작의 형식적 기반을 시조창에 두고 있다. 그러나 1910년대 중반이 되면서 마지막 종구를 살린 가곡창의 형식으로 창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게재된 고시조의 현황을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매체에 고시조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만세보』이다. 1906년 7월31일부터 곡조별로 기록되어 소개된 고시조는 129수로 1907년1월1일까지 게재되었다. 그리고 『공립민보』에 10수(1908.8.26)가 게재되었고, 『신한민보』에 42수(1912. 1. 22. ~ 1918.10.10.)가 게재되었다. 그리고 잡지에는 『소년』지에 1908년 11월부터 1909년 10월까지 총18수의 고시조가 소개되었고, 『서북학회월보』에 2수(1909.3.1.), 『청춘』에 10수(1914.10), 『조선문예』(1917~1918)에 96수가 소개된 바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한 고시조를 통해 최남선은 시조의 형식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최남선은 『소년』에 게재된 자신의 작품과 고시조와 형식의 차이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소년』지에 자신이 발표한 시조는 종장의 종구가 생략되었지만, 고시조는 종장의 종구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적 시각에서 시조를 보았을 때 종구가 생략된 형식은 의미의 생략, 형식적 불안정감을 주어서 근대 문학으로 보기에 미흡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최남선은 고시조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종구를 살린 가곡창 중 정형성을 확보

한 ‘평조’의 형식을 기반으로 시조를 창작한 것이다.

「遊戯以上の時調」- 이것이 目標라고 六堂은 어느 機會에 말하였다. 果然 在來의 時調는 太半이나 遊戯기분인 것이었다. 그것에 對하여 六堂의 時調가 遊戯以上인 것은 勿論이다. 한 篇의 時調를 엮노라고 그는 반드시 三四日을 두고 苦心하였을 줄을 안다. 六堂은 무슨 글에나 力作家여니와 時調에 잇서서는 진실로 超力作家라 할 것이다. 그 억지손센 六堂이 가느단 눈이 찌어저라하고 부릅뜨고 뽕뽕소리를 치며나하 노흔 것이 그의 時調다.<sup>8)</sup>

이광수는 최남선이 편찬한 최초의 개인 시조집이라 할 수 있는 『백팔번뇌』(1926)의 후기를 썼다. 여기서 이광수는 ‘재래의 시조는 태반이 유희기분인 것’이고 육당의 시는 ‘유희이상의 시조’라고 평가하였다. ‘유희’와 ‘유희이상’의 차이는 시조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삼사일을 두고 고심’하였다는 것이다. ‘유희기분’의 시조는 즉흥적이고 현장성이 있는 노래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육당의 ‘유희이상’의 시조는 삼사일을 고민하며 쓰는 ‘시’, 즉 문학이라는 것이다. 근대 이전 즉흥적이고 현장성이 살아있는 노래에서 지적으로 고민하고 창작해야 하는 시로 변모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1900년대 후반 시조는 조선 후기의 시조창의 전통을 계승하여 종장의 종구가 생략되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그러나 1910년대 이후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고시조가 재발견되었고 시조창과 가곡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 최남선은 종구가 생략된 미흡한 시조창 형식보다는 형식적 안정감을 가지고 의미도 완성되는 가곡창의 형식을 기반으로 창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조의 인식의 변화는 시조창이 가졌던 현장성과 즉흥성을 대신 문학으로서 시로서 창작하게 되는 변화의 기점이 된 것이다.

8) 이광수, <육당과 시조>, 『백팔번뇌』, 동광, 1926.

### Ⅲ. 최영년의 다양한 곡조의 계승

앞 장에서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와 『대한민보』에 게재된 시조는 곡조명을 부기하지 않고 시조창을 형식적 기반으로 삼아 창작되었다고 논의하였다. 이 방식을 계승하여 시조를 창작한 것은 최영년이었다. 최영년의 작품 수는 총 9수로 최남선에 비하면 그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영년은 『조선문예』(1917)에 「고금가요의 연혁」과 「고금의 가요」를 발표하면서 꾸준한 시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었기에 그의 작품 수가 비록 적지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최영년 작품 현황〉

	작품제목	작자	곡조명	수록잡지, 란	비고
1	陶淵明	紫霞山人	平調	『新文界』, <朝鮮歌曲>, 1권 8호(1913. 11)	평시조
2	青天月	同	平調	"	평시조
3	滿庭黃葉	同	男唱	"	사설시조
4	春遊樂	紫霞山人	.	『新文界』, <朝鮮歌曲>, 2권 5호(1914. 5)	사설시조
5	金剛山	"	남창시조	"	사설시조
6	花信風	"	男唱時調	"	사설시조
7	採藥翁	"	男唱時調	"	사설시조
8	從地理	"	춤시조	"	사설시조
9	白髮嘆	"	男唱時調	"	사설시조

‘紫霞山人’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최영년은 『신문계』에 〈조선가곡〉이라는 란을 통해 총 9수의 시조를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연시조 형식으로 다수 창작한 최남선과 달리 최영년은 평시조와 사설시조 형식을 선택하여 시조를 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이점은 바로 곡조명을 모두 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菊花의 千古知己는 陶淵明 一人뿐이로다,  
 陶淵明 一去後에 다시 知己가 업단말가,  
 至今에 날다려 知己라흐은 아쉬여서  
 天嘯子曰 終章頗有其味

— <陶淵明(平調)> (<朝鮮歌曲>, 1권8호, 1913.11.)

위 작품은 <도연명>이라는 작품으로 도연명의 국화사랑을 소재로 하였다. 초장과 중장에서 국화의 진정한 지기는 도연명뿐이고, 그 외 진정으로 국화와 벗할 이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 자신에게 국화의 지기라 한다면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화자가 도연명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조 형식은 평시조의 형식으로 1900년대 신문에 실린 작품과는 달리 종장의 종구를 넣어 창작하였다. 그리고 제목 옆에 '평조'라고 곡조를 부기하여 가곡창 중 평조라는 곡조를 형식의 기반을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金剛山一萬二千峰을, 오날에 흥봉오르고 립일에 흥봉오르면.  
 一萬二千日을 지니면, 金剛山上上峰에 오르련마는  
 엇지타, 날노前進호는 男力이 적어다만 毗盧峰높다는말만, 스름마다호는고  
 自解曰 此諷其學業者之辭, 博學明辨日進而不已則, 何患不爲聖人, 但自暴自棄, 以理聖人之域, 高遠而難行, 莫能移其步武者, 夫與此何異

— <金剛山> (『新文界』, 2권 5호, 1914. 5.)

위 작품은 「金剛山」이라는 제목으로 '남창시조'라는 곡조명을 부기한 사설 시조 형식의 시조이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제아무리 높더라고 꾸준히 매일 오르다보면 금강산 비로봉에 오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오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비로봉이 높다고 핑계만 대고 있는 현실을 화자는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自解'를 덧붙여서 학업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며 작

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의 형식은 사설시조로 초장, 중장, 종장이 모두 4음보를 벗어나 있다. 최영년의 다른 사설시조 작품들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사설시조가 가진 형식적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평시조와 달리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사설시조를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남창시조’라는 곡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곡조 안에서 자유롭게 가사를 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10년대 잡지에 시조작품을 게재 한 최남선과 최영년의 창작기반을 비교를 해보면 최남선은 가곡창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 중 평조를 기반으로 한 평시조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감정을 평시조 한 수 안에서 충분히 나타내기 어려웠기에 연시조를 선택하여 창작하였다. 그에 반해 최영년은 가곡창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평조, 남창시조 등 다양한 곡조를 기반으로 창작하였고 그 결과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창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10년대 시조의 형식은 곡조와 더불어 다양하게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었다.

#### IV. 고시조 품격 계승과 현대적 서정성

앞 장에서 최남선과 최영년이 선택한 시조의 형식적 기반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 장에서는 이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시조의 주제의식과 표현방법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남선에 대한 논의는 서론에서도 밝힌 바처럼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고, 필자의 견해도 선행 연구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본 장에서는 최영년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남선의 작품과 비교·고찰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靑天에 쓴더달아 술잡고 한번물어보자  
 今人不見古時月인디 今月曾經照古人을

아마도, 今月이 古時月이니 千古不變

天嘯子曰 下一章青蓮之所未發

— <青天月 (平調)> (『新文界』, 1권 8호, 1913. 11.)

위 작품은 최영년의 작품으로 <青天月>이라는 제목 옆에 ‘平調’임을 부기하고 있다. 종장의 형식을 참고하면 가곡창의 형식을 바탕으로 창작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문에 실린 작품이 시조창을 기반으로 민요나 타령 등을 차용하여 주로 창작되었다면, 위 작품은 가곡창을 기반으로 한시 중 여러 문인들에게 회자되던 이백의 <把酒問月><sup>9)</sup>을 차용하여 창작하였다. <과주문월> 중 “今人不見古時月 今月曾經照古人(지금 사람은 옛 달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 달은 일찍이 옛사람을 비추었다네)”라는 구절은 한학을 공부한 이라면 흔히 외우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었다. 이백의 한시 중 유명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백 작품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은 자신의 작품에 예술적 품격을 깊이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9) 전관수, 『한시작가작품사전』, 국학자료원, 2010.

青天有月來幾時 我今停杯一問之  
人攀明月不可得 月行却與人相隨  
皎如飛鏡臨丹闕 綠煙滅盡清輝發  
但見宵從海上來 寧知曉向雲間沒  
白兔搗藥秋復春 姮娥孤棲與誰隣  
今人不見古時月 今月曾經照古人  
古人今人若流水 共看明月皆如此  
唯願當歌對酒時 月光長照金樽裏

하늘에 달 있는지 그 언제부터던가, 나 이제 술잔 멈추고 달에게 묻노라.

사람은 저 달 그러잡을 수 없지만, 달은 도리어 사람을 따르는구나.

환하게 밝기는 나는 거울이 단결에 임한 듯, 푸른 운에 견히니 맑은 빛 뿜어내네.

다만 저녁에 바다 위로 솟아남만 보았는데, 새벽에 구름 사이로 잠기는 걸 어찌 알았으리.

흰 토끼는 사철 약 방아 찧고, 향아 선녀는 외로이 살며 뉘와 이웃하는가.

지금 사람들 옛날의 달 못 보았지만, 지금 저 달은 일찍이 옛 사람들을 비쳤겠고,

옛 사람 금세 사람 흐르는 물 같지만, 밝은 달 보며 느끼기는 이와 다름없으리.

오직 바라노니 노래하고 술 마시며 놀 때, 달빛이여 술항아리 속까지 오래 비추어라.

종장에 “아마도, 금월이 고시월이니 천고불변”이라 하여 지금의 달이 옛 달이니 달의 변함없음을 감탄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백의 작품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오직 바라노니 노래하고 술 마시며 놀 때, 달빛이여 술향아리 속까지 오래 비추어라”라고 하여 풍류를 즐길 때에 늘 달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였다. 종장의 내용은 바로 이백의 한시 마지막 구절에 대한 답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의 달이나 옛 달이나 동일하기에 달은 변치 않고 화자와 늘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작품 뒤에는 간단한 비평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위의 작품을 음미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특이점이 있다. ‘천소자’는 이 작품을 두고 “아래 한 장이 이청연의 표현하지 못한 바”라고 평하였다. 이청연은 이백을 두고 이름이다. 종장의 마지막 장이 이백이 말하지 않았던 바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 이백 작품과 차별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비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백의 〈과주연월〉을 환기시키면서 〈청천월〉을 감상하는데 훨씬 더 깊게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찢다 달이 찢다 눈다썩든 달 이제 찢다  
그리말도 만흐더니 三五夜되니 열는 찢다  
이後 淸涼 허스苦待말고 날꿈기만

銀河水가 瀑布되면 水力電氣 닐희키고  
太陽熱이 힘이되면 發動機라도 놀니련만는  
只수에 들다 못하니 그째더더여

— <째의 불으지심> 중 1, 2수(『소년』, 3권 8호, 1910. 8.)

위 작품은 『소년』지에 실린 작품으로 총 5수의 연시조이다. 첫 수에서는 ‘달’을 소재로 하여 달이 뜨기를 고대했던 심정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에서는 은하수가 폭포가 되면 수력전기를 일으키고 태양열이 발동기라도 돌리겠다만 지금은 그 두 가지다 이루지 못하는 ‘때’임을 아쉬워하고 있다. 여기서 “그째더디여”라는 종장의 종구를 통해 ‘때의 중요성’, 즉 현대 과학적 지식의 도입과 필요성을 인식한 최남선의 근대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최남선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한시와 관련된 배경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수력전기’, ‘발동기’ 등 근대 지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근대 지식 개념어나 낯선 어휘를 활용한 것은 김윤희 지적대로 “창작 의식의 기저에서 발현되고 있는 조선심이 근대화된 미래로 구체화되면서 발생한 현상”<sup>10)</sup>으로 이해가 된다. 달리 말하면 최남선의 작품에는 문학적 심미감보다는 과학기술의 필요성이라는 계몽성만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님이 거기 계시다하니 뵈으려면 가올거시  
 님이 거긔한계셔도 가보아야 아올거시  
 그리는 그님이시니 아니가고 어이리

— <님> 중 두 번째 수(『靑春』 1호, 1914. 10.)

위 작품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님이 거기에 있다면 뵈러 반드시 갈 것이고, 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여도 가보아야 계신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며 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총 3수로 이루어진 위 작품은 연시조 형태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이 작품 전체에서는 생경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한자어도 없이 순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다. <째의 불으지심>과 달리 이 작품은 개인의 서정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작품과 유사한 주제 의식을 가진 고시조를 비교했을 때 표현적인 측면에서 문학성이 우

10) 김윤희, 위의 글, 311쪽.

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소년』지 대부분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 계몽성과는 다른 개인적 서정성이 부각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sup>11)</sup>

萬壘山中 구름이 자저 진곳에。

곳광이 메고 도롱이 입고 藥리는져 老人。

그 藥을 키야 世上 사람의 목숨을 이어 長生不死케 呼라는가

그 藥을 키야 精神이 清明 知識이 發越하야 온갖 事業을 呼게 呼라는가。

우리는. 이 藥을 키야 世上 사람의 廉耻도 모르고 德義도 모르고 다만 불꽃치이어나는, 利慾心을 窺치라하오

自解曰 善哉採藥翁也 意甚切於普濟然未知能窒人之慾者 果何物也 寧有不老之肉芝廣智之 遠志 未必有窒慾之一藥也

— <採藥翁> 男唱時調(『新文界』 2권 5호, 1914. 5)

위의 작품은 최영년 작품으로 ‘남창시조’를 형식적 기반으로 하여 창작한 사설시조이다. ‘채약옹’은 조수삼의 『추재기이』에 나오는 이야기로 강원도 어느 산골마을에 남씨 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는데 약초를 캐어서 늙은 형수를 봉양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노인이 형수를 봉양한 것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수가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한다. 형수가 돌아가시자 삼년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형수가 생전에 좋아했던 연어알을 반드시 올려 그 정성을 다 했다고 한다. 최영년은 약초를 캐는 노인을 소재로 하여 약을 캐는 이유가 장생불사를 위함인지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知識이 發越하야 온갖 事業”, 즉 새로운 근대적 지식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함이냐며 의문을 제시하고는 세상의 도리를 다하자는 유교적인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최영년은 최남선과는 달리 근대적 지식을 통한 신학문보다는 유교적인 덕

11) 윤영실(『최남선의 근대 '문학'관념 형성과 고전 '문학'의 수렴』, 『국어국문학』 150, 2008, 474쪽.)은 최남선이 시조를 ‘개인 내면 감정의 발로’라고 하는 서정시 일반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목을 중시하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남선과 최영년은 동시대 인물로 공통적으로 시조를 창작하였으나 선택한 시조의 형식은 달랐고 그들이 지향하는 시조의 작품세계도 달랐다. 최남선은 『소년』지의 시조 작품에서는 근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어를 중심으로 창작하였고 지향하는 주제의식도 계몽적이었다. 『청춘』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몽성보다는 서정성이 중시되었으나 수사법이나 표현면에 있어서 평이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반면 최영년은 한시, 고사 등을 이용하여 시조를 창작하였고 주제의식은 유교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최영년의 이러한 문학 적 창작 기법은 대중적인 문화로 향유되었던 시조를 다시 고급문화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작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V. 결론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00년대 시조 대중화는 조선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근대라는 공간에서의 가곡은 다른 민속 장르와 외래가요와의 경쟁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상당한 위축”<sup>12)</sup>이 되었던 것이다. 시조를 기생들이나 부르는 저급한 문화로 인식하는 부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1900년대 후반 시조에 대한 인식은 지방에서나 부르는 구시대의 산물로 저급문화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근대 지식인들은 개화기에 서구의 문물과 가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기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은 조선적인 것으로 부정된다.<sup>13)</sup> 이들의 관점으로 보는 시조, 특히 고시조는 음풍농월, 안분지족 등 시대와 맞지 않는 주제의식

12) 신경숙, 「근대초기 가곡 교습 - 초기 조선정악전습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연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214쪽.

13) 배개화, 『한국문학의 탈식민적 주체성』-이식문학론을 넘어, 창비, 2009, 54쪽.

을 표출하고, 유교적 사상을 담고 있기에 부정된 것이다. 시조는 ‘과거의 것’이었다.

신문 매체를 통해 시조는 고시조처럼 고정된 가사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가진 가사로 변개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겼다. ‘과거의 것’ 그대로는 향유하기 힘들지만 동일한 곡조에 가사만 바꾸어 즉 애국 계몽사상이나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노래를 창작한다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시대 때 시조를 창작한다는 것은 곡조와 가사가 조화를 이루는 ‘성률’ 등 음악적 능력이 정통해야 가능했다면, 1900년대에는 곡조 보다는 의미전달, 즉 주제가 시조의 중요한 요소로 전이된 것으로 시조 창작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근대 지식인 최남선은 시조를 노래로서 ‘성률’에 능통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작품은 노래가 아닌 ‘시’로서 읽을 것을 제안했다. 시조 창작에 노래로서의 특징인 ‘성률’을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소년』지에는 종장의 종구가 생략된 시조창의 형식에 기반을 두고 창작하였지만, 고시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이후 『청춘』지에는 가곡창 중 평조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라졌던 시조의 종장의 종구가 되살아나게 되었고, 시조가 노래로서 가졌던 특징인 음악성·즉흥성·현장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문학으로서 시로서의 창작하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반면 최영년은 시조창작에서 음악을 배제시키지 않았다. 최영년 역시 근대 지식인이었지만 시조는 여전히 노래 문화로서 향유하고 있었다. 최영년은 조선시대 때 지향했던 미의식을 따르고자 유교적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유명한 한시를 차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고시조의 품격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1900년대 대중화되고 통속적으로 향유되었던 시조를 고시조와 같은 품격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0년대 시조는 창작 주체의 변화와 주제

의식의 변화, 표현 기법의 변화를 겪으면서 시대적 변화의 양상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조창·가곡창(고시조), 한시, 설화 등 다양한 장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본격적인 근대문학으로 창작되기 이전 시조는 고시조가 지닌 시대의 변화를 담지할 수 있는 형식적 유연성을 간직하고 있었고, 당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해 내는 문화적 양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소년』

『청춘』

『신문계』

『양춘집』

<가곡개량의 의견>, 『대한매일신보』, 1908.4.10.

<詩歌와 風化>, 『매일신보』, 1911. 6. 21.

이광수, 『백팔번뇌』 <육당과 시조>, 동광, 1926.

최영년, <고금가요의 연혁>, 『조선문예』 1호, 조선문예사. 1917.4.

### 2. 참고자료

강혜정,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의 창작 향유 양상」, 『시조학논총』 제52집, 한국시조학회, 2020.

구인모, 「최남선과 국민문학론의 위상」,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연구』, 새문사, 2004.

김윤희, 「잡기 『소년』에 수록된 고시조와 최남선의 창작 시조에 대한 연속적 고찰」, 『한국 시가연구』 제32집, 2012.

김학동,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2009.

박영미, 「최영년 문학론 고찰 - 친일 문학론을 중심으로」,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제22집, 2004.

박을수, 『한국개화기 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배기화, 『한국문학의 탈식민적 주체성』-이식문학론을 넘어, 창비, 2009, 54쪽.

서영희, 「최남선 시가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14호, 민족문학사연구

- 소, 1999.
- 서철원, 「시조사의 편성 과정과 최남선의 시가인식」,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 신경숙, 「근대초기 가곡 교습 - 초기 조선정악전습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연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214쪽.
- 신명란, 「한국 근대 이행기 시조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윤설희, 「1910년대 잡지에 수록된 시조 텍스트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학회 제 87차 정기학술대회발표회집』, 한국시가학회, 2018
- 윤영실, 「최남선의 근대 ‘문학’ 관념 형성과 고전 ‘문학’의 수립」, 『국어국문학』 150, 2008,
- 이상원, 「최영년의 고시조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언어문화회, 『한국언어문학』 제58호, 2006.
- 이형태, 「근대계몽기 시가의 역사의미론적 이해」, 『한국시가연구』 제37집, 한국시가학회, 2014.
- 전관수, 『한시작가작품사전』, 국학자료원, 2010.
-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집, 1938, 415쪽.
- 조혜숙, 「〈대한민보〉시조에 나타난 계몽기 시가의 전환과 대응 양상(1)-매체 변화와 내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 \_\_\_\_\_, 「‘新文’으로 호명된 전통시가의 행방 - 1910년대 잡지 수록 창작시조와 시조비평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58호, 한국고전문학회, 2020.
-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4호, 1998.
- 최진희, 「1910년대 시조의 변화 양상과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 1910년대 최남선과 竹內錄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8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Abstract>

##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hijo in the Early Modern Era

— The Centrality of Choi Nam-sun and Choi Young-nyeon

Bae, Eun-hee(In-Cheon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ourse of the “founder” in the 1910s, and examines the variations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founder.

Choi Nam-sun, a modern intellectual, recognized that he should be good at “the law of nature,” and suggested that his works be read as poems rather than songs. He excluded “Shoritsu” which was a characteristic of poetry from the creation of poetic style. The last chapter of the founder, which had disappeared in the process, was reviv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s songs, such as musicality and improvisation, gradually disappeared, and the idea of creating poems as literature began to emerge.

In addition, Choi Young-nyeon in order to follow the aesthetic sense of the Joseon Dynasty, he borrowed Goshijo and tried to inherit its dignity by borrowing famous Chinese poems. There was an inherent intention to upgrade the status of the founder, which was popularized and enjoyed in the 1900s.

Prior to the start of the Revival Movement, the founder of the 1910s

prepared to adapt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rough changes in creativity, theme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techniques. In this process, it changed while interacting with various genres, such as ancient trial and Chinese poetry. In other words, the founder of the 1910s, before it was created as a full-fledged modern literature, retained flexibility to reflect the changing times of the ancient ancestors and functioned as a cultural style to express the highest value that people of today pursued.

Keywords : Choi Nam-sun, Choi Young-nyeon, Shijo, Shijo Discourse, Poetry, Melody, Word Change, Words Renovation, Gagok, Shijochang.

이 논문은 2022년 1월 6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 양상 연구

## — 박현덕 노동시조를 중심으로

조춘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한 박현덕의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늘의 좌표에서 노동문학을 탐사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노동이 구성한 주체의 삶을 재조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예고하는 노동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물음 등에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체제와 계급 질서의 방조로 추진되었던 이전 시기 산업화의 실상을 성찰해야 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차등화하고 이를 위계의 잣대로 적용해온 자본 본위의 근현대체제와, 이러한 논리에서 배태한 취약계층의 대리 노동의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인간-노동의 관계를 재사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이진경이 논의한 서비스 이코노미로서의 대리 노동 개념을 차용해 문학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현대시조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노동이 갖는 제 의미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2장에서는 근대체제 이후 노동하는 존재로서 조형된 인간 정체성에 대해 탐사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박현덕의 시조에 형상된 대리 노동의 실태를 산업 노동자와 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의 양상으로 고찰하고, 결론에서는 소략하나마 포스트-노동을 위한 성찰을 전개하였다.

주제어: 노동, 대리 노동, 노동자, 박현덕, 시조, 노동시, 노동시조, 산업화, 호모 라보란스, 4차 산업혁명, 포스트-노동

\* 부산대학교 강사.

## I. 서론 : 노동의 의미와 노동문학

4차 산업혁명<sup>1)</sup>과 함께 인간과 노동의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본격적으로 구성된 노동의 유무나 노동 수행능력에 따른 적합 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잣대가 노동이 부재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의 질량이 결정해온 존재론에 대한 재탐색이 요청된다. 산업화 시기 인류는 대량생산을 지향하는 자동화를 거치면서 기계와의 일자리 공조와 경쟁을 경험했으며, 다양한 역할 변화와 능력 향상을 모색해 왔음에도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가중할 것으로 예견된다. 빅데이터가 선도하는 산업의 변화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로봇, 복제인간 등 포스트 휴먼의 도래에 대한 기대나 우려 또한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간의 성취나 수행을 기계·기술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변화는 이미 당면한 문제로 사유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구성해온 인간과 노동의 관계를 전복하고 종래에는 사회질서의 재구축을 요청한다. 즉 노동으로 구성되어온 인간 주체를 어떻게 재규정할지,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요건은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복수의 물음을 야기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과 인간의 관계 변화는 불가피하며, 긴밀했던 두 정체의 의미나 역할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사회적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 시기 공고하게 구성된 인간과 노동의

---

1) 1, 2차 산업혁명이 오늘날 인류의 편익을 실현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명을 성취했다. 다시 과학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명명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등 거대한 디지털로의 전환과 근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점철된 명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차용하도록 한다.

관계를 현시한다. 노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 왔으며, 근·현대 노동담론은 노동력을 상실한 인간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상술했듯이 로봇-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로 인해 인간 주체를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고 정의할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인간의 요건을 구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의 가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산업화 시기의 노동 현장을 재호출하는 것은 무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간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주체를 조형해 왔으며, 대리 노동에 내재한 폭력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실태에 대해 탐색한다면 이 시대 노동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문학의 가장 주요한 위상은 엘리트 계층의 독점적인 문화자본으로 정위해온 문학의 좌표를 해체한다는 데 있다. 알다시피 문학의 ‘고고한’ 정체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구성되면서 배제와 차별을 그 내재적 질서로 삼았다. 문화는 놀이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귀족/자본 계급의) 독점 및 권력화 문제와 결부된다. 가령 “예술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나 우리들은 그 예술과 문화를 알지 못한다.”<sup>2)</sup>는 노동자 시인 최명자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초 여가가 허락되지 않은 계층에게 문화는 향유될 수 없는 산물이었다. 이처럼 문학이 좌정한 문화적 위계는 배타적 권위의식으로 구축된 문화자본의 독점 문제와 연관된다. 때문에 노동자의 리터러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쟁투의 산물로 정위한다. 물론 노동자 문학과 달리 노동문학의 경우 작가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직접 경험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층위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으나, 노동(자)에 주목하는 노동문학의 주제적 측면만으로도 기왕의 문학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일반론을 횡단한다는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즉 노동문학은 문학에 투영된 향유계급의 특수화 혹은 ‘만들어진 권위’에

2) 최명자, 「후기」, 『우리들 소원』, 풀빛, 1985, 137쪽.

대항하면서 문학을 다수자의 생활 자체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노동 투쟁사와 그것을 형상한 노동/노동자 문학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에 노동시 일반에 대한 탐색과 백무산, 박노해 등 개별 작가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끝으로 당대 여성 노동자의 시적 성취 등 세 범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 전반의 정치성에 주목한 경우로 박수빈은 80년대 “노동문학의 정의를 통해 문학의 ‘정치적’ 역할과 문학과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당대 연구자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문학의 ‘창작’ 행위 자체를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이 획득되는 과정”<sup>3)</sup>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난희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입각해 80년대 노동시에 대해 고찰하였다. “헤테로크로닉은 기존 질서에 전복과 균열과 해체를 가”(11쪽)한다고 전제한 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등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저항”(13쪽) 등 노동시에 형성된 헤테로크로닉의 양상을 독해하였다.<sup>4)</sup>

둘째, 개별 작가론을 중심으로 그 시적 성취와 노동자 문학의 의의를 탐사한 연구로 김나현은 백무산, 박노해 등의 노동시를 대상으로 “80년대야말로 시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치열하게 물었던 시대였”(88쪽)으나 그동안 노동문학에 대한 탐색은 “언제나 ‘노동/문학’”(92쪽)으로 대립되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당대 “노동시의 언어 형식을 에크프라시스”(101쪽)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살아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정치적인 것의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았다.<sup>5)</sup> 또 오윤정은 80년대 노동시의 형식미학, 특히 “구술성”의 언어와 ‘육체’라는 알레고리의 문제”(400쪽)로 노동시의 정치성을 언어 및 시적

3)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37, 상허학회, 2013, 165~166쪽.

4) 김난희, 「1980년대 노동시에 나타난 헤테로크로닉(hétérochronie)의 양상」, 『기호학 연구』59, 한국기호학회, 2019, 7~38쪽.

5) 김나현, 「노동시의 상상과 에크프라시스」, 『비교한국학』22(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85~113쪽.

수사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sup>6)</sup>

셋째, 여성 노동자의 문학적 성취나 노동실태를 고찰한 경우로, 전자는 박지영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70~80년대 여성 노동자 시인의 출현이 종래 시적인 것에 함의된 정치성을 횡단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의 시 쓰기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즉 “그간 시는 뭔가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천재성의 소유자들, 혹은 풍부한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여겨지던 문학 창작관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소위 서발턴들의 반란의 장소<sup>7)</sup>로 재정위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후자의 경우는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가 처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추적한 정찬일과 김원의 연구로, 먼저 정찬일은 식민지부터 산업화 시기까지의 여성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탐색한 바 있다.<sup>8)</sup> 김원 역시 산업화 시기의 미시사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의 문제를 탐사하였다. 그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사료를 통해 당대 여성 노동이 구성되는 방식과 미시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어진 연구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에서는 산업화 시기의 거시사와 미시사를 종합단하며 서발턴들의 기억과 사건을 중심으로 민중사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9)</sup>

이처럼 노동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나, 시조의 경우 장르적 가치와 의미, 즉 정형시라는 특수성과 우리 고유의 시문학이라는 역사성 등에도 불구하고 현대문학 영역에서 연구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때

6) 오윤정, 「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과 시적 수사」, 『한국문학논총』87, 한국문화회, 2021, 399~429쪽.

7) 박지영,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시에 나타난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시학연구』53, 한국시학회, 2018, 41쪽.

8) 정찬일, 『삼순이』, 책과함께, 2019.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이라는 부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랜 기간 여성 노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국가폭력에 희생되어 왔다.

9) 김 원, 『여공1970』, 이매진, 2006; 김 원,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 현실문화, 2011. 이러한 김원의 문제의식은, 근대와 산업화 시기 문학에 재현된 여공의 형상을 추적한 루스 배러클러프의 『여공문학』(김원·노지승 옮김, 후마니타스, 2017)의 성취나 가부장제 가족담론과 여성혐오의 양상을 고찰한 박찬효(『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문에 시조문학이 현대적 장르로 재정위하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는지, 또한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등에 대한 탐색은 담론적 차원에서 유의미하며 시문학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박현덕의 노동시조<sup>10)</sup>는 산업화 시기의 대리 노동 및 노동자의 문제를 형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유한다.

박현덕 시인은 1987년 등단한 이후 첫 번째 시집인 『겨울 삼화』부터 최근 『밤 군산항』에 이르기까지 노동 현장과 노동자의 문제를 형상해 왔다.<sup>11)</sup> 그의 노동시조는 포괄적인 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 이주자와 탈국적 이주노동자 등을 두루 재현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에 대한 박현덕의 시적 발화가 갖는 차별성을 노동시를 대표하는 백무산, 박노해 등과 비교하면, 먼저 백무산과 박노해의 시가 경험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sup>12)</sup> 박현덕의 시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의 언어를 대리하는 성격을 띤다. “내 시조 창작의 방향은 노동자들의 뼈저린 모습,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오월의 상처,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민중들의 울분을” 형상함으로써 “민중 시조”<sup>13)</sup>를 복

10) 이때 노동시조라는 명명은 노동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제의식에 기인한 분류일 뿐이며, 시조 장르의 형식적 변화는 없다.

11) 박현덕 시인은 등단 이후 『겨울 삼화』(시간과공간사, 1994), 『밤길』(태학사, 2001), 『주암댐, 수물지구를 지나며』(고요아침, 2006), 『스쿠터 언니』(문학들, 2010), 『1번 국도』(고요아침, 2012), 『겨울 등광리』(고요아침, 2016), 『야사리 은행나무』(책만드는집, 2017), 『대술에 들다』(이미지북, 2019) 등으로 『밤 군산항』(문학들, 2020) 등 총 9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문학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점,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묘화 등 주제적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에서 그의 시업 전체를 관류하는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도 별도의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역시 그의 텍스트에 주목하지만, 산업화 시기의 대리 노동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상세한 작가론 및 작품 세계 전반을 포괄하는 작품론에 대한 고찰은 다른 지면을 기약한다. 또한 본고에서의 작품 인용은 90년대 이전까지의 노동 환경에 집중하기 위해 선집 형태로 발간된 시집 『밤길』에서 발췌하도록 한다. 해당 시집은 발행 순서로는 두 번째 작품집이지만, 세 번째 시집의 작품까지 수록하고 있다. 다만 『스쿠터 언니』에도 동일 작품을 재수정하여 수록한 경우가 있기에 이를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표기하기로 한다.

12) 물론 백무산과 박노해의 시적 형상 역시 차이를 보인다. 박노해가 사건에 대한 장황한 서사를 전개하는 반면 백무산은 상대적으로 시적 응축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김형수, 「백무산을 소개하는 문예 보고서」(『만국의 노동자여』해설, 실천문학, 2014) 참고.

원하는 데 있다고 천명한 다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 거리를 두고 노동 실태나 노동자의 꺾진 현실을 묘파하고 있다. 즉 80년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로 호소하던 백무산, 박노해의 시적 언어가 함께 분노하고 투쟁할 욕동을 유발했다면, 노동하는 주체/타자들 각자의 사연에 주목하고 이를 재현한 박현덕의 언어는 공감과 위무를 독려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지층에 놓인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차이는 노동투쟁이 일상화되었던 80년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시인’으로 정위했던 백무산, 박노해와 달리 박현덕의 경우에는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시인’으로 좌표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성취한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전개하되, 산업화 시기의 노동 상황을 형상한 박현덕의 노동시조를 통해서 대리 노동의 제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근대체제 이후 노동-주체로서 구성되어온 호모 라보란스의 좌표를 비판적으로 탐사하고, 3장에서는 박현덕의 노동시조를 통해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노동-인간의 새로운 좌표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이는 자본체제의 복합적인 위계가 착종된 ‘노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문적 탐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경에 따르면 산업 노동, 군사 노동, 산업적 성 노동, 군대 성 노동, 이주 산업 노동 등은 사람의 신체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노동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의 군사주의에 입각한 대리 노동의 양상을 띠다고 보았다.<sup>14)</sup>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의 실태에 주목함으로써 제국주의, 국가담론, 가부장제 등이 착종된 자본체제의 폭력성을 확인하고, 노동으로 구성되어온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도 재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3) 박현덕, 「나의 시 나의 시론」, 『시조시학』, 고요아침, 1996.11, 45~48쪽.

14)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참조.

## II. 산업화와 호모 라보란스로서의 정체성

일명 ‘유나바머UNABOMBER(university&airline bomber) 선언문’<sup>15)</sup>은 산업혁명과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재앙이었다고 주장한다. (과격하 테러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제하고,)과학기술의 진보에만 편향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만큼은 경청하게 된다. 찰리 채플린(『모던 타임즈』, 1936)이 풍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은 기계적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을 창출하였다.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대량생산 체제는 경제대국이 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을 부추기고, 산업화를 일종의 국가 이데올로기로까지 격상시켰다. 대다수 국가에서 신분계도는 철폐되었으나, 노동력의 유무나 여하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재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현시하듯이 노동의 질량과 자본 축적의 정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과 빈부는 긴밀하게 연관된다. 노동 격차, 노동수준 등 노동의 위계로 물질적 빈곤이 구성되었어온 것이다. 노동 행위의 결과는 곧 인류 문명으로 정위한다. 한때 문화는 노동하지 않는 유일한 계층이었던 귀족계급(일하지 않아도 유산이 상속되었으며 신분은 세습되었다)에만 허용된 자본이었으며, 외려 노동은 귀족 신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천박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니 산업화 이전 시기까지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구성되지 못했으며(물론 여전히 노동에 부여한 사회적·상징적 가치와 노동자에의 예우는 비례하지 않는다), 신분적 한계나 무능의 요건으로까지 사유되었다. 굳이 찰스 디킨스가<sup>16)</sup> 재현한 서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계

15) ‘유나바머’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테러리스트인 시어도어 존 카킨스키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17년 동안이나 대학교와 공항 등에 우편물 테러를 감행한 인물로, 그가 주요 언론사에 보낸 「산업사회와 미래」라는 글이 ‘유나바머 선언문’으로 불린다. 해당 실화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바 있다(그레그 야타네스 연출, 짐 클레멘트 극본, 『맨헌트 유나바머, MANHUNT UNABOMBER』, 2017.08.01.~09.12. 미국드라마). 산업혁명과 그것이 구성한 사회질서에 대한 그의 과격한 메시지는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예비하는 인류에게 엄중한 책임감을 요청한다.

16) 찰스 디킨스는 『어려운 시절』(김옥수 옮김, 비룡소, 2016)에서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사회상을 자본가

급제도의 부조리와 그것이 야기하는 노동자 계급의 고통, 그리고 다수 계층의 빈곤 문제에 착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분제도가 사라진 근·현대 사회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양산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국민국가와 자본체제의 도래는 노동 주체로서의 국민-만들기에 진력을 다했다. 이때 구성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사회계층 간 격차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며, 노동의 초국적 이동성에 따라 혼종성이 강화되었음에도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혐오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루는 길고 길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다/ 공부도 하고 책도 봐야겠고/ 갈잡은 소리지만 시도 쓰고/ 편지도 써야 하는데/ 내 시간이 하나도 없다/ 쪽두세벽에 일어나 한밤중까지/ 두 눈 부릅뜨고 있으나/ 일해서 돈버는 시간이지/ 여유 있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이 아니다/ ...중 략.../ 내게도 하루 한 시간씩 여유가 생기면/ ...후 략...

— 최명자, 「시간이 없다」 부분<sup>17)</sup>

80년대 버스안내양이었던 노동자 시인 최명자의 언술에서 당대 노동자의 고된 일상과 함께 엘리트 중심의 문화자본에 대한 자의식이 드러난다. “내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서글픈 단언에서 “하루”에 “한 시간”조차 오토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여유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

와 대비된 노동자의 삶을 통해서 재현한 바 있다. 물론 보다 지배적인 서사적 흐름은 “학문을 기계적으로 추구하면서 감정과 정서를 배격하고 이성만 가르”(69쪽)쳐야 한다는, 즉 과학적 지식(구체적 사실)을 추수하는 토마스 그레드그라인드의 신념에서 상상력을 좌악시키는 당대의 담론이 갖는 맹점을 비판하는 데 있겠으나, 노동계급을 천박하고 게으른 존재로 형상하고 그들의 가난과 비극을 게으름의 대가로 인식하는 편협함과 오류 역시 예리하게 포착한다.

17) 최명자, 앞의 시집, 11~14쪽. “수필을 썼으면 했으나 시간이 너무 없고 피곤하여 시를 택했으며 문법도 형식도 모르겠고 다만 우리의 이야기를 간추려 가난하고 힘겨운 이 생활을 이겨 보려 온 힘을 기울였을 뿐”(138쪽)이라는 고백에서 당대 노동자들이 서사가 아닌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연유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노동 환경에 처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쓰기를 통해 감내하기 위해서 ‘쓴다는 사실에서 당대 노동자 문학을 문학성이나 예술성으로 평가하는 한계 또한 재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화 시기 노동자에게 자행된 반인권적인 노동 시간의 강제와 그것에 투영된 국가와 자본의 폭력성을 목도하게 된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한밤중까지”의 긴 시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 “돈버는 시간”에 불과할 뿐이니, 그런 노동자로서 “시”를 쓴다는 것이 “갈잡은 소리”가 되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가에 의한 (고급)문화 독점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시기 만들어진 ‘노동자 신화’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형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는”<sup>18)</sup> 데 있다고 보았던 러셀의 통찰은 주목할 만하다.

아렌트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과 일치하는 활동”이며, “노동의 인간적 조건은 삶 자체”<sup>19)</sup>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근대체제 이후 구상된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로서의 인간 정체성을 단적으로 정의하는 명제이자, 산업화와 함께 공고화된 국민의 요건으로 사유할 수 있다. 아렌트는 노동, 작업, 행위를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노동을 “생명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간의 기초적 활동”으로 보고, “노

18) 버트런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개정판, 송은경 옮김, 사회평론, 2005, 18쪽. 그의 고찰처럼 산업화 이후 인류가 성취한 생산 방식으로 “하루 4시간 노동으로 생활 필수품과 기초 편의재를 확보”(30쪽)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자본편향과 일자리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기본소득제를 논의하는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즉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더불어, 자본에의 독점 욕망을 제도적·인식적 차원에서 적실하게 재구조화해야 하며, 노동소득과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4차 산업혁명 이후를 구상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19)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개정판,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8, 73쪽. 물론 이러한 아렌트의 관점은 AI, 로봇 공학 등이 견인할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질서와 그것이 조형할 인간의 조건과는 이격이 있다. 현 단계 기술이 상상하는 포스트 휴먼의 형상은 종래의 생물학적 요소를 횡단하면서 구성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존에의 절실성과 같은, 필요에 의해 강제된 노동 행위 역시 소거될 것이기에 노동의 숭고함이나 노동 행위를 통한 인간의 존엄을 재단하는 잣대 역시 균열할 것으로 예견된다.

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서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 예속<sup>20)</sup>된다고 보았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노동자일수록 아니말 라보란스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들은 판단력을 갖고 노동하는 주체이자 제작인으로서의 호모 파베르Homo faber와 달리, 고된 일을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아니말 라보란스로 규정된다. 이때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전적으로 사회 조건에 의존<sup>21)</sup>하기 때문에 노동 문제는, 노동 주체인 노동자의 문제와 노동 행위가 구성되는 제반 요건에 대한 고찰을 동시에 요청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는 곧 사회적 존재로서의 주체의 가치와 존엄성을 증거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렇기에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는 빈곤의 문제와 함께 존재의 무용성을 낙인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이런 측면에서 노동은 구성된 문화이며, 노동의 존엄성 역시 만들어진 산물이다. 산업화 이후 노동의 위계는 노동 행위에 대한 정치적 의미 부여나 ‘조형된 예찬’과는 별도로 구성되어왔으며, 노동에 투사된 숭고와 천대의 문제 역시 노동-자의 존엄과 사회적 대우를 결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난만한 논의를 같음하면,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은 박탈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빚지고 있다. 즉 근대적 노동 주체의 도래는 한 사회의 적합-시민이 되기 위한 분투이자,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안간힘들로 공고화되었다.

### Ⅲ. 박현덕 시조에 나타난 대리 노동의 양상

3장에서는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 및 노동자의 문제를 박현덕의 시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2장에서 탐색한 노동 주체로서의 인간 정체성

20) 위의 책, 36쪽.

21) 위의 책, 308쪽.

과 그 양상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조형해온 인간과 노동의 관계를 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박헌덕 시인이 형상하는 노동의 특성이 탈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제국 질서와 미국-되기를 추수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동원된 대리 노동 문제에 착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좌표를 점유한다. 이에 작품의 형식미학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 논의에서는 노동시조라는 담론적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 1. 도시 노동자와 헤테로토피아

노동담론에는 정치·경제·문화 등의 세 문제가 착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위계화된 국가별 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는 세계적 냉전질서와 중첩되며, 이념대립의 대리전인 한국전쟁을 경험한 직후이기에 반공담론이 국시로 좌표하게 된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 만들기가 요청되었으며, ‘박정희 시대’로 대표되는 1961년부터(1963년 대통령에 선출되지만 실질적인 권력 행사는 61년 쿠데타부터 시작된다) 79년까지(물론 80년대 전두환 정권 역시 박정희 시대의 정치·경제 체제와 이상을 계승한다) 국가주도 산업화에 주력하게 된다. 박정희 시대의 군사적 근대화는 미국 중심주의에 기여하는/소모되는 대리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었다. 이 시기 개별 국민의 노동은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되었으나, 정작 노동에 수반되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 주체로서의 국가는 엎혀지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엄혹한 시절의 노동 수행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외려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무력하고 가난한 국가에서 파생된 절대빈곤의 문제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데올로기 등의 복합적인 지층에서 대대적인 동원 노

동으로 구성되었다. 산업 노동, 성 노동 그리고 이주 노동 등을 통해 착취와 차별가능한 생명으로 임의로 배제되어온 죽음정치적 대리 노동의 실태를 탐사함으로써 개인의 노동 문제에 착중된 거대담론의 횡포를 착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화 시기 세습된 가난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리 노동으로 야기된 하위계층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로도 사유된다. 당대 노동은 근대 체제가 조성한 노동 주체로서의 인간 정체성의 요건과 닿아 있기에, 이에 대한 성찰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과 인간, 그리고 사회질서의 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허름한 삼류극장 죽순(竹筍) 같은 청년 보았다 보통이 어께 걸치고 빗속을 달려와 서울행 막차를 탄 채 두메 초집 바라본다// 열일곱 마음 푸른 시대의 생활들 원종일 가위질하며 천을 잘라 나른다 가난은 재봉틀 물결처럼 촘촘하게 꿰매질까// 평화시장 거리는 종합병원의 영안실 공장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 엄습하고 다락방 코피 쏟으며 졸리운 눈 비빈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 ·3 - 전태일 생각」 부분

빗방울이 얼굴 때린다 만장도 훌쩍거리고/ 장의차에 실려진 소년의 마지막 모습/ 모두들 회사 정문에서 노제를 지켜 본다// 온도계부 수는 주입실 굵은 가래 내뿜으며/ 희뿌연 연기가 빠져나가는 잠깐 동안/ 뜨끈한 사거리 국밥집과 야학 교실을 떠올린다// 일요일 아침 철야하고 예배당 가는 길/ 신나 취해 가랑잎처럼 흔들흔들 걸어간/ 소년의 축 치진 어깨 성경이 끼어 있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 ·8 - 문송면 군(君)을 기억함」 부분

근대의 도래는 공간을 중첩단하는 기차의 운동성과 이동성을 통해서 가속되며, 이때 기차역을 점령한 시계탑의 위용은 근대체제, 즉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기계적 인간의 조형을 표상한다. 국가에 의한 시간 통제는 국민을 규율하기 위한 폭력의 일환이며, 기계-시간에 따라 작동하는 인간 유형을 창출하

기에 이른다. 노동시간의 강제, 임금 체불, 그리고 시간운용의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시간은 곧 투쟁의 요인이 된다. 출/퇴근, 특근, 야근 등 시간의 통제는 자본의 논리가 노동자의 삶을 장악하는 방식을 대변한다. 가령 노동자의 “교대근무”(「밤길 - 공단(工團)을 나서며」)를 통해 공장 기계를 쉼 없이 작동시킴으로써 생산성(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로 인해 생체 시간은 철저하게 억압되며, 인간의 신체 기능마저 조종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백무산 시인이 “서서 쓴 것들”<sup>22)</sup>로 호명했던 시업의 가치를 새삼 가늠할 수 있다.

“공장은 감옥이다”(「우린 풀꽃이다 · 1」, 『스쿠터 언니』)라는 시인의 선언처럼 공장이라는 장소성은 산업 노동자의 존엄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 80년대 도시 노동자는 전태일의 후예들로, 신체 훼손과 생명 위협 등의 죽음정치적 노동 현장에 유기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태일은 60년대 “평화시장”의 10대 재단사였다. “두메” 산골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나 “열일곱”에 상경한 그는 부당한 노동실태에 항거·분신한 70년대의 사건 이래 노동자의 표상으로 정위하게 된다. 그 시대 “시다”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처우 문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공론화되며, 이름 없는 노동자는 죽어서야 자신의 이름을 각인한다. “충북 서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문송면 군”의 서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독해할 수 있다. 해당 작품에는 15세 중학생 신분으로 “압력계와 온도계를 만드는 협성계공(주)에 입사”했으나, “수은중독 및 유기용제(신나)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쳤다는 부연이 붙어 있다.<sup>23)</sup> 이들 10대 노동자의 죽음에

22) 백무산, 앞의 시집, 215쪽. “옳은 시 한 편이 우리에게 닥친 싸움의 총체적 인식 수단으로써 작은 의미나마 지닌다면 한번 제대로 쓰고 싶다”는 다짐에서 시의 정치성에 주목한 그의 시적 지향을 독해할 수 있다.

23) “1988년 야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영등포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중학생 문송면”(6쪽)은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 죽음을 맞는다. 이러한 비극은 (2018년 노동일 기준) “하루에 8.6명씩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119쪽)에서 현재형의 사건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기획,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포도밭, 2021)

서 산업화가 방기한 비극을 목도할 수 있다. 빈곤은 아이의 이른 어른-되기를 종용하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생계형 노동으로 내몬다. 주지하듯이 50년대 이후의 상경 서사는 산업화와 가족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가난이 방조한 '어린 가장'의 출현은 이들을 '산업역군'으로 양성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칭송한 국가적 차원의 동조가 합세하면서 9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때 산업역군이라는 수식 또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 국가의 무책임과 면피에 불과하다.

절박한 노동이 빈곤에서 배태했다는 점에서 대리 노동과 빈곤은 불화와 부조리 속에서 악순환을 거듭한다. 노동을 통한 소득창출이 빈곤을 타개하는 데 기여해야 함에도, 많은 경우 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한다. 외려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수시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들 가족들의 삶마저 항상적 위기상태로 전락시킨다. 게다가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가능한 육체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거나 보다 열악한 노동상황과 조건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상술했듯이 산업화 시기, 어린 노동자의 양산은 가난한 가족 공동체와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로 이루어졌다. 식모, 공장 노동자 등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빈곤 계층 자녀들의 노동력은 자본계층에 의해 독점되고 그들에 의해 강탈당한다. 그런 점에서 10대 노동자의 비극은 경제적으로 무력한 부모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한 국가의 방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물론 자본체제의 계급화와 차별적·수직적 위계화가 무력한 부모를 양산하고 무한 증식시킨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산업화 이후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산업)노동은 숭고한 것으로 정치화되었으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노동자의 신체 훼손과 사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협과 공포의 대상으로 고착되었다.

도시가 흰히 보이는 월산동 맨폭대기/ 붕어빵 리어카에 가득 실린 살림들/ 내리막 골목  
한참 돌아 소방도로 나온다/ 몇몇 이웃 개척교회로 발걸음 재촉하고/ 가운데 방 목수 김씨

공사장 바빠 간다/ 이사길 눈인사마다 여직 취기가 남았다

— 「이사」 부분

용접공 천씨가 주린 배에 술을 붓는다 시퍼런 칼에 덩강 목 달아날 줄 모른다며 불 꺼진 현장 구석에서 쥐처럼 발발 댄다.// 스물셋에 자동차 부품공장 입사해 기름밥 눈치밥 꾸역꾸역 먹은 천씨 이제는 선 고개인데 눈발이 등을 후려친다.// 자식들 등록금 때문에 타이밍 먹고 헛몸 헛정신으로 철야를 하던 털보 아재 퇴근길 튀김집 막소주로 언 가슴을 녹였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 2」 부분

고향이라는 장소성은 유년의 기억과 가족 공동체의 연대를 추상화한다. 이 때 사실적 시간은 분절되고 조형된 시간-기억이 공간의 독특한 의미를 생성하는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집은 고향 상실을 극복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이상이 투영된 헤테로토피아로 작용한다.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란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그 안에 제도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유토피아가 “모든 장소 바깥에 있는 장소”라면,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위상을 점유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sup>24)</sup>다. 즉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적 장소라는 점에서 사유재산으로서의 집은 정서적 유토피아를 상실한 도시 이주민에게 일종의 감정적 전이를 기대할 수 있는 대체재로 작용한다. 노동 이주는 고향이라는 장소로부터 탈주를 의미하며, 새로운 영토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집을 가공함으로써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대다수 도시 노동자에게 고향은 무수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의 현신으로 상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빈곤, 가족 이데올로기 등 그들의 존엄과 개별 존재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건들이 점철되어 있음에도 귀환할 이상적 장소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사」에서는 이름(존재의 고유성)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찢긴 삶의 풍경

24)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13쪽; 29쪽; 12쪽.

이 형성된다. “목수 김씨”나 “용접공 천씨”처럼 이름 없이 직업-성으로만 호명된다는 데서 직업/노동이 구성하는 정체성을 현시하며, 이에 따라 존엄성조차 위계화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산비탈”과 “판잣집”을 벗어나는 여정에서 소시민의 유일한 희망이자 욕망인 내 집 마련의 성취가 야기하는 복합적인 심사를 독해할 수 있다. 달동네라는 장소성에 응축된 주변부인으로서의 이주자의 정체성은 도시의 화려한 정경과 대조되고, 이를 통해서 자본격차에 따른 계급 불평등의 양상이 가시화된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달동네 혹은 산동네의 공간은 분명 도시의 일부이지만, 되레 차별을 구상하는 지표로 작동한다. “이사”는 “월산동 맨 꼭대기”에서 “마음의 흉터”를 새기며 인내한 지난 삶에 대한 보상이나,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장”으로 일 나가는 “목수 김씨”나 “스물셋에 자동차 부품공장”에 입사해 이제는 “썬”이 된 “용접공 천씨”에게는 여전히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집은 실현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동의 용이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아파트 로얄층과 달리, “맨 꼭대기” 산비탈의 장소성은 물질적 성공을 표상하는 도시적 공간과는 괴리된다. 그런 점에서 산동네의 판잣집이 아니라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표상하는 도심의 집만이 헤테로토피아로 구성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화 시기 좌절된 헤테로토피아의 열망들이 2000년대 “영등포 쪽방촌”(『스쿠터 언니』)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 폐지 줍는 노인, 병에 걸린 노파, 무녀, 실업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공사장 인부 등 이들 대다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낸 산업화가 남긴 잔여물처럼 “교도소 독방”(『폭염 - 영등포 쪽방촌12』, 『스쿠터 언니』) 같은 쪽방촌에 유폐되었다. 한때 상경에 투사되었던 삶에의 의지와 희망마저 박제되었다는 점에서 달동네와 마찬가지로 ‘쪽방촌’ 역시 도심 속 헤테로토피아들 사이에 낀 반역과 추방의 영토랄 수 있겠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은 중산층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추동한다. 자본 불평등이 야기하는 차별의 정치학은 소시민의 중산층-되기를 최상의 가치로

격상시키고, 국가에 의한 “중산층 육성론”<sup>25)</sup>이 대두되기에 이른다. 집, 차 등 물질적 소유에 대한 자극과 환상은 노동을 감내하고 보다 전투적으로 경제활동에 몰입하도록 종용한다. 이처럼 도시 노동자에게 집이 헤테로토피아인 것은 그들 대다수가 이주자로서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물론 집으로 표상된 노동자의 욕망은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허가해줄 장치로 사유되며, 이산된 가족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투영된다. 결국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집은 자본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용인한 통제 장치의 일환이자, 상실한 이름 찾기를 욕망하는 분투라 하겠다.

## 2. 자본주의적 제국 질서와 성 노동자

현대인에게 노동에의 성실성과 성취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환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존엄의 대상이 노동 행위로 전이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목도하게 된다.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sup>26)</sup>에 주목해야 한다는 울프의 성찰은 자산을 보유·소유할 수 없었던 당대 여성 주체와 연관된 견해이지만, 이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창의적 활동의 가능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재독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양산은 종래의 가부장제를 파열하고, 여성 스스로 경제 주체로 좌절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대다수 딸들의 삶은 가부장제를 위시한 가족 이데올로기와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희생양으로 구성되고 만다. 식모, 여공, 버스안내양 그리고 성 노동자 등으로의 이행에서 산업화 시기 취약계층 여성들의 좌절과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여성 노동자들

25) 이상록,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130, 한국사학회, 2018, 292쪽.

26)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에 옮김, 민음사, 2016, 64쪽.

의 인권은 가족 및 국가 담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소유와 사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노동력 착취, 혹은 폭력의 대상으로 함부로 다뤄지거나, 어머니와 누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접(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성을 의심하거나 단속해야 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sup>27)</sup>되었다. 또한 “국가는 여성노동자들을 산업전사로 호명했지만 최종적인 존재 근거는 모성 그리고 가족이어야 한다는 성별분업”<sup>28)</sup>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순결’을 상실하고 ‘정상’ 가족 내 모성성의 발현에서도 탈각된 성 노동 여성들은 부적격 구성원으로 낙인되었으며,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을 겪어야 했다.

마리아 미즈는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여성 착취와 억압의 역사적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면, 자본주의 개념은 현재적 징후들, 혹은 이 체제의 최근 발전을 표현한다”<sup>29)</sup>고 보았다. 여성을 향한 폭력과 억압은 “남성(아버지, 형제, 남편, 포주, 아들), 가부장적 가족, 국가, 자본가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sup>30)</sup>의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고 구성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가 구상하고 실행한 성장주의는 약소국/식민지에 대한 예속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 중심주의의 전 세계적 확대와 공고화의 산물인 미군에 의한 “자본과 군대와 아시아 여성에 대한

27) 김효은, 「1980년대 시에 나타난 미소지니(misogyny) 양상 연구」, 『동악어문학』79, 동악어문학회, 2019, 81쪽.

28) 김원, 앞의 책, 2006, 318쪽.

29)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110쪽. 그는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110쪽)고 보았으며, 때문에 오늘의 “페미니즘은 남녀관계를 비롯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 중심부와 식민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관계들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111쪽)고 역설한다.

30) 위의 책, 310쪽. 마리아 미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압적인 노동관계를 통해 여성 노동을 갈취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때 “폭력은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363쪽)으로 사유하였다. 이는 최명자 등 산업화 시기(물론 불행하게도 이는 산업화 시기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손쉽게 증명된다.

성착취”<sup>31)</sup>가 기획되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자원과 지원 및 방조로 군대 성 노동이 산업화되는 양상으로 진화한다.

탐조등 불빛 아래 나지막이 엮드린 거리/ 어등산 송전탑 부엉이처럼 눈을 껌벅/ 클럽 앞 스물 안팎의 여자에 울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대공초소에서 바라본/ 용보촌은 반도의 강아지풀이 터 잡아/ 뽕뽕일 인당수에 던져 가족 먹여 살린다

— 「송정리 시편(詩篇)·4 - 용보촌\* 그 거리를 생각함」 부분

\*용보촌 :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술집 거리

새벽 두 시/ 포장마차/ 오랭국물 마시는 여자// 살짝 드러난 가슴에서/ 달려 몇 장/ 꺼내 쟀다// 여원 밤/ 식민지 하늘은/ 술에 취해/ 멧들었다

— 「송정리詩篇·11」(『스쿠터 언니』 전문

시집 『스쿠터 언니』에는 이전 시집에 수록했던 작품들을 일부 수정하여 재 수록하고 있다. 가령 「송정리 시편·4」의 경우 “뽕뽕일 인당수에 던져 가족 먹여 살린다”는 종장이 “밤마다 끈적한 몸짓으로 미군들을 유혹한다”는 구절로 수정된다. 전자가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다면, 수정된 내용에서는 제국과 식민의 논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송정리 용보촌의 장소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희생되는 딸들을 표상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주의에 투항하고 이에 합세한 제국과 식민의 위계를 대변한다. “달려 몇 장”에 침묵 당하고 마는 “스물 안팎의 여자에”들의 삶에서 무력한 “식민지 하늘”과 마주하게 된다. 광주 송정리는 “1964년 공군 제1 전투비행장이 설치되고-현재는 철수함- 용보촌 1003번지에는 윤락가가 형성”<sup>32)</sup>되었다. 기지촌은 “탈영토화된 이중적인 디아스포라의 공간”<sup>33)</sup>으로 “한국의 영토이면서도 인종주의화된 게토”<sup>34)</sup>와도 분

31) 위의 책, 299쪽.

32) 조춘희, 「노동하는 사람들」,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 산지니, 2011, 128쪽.

33) 이진경, 앞의 책, 16쪽.

리되어 자국 내에서도 성 노동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않는다. 전 세계적인 냉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공담론을 강화했으며, 한국에서도 군사적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성 노동 여성의 신체는 힘/자본에 의해 언제든지 '점령' 가능한 침략의 대상으로 좌표하고 만다.

송정리 앞 1003번지/ 맨몸으로 버티는// 방직공장/ 그만 둔/ 스물넷/ 언니가 산다// 밤마다 / 환장하게 피어/ 쪽방 밝힐/ 자궁꽃.

— 「송정리 시편(詩篇)·1」 전문

빗방울 후두둑 옥탑방을 때린다 밤의 시장 흰히 보이는 감옥에서 노파가 산다 원종일 작 부들 빨래하며 간경화를 버틴다// 유곽의 거친 들판 쾅쾅 개처럼 헤매다 더 이상 갈 곳 없어 햇살에 이끌려 작부는 곱추 아들 데리고 송정리로 다시 왔다

— 「송정리詩篇·12」(『스쿠터 언니』) 부분

산업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진 중층적인 인권침해의 실태는 이들을 보다 폭력적인 성 노동으로 내모는 계기가 된다. “방직공장”<sup>35)</sup>에 다니다가 “송정리”로 흘러든 “스물넷” 여자의 삶은 근·현대사의 비극으로 추인된다. 방직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나 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추행 및 성폭력의 일상화에서 보다 심각하게 목도된다. 『영자의 전성시대』(조선작, 1973)와 같은 상경서사에서도 발견되듯이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거쳐 사창가로 유입되는 영자의 여정은 하층민 여성에게 가해진 다중 폭력을 차목케 한다. 송정리의 “언니”들과 영자‘들’의 노동서사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정책과 함께 가족담론과도 닿아 있다. 이들은 강제적 혹은 (빈곤과 억압적 굴레가 예시하듯 제도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에서는

34) 위의 책, 24쪽.

35) 시집 『스쿠터 언니』에서는 “방직공장” 대신 “퇴폐 이용원”으로 수정된다.

비자발적인)자발적 요인에 따라 고향을 이탈한다. “성 노동은 매춘부의 신체와 정신의 은유적 훼손이나 죽음을 포함”<sup>36)</sup>하기에 “용보춘”으로의 유입은 그들의 존엄을 잔취한다. “희망이 바닥 날 때까지 껌을 씹는 여자들”(「송정리 시편(詩篇)·8」)이나 “극약 먹고 죽”은 “영혼”(「송정리 시편(詩篇)·6」)들까지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조형하며, “밤의 시장”을 떠났던 “작부”마저 세상 어느 곳에도 위탁할 수 없어서 “송정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산업화의 외상은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뿐 아니라 삶 전체에 오롯이 각인된 것이다. 가난한 여자 아이는 폭력적인 성산업에 내몰린 채,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로만 소모되고, 사회 시스템과 가족 이데올로기의 방조로 이와 같은 개인의 비극은 철저히 묵인된다.

이진경의 정확한 분석처럼 “신체와 생명을 상품화하는 대리 노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정치적 노동이 되며, 반대로 죽음정치적 위험을 지닌 노동은 (인종, 젠더, 계급에서) 낮은 층위의 존재가 그것을 대신하는 대리 노동”<sup>37)</sup>의 양상을 띤다. 이때 죽음정치적 노동이란 “대리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양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는 “마치 상품이나 소모품처럼 권력에게 생명의 처분을”<sup>38)</sup> 양도한 채 차별과 불평등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까지 수동화되고 만다. 노동이 곧 죽음 가능성과 연관된 이들 노동자들은 육체적 훼손과 존엄성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위축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성적 권력관계에 좌표한 성 노동자는 사회·경제적 위계 등 구조적 차원에서 강요된 매춘으로 호모 사케르로 전락하고 생계의 절박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당한 폭력상황, 즉 돈과 교환된 죽음 가능성에 방기하게 된다.

36) 이진경, 앞의 책, 10쪽.

37) 위의 책, 11쪽.

38) 위의 책, 9쪽.

### 3. 노동 부재와 이주노동자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 생산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의 축적 정도에 따라 계층화를 조형해 왔다.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으나, 경험하고 있듯이 자본 불평등의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상황 및 유형은 이러한 자본 격차를 조성하는 요인이자, 자본 격차에 의해 특정 계층에 억압적 노동이 강제되기도 한다. 노동을 위해 도시로의 이주뿐 아니라 국경을 횡단하기도 하는데, 대리 노동은 힘의 논리에 입각한 제국 질서에 따라 이동성을 갖는다. 국력의 위계는 대리 노동자의 수입과, 혐오 시설의 외부화를 통해 국경 내부의 안전을 조성함으로써 위협으로부터 자국민 '만'을 지키고자 한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중동 건설노동자 파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이주 노동은 생명과 안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불가피했던 개인들을 국외로 내몰았다. 가난에 의한 고향 및 조국 이탈은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제한 희생의 요건인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탈주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대리 노동에 동원되는 노동자의 신체뿐 아니라 존엄까지 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리 노동은 불평등한 위계에서 조성된다. 자신만의 고유한 헤테로토피아를 조성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박탈된 존재로 조형하는 이들의 탈국적 이동성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예속된 인간 간의 삶을 착목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노동으로부터 탈각된 노동박탈의 상황과 함께 해외 노동 이주의 양상에 대해 탐사하고자 한다.

새벽 네 시/ 모란시장/ 꽃불 주위의 중년들// 무너진 꿈/ 층층 안고/ 봉고를 기다린다//  
어둠 속/ 한 대가리\*를 위해/ 발 구르며/ 담배 뺐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 · 9 - 인력시장에서」 전문

\*한 대가리 : 하루 일거리

양복 차림 사내가 지하철 역사 내려와/ 신문지에 누워서 바바리로 몸을 썬다/ 떨어의 터진  
 감압처럼 사지가 늘어졌다// 물 오른 불혹에 찬 거리로 쫓겨나/ 공원을 서성이다 만화방에서  
 낮잠 때리고/ 해거름 고수부지에 앉아 벼룩시장을 들춘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10」 부분

노동의 시간이 헤테로크로닉이라면<sup>39)</sup> 노동자들은 그런 ‘다른-시간’조차 노동을 위한 재충전에 복무한다. “새벽 네 시” “인력시장”의 “중년들”은 실직 상태다. 그들의 노동 행위는 개인의 존엄이나 “꿈”의 실현이라는 좌표에서 이탈한 지 오래이며,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절박할 따름이다. 생계가 절박한 빈곤층일수록 육체적·정신적으로 억압당하는 노동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산업화 시기의 부산물로 배태된 90년대 IMF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 국가경제와 가계의 절대적 친연성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현시했으며, 이로 인해 종래 노동 주체의 안정된 생활이 박탈당한다. 실직한 “불혹”의 가장은 사회적 잉여로 전락하게 되고 “살벌한 세상” 구석진 자리로 유폐된다. 자본체제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을 사회 부적격자로 구획한다. 실직은 가족에게조차 들기 싫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수렴되며, 이 때문에 온전한 여가, ‘게으름’을 즐기지 못하고 “벼룩시장을 들”추거나 출근할 수 있는 “분주한 아침”을 소망하게 된다. 한 존재의 연대기는 노동에의 쟁투로 구성된다. 때문에 “노동은/ 계속”(「용접·2」, 『스쿠터 언니』)되어야만 한다. 영화 『기생충』(봉준호, 2019)에서 재현하듯 ‘기택네 가족’의 일자리 탈취는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이기까지 하다. 자본주의 경쟁사회는 이러한 불법과 반칙을 묵인하고, 외려 생존력·전투력을 상실한 ‘도덕적 선비’야말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형상한다. 노동부채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조형해온 근대체제의 영향으로 노동으로

39) 김난희, 앞의 논문 참조.

부터 탈각된 주체는 그 존엄성마저 의심받는다. 자본 시스템에서의 노동은 생존 의지와 동의어로 이해되기에 다양한 요인에 의한 실직은 무능력이나 게으름 혹은 건강하지 못한 정신이나 육체에서 기인한 비정상성의 증거로 폄하되고 마는 것이다.

넓은 엘범 사진에 지하 감옥 하나 있다/ 삼천 미터 갱에서 숨겨진 얼굴인 아버지/ 중식 때 샌드위치 먹으며 수통을 들이킨다// 쉽사리 겁히지\* 않는 안개에 포박 당해/ 칠십 년 비행기로 북부 독일 탄광지대를 갔다/ 설운 날 탄차에 기대어 강물 흘러 보냈다// ...중 략...// 매달 가족의 안부와 함께 돈 송금해도/ 늘 빠듯한 제비집 동생들 겨우 대학 가고/ 결국은 아버지 저승길 따라간 저 진폐증.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7」 부분  
\*‘걸히다’의 오기(원문대로)

질척질척 비 내린 날 기숙사 창문 열고/ 가난에 찌든 네팔 치토운을 생각한다/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사진으로 봅니다// 씻가루가 날리는 동굴 같은 작업장/ 프레스에 그만 싹둑 잘려진 중지 한 마디/ 봉합을 할 수 없어서 비닐봉지에 담았다// 취기 오른 구안씨 모종삽 들고 화단으로 가/ 목련나무 밑 눈물과 함께 중지를 묻었다/ 어느 봄 명든 사연 안고 목련은 활짝 필게다// 삼년을 저당잡힌 이 땅, 더러 매 맞고 월급 떼이며/ 사출공장 켓 제조공장 철새처럼 전전하다/ 고향에 마련해둔 집 한 채, 찰진 땅이 아른거린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1 - 불법체류자 네팔인 구안씨(氏), 부분

한족(漢族) 거인/ 그는 길림/ 농투성이 장남이었다// 품 팔러 광주(光州) 하남공단까지 왔다 조립식 기숙사 햇빛이 야근야근 철판 달구듯 정오 내내 열병 앓는다 왕용 별무더기 머리이고 기숙사 문을 여니 한증막이다 전자모기향 켜 여름밤, 탈탈 목디스크 걸린 선풍기 틀어 놓은 채 런닝 차림으로 신라면을 먹는다

—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6 - 중국인 산업 연수생 왕용(王龍), 부분

자국 중심주의와 자본체제의 결탁은 노동의 죽음정치성을 강화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 광산 노동자의 서독 파견은 노동력 해외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다. 탈국적 노동 이주는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동력인 동시에 노동소득이 절실한 개인의 입장에서 선택의 일환이었다. “삼천 미터 갱”의 “지하 감옥” 같은 막장에서의 노동은 목숨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존엄성마저 훼손한다. 결국 “북부 독일 탄광지대”에서 70년대를 버티낸 “아버지”의 삶은 “진폐증”으로 마감한다. 석탄이 주요한 자원이었던 산업화 시기 국내외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은 이러한 진폐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는 “박정희 시기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국가적 지상과제였던 개발모델의 병리현상”<sup>40)</sup>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들의 희생/기여로 오늘날 한국은 하위제국으로 좌표하며, 종래 내국인이 담당했던 대개의 죽음정치적 노동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입한 이주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예컨대 “작업장/ 프레스에” “중지”가 절단된 “구안씨”의 삶은 “고향에 마련해 둔 집 한 채, 찰진 땅”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즉 불법화된 신체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감내했지만, 훼손된 구안씨의 신체는 폐기가능한 생명으로서의 죽음정치적 노동과 노동자의 위상을 여과 없이 대변한다. 이때 불법체류자 구안씨는 박노해의 시 「손 무덤」에서 형상한 바 있는 “36년 한 많은 노동자” “정형”을 대리한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뚝거리는 손을/ 기름 먹은 장갑 속에서 꺼”냈지만, 어떤 “산재”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공장 담벼락 밑에 묻”<sup>41)</sup>어야 했던 정형’들의 사연은 낫설지 않다. 또한 두 작품을 통해 박노해와 박현덕의 시적 형상이 보여주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전자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발화하는 일인칭으로 구성된다면, 후자는 그들을 관찰하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박노해의 시

40) 김원, 앞의 책, 2011, 183쪽.

41) 박노해, 「손 무덤」, 『노동의 새벽』, 해냄, 1997, 83~86쪽. 알다시피 시집 『노동의 새벽』은 1984년(도서출판 풀빛) 첫 발간된 이후 80년대 노동-노동자 문학을 대표한다.

적 발화가 절규하는 노동자의 투쟁적 목소리로 구성되는 반면, 박헌덕의 경우는 객관적 거리를 두고 문제의 요인을 분석하고 공감을 자극하는 데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 · 6」에서 형상한 “광주 하남공단”의 “조립식 기숙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증험하게 된다. 산업 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등은 자본가에 의한 이주 노동자의 억류(여권 압류, 기숙시설 감금 및 통제, 급여의 강제 적립 등)를 용인하고, 이들의 불법체류자화를 방기한다. 이때 기숙사 공간은 노동 이외의 활동은 소거된, 노동과 분리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삶을 표상한다. 산업화 시기 활발하게 조성된 기숙 시설은 노동자의 삶 전체를 노동행위로 치환시키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며, 노동을 위한 상시적인 대기상태는 노동자의 현장 투입을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가)의 논리에 부합한다. 그렇기에 기숙사라는 장소성은 통제의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동력으로만 인간 정체성을 고착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조형된다. 노동은 개인의 경제활동이라는 가치 너머, 사회 혹은 체제의 문제로 사유해야 한다. 아메리칸 드림에 비견되는 코리안 드림은 한국을 “준주변부적 제국 내부로서의 새로운 장소”<sup>42)</sup>로 구성했으나 이주민 주체의 한국 내 재영토화를 위한 트랜스로컬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그간 노동은 쟁투의 산물로 정위해 왔으며, 노동담론은 인간 존엄성에의 예우이자 인간 정체성을 구상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중대하다. 그렇기에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의 실태에 대한 고찰은 오늘의 노동, 나아가 내일의 노동이 구성되는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동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42) 이진경, 앞의 책, 368쪽.

#### IV. 결론 : ‘포스트-노동’의 도래

갈무리하면, 근대 이후 인류는 노동소득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폭력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화 시기 처분가능한 존재로 구획된 대리 노동의 실태와 노동자의 존엄성 문제를 탐사하였다. 노동하는 인간의 조형은 노동 부재 및 박탈로 인한 소외 집단을 구성하고, 노동 여하와 노동의 성질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계급을 조성해왔다. 등단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 및 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해 온 박현덕의 시조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대리 노동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고답적 장르로 낙인·오인되어온 현대시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연구 텍스트로서의 시조문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시조가 구성하는 담론적 고찰의 필요성과 그것이 축적한 문학(사)적 의의를 통해서 오늘의 문학 장르로서의 책무를 적실하게 수행해온 현대시조의 위상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당초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축소 및 재편뿐 아니라 노동 구조와 노동에 함의된 개념적 층위마저 전복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간 노동하는 존재로 구성되어온 인간 정체성의 요건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모색을 위해서는 산업화 시기에 구성된 노동-인간의 실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끝으로 산업화 시기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재현한 텍스트 발굴의 필요성 등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추동되었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망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박현덕의 시조 작품에 형성된 대리 노동의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안위해야 했다. 이에 해당 문제의식을 재검토함으로써 범박하나마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기술과 융합된 포스트 휴먼 시대의 노동을 ‘포스트-노동’<sup>43)</sup>이라고 잠정적으

로 명명하면, 이는 종래의 노동이 구성되어온 방식과 달리 제국, 국가, 자본체 제라는 거대담론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성취의 산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좌표에 정위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정책이나 가족이데올로기에 의해 동원되고 강제되었던 대리 노동으로부터 탈피해야 하기에 포스트-노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제의 실현이나 로봇세의 적극적인 운용뿐 아니라<sup>44)</sup> 대리 노동을 담당했던 주체의 직업 및 직무 대체 등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sup>45)</sup> 이는 그간 국민의 자격으로 구성되어온 근면, 성실의 지표로서의 노동에 대한 수사를 균열하는 새로운 정치학을 요청한다.

- 
- 43) 본 연구에서 포스트-노동은 전근대적 노동과 달리 로봇, AI 등에 의한 일자리 대체 이후 노동이 구성되는 방식이나 새롭게 구성될 인간 정체성의 요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망라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 44) 피케티는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보다 교육·보건·주거·환경 등의 기본재화에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사회 내 경제활동에 온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26쪽)라고 규정하면서 최소자산 제도(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토마 피케티, 『피케티의 사회주의의 시급하다』, 이민주 옮김, 은행나무, 2021)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기존 국가 질서 및 국민적 요건을 전복할 것으로 사유되며, 노동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와도 긴밀하게 연동된다. 그리고 황준성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 및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정한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실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155쪽)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세의 도입 가능성은 로봇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유하고 그 “담세능력을 인정하는”(166쪽) 데서 출발한다고 보았다(황준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세무회계연구』67,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153~173쪽).
- 45) 임효진·이명진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경제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지능정보기술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노동을 대체”(3쪽)할 것으로 예견했다(임효진·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ociety & Media』21,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1~20쪽). 그리고 이체정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129쪽)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보았다(이체정·허종호·윤난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융합사회와 공공정책』14(1),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2020, 127~162쪽).

즉 노동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류의 도래와 포스트-노동 사회의 형상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대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봇세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기본소득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면, 강제된 노동에 의한 부조리를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하지 않는 인간의 도래나, 기본소득제가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는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인간의 (의식적 '게으름'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다른) 태만과 무료함이 야기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명으로 뭉뚱그려진 근미래에 대한 지나친 공포나 (특히 인간 배제에 대한) 우려는 경계해야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추동할 노동의 위상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노동에 대한 인문적 고찰은 과학기술의 변혁과 그에 따른 사회질서의 변화에 적실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미진하나마 박현덕의 노동 시조에 형성된 산업화 시기 대리 노동의 양상을 고찰한 본 연구를 이러한 탐색의 일환으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논저

- 김나현, 「노동시의 상상과 에크프라시스」, 『비교한국학』22(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85~113쪽.
- 김난희, 「1980년대 노동시에 나타난 헤테로크로니(hétérochronie)의 양상」, 『기호학 연구』59, 한국기호학회, 2019, 7~38쪽.
- 김 원, 『여공1970』, 이매진, 2006.
- ,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 현실문화, 2011.
- 김효은, 「1980년대 시에 나타난 미소지니(misogyny) 양상 연구」, 『동악어문학』79, 동악어문학회, 2019, 75~104쪽.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기획,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포도밭, 2021.
- 박노해, 『노동의 새벽』, 해냄, 1997.
-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37, 상허학회, 2013, 163~195쪽.
- 박지영,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시에 나타난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시학연구』53, 한국시학회, 2018, 39~84쪽.
- 박찬효,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 박현덕, 「나의 시 나의 시론」, 『시조시학』, 고요아침, 1996.11, 45~48쪽.
- , 『밤길』, 태학사, 2001.
- , 『스쿠터 언니』, 문학들, 2010.
- 백무산, 『만국의 노동자여』, 실천문학, 2014.
- 엄효진·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Information Society&Media』21,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1~20쪽.
- 오윤정, 「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과 시적 수사」, 『한국문학논총』87, 한국문학회, 2021, 399~429쪽.
- 이상록,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130, 한국사학

회, 2018, 275~334쪽.

이채정·허종호·윤난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융합 사회와 공공정책』14(1),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2020, 127~162쪽.

정찬일, 『삼순이』, 책과함께, 2019.

조춘희, 「노동하는 사람들」,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 산지니, 2011, 109~139쪽.

최명자, 『우리들 소원』, 풀빛, 1985.

황준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세무회계연구』67, 한국세무 회계학회, 2021, 153~173쪽.

## 2.역서및기타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김원·노지승 옮김, 후마니타스, 2017.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애 옮김, 민음사, 2016.

버트런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개정판, 송은경 옮김, 사회평론, 2005.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찰스 디킨스, 『어려운 시절』, 김옥수 옮김, 비꽃, 2016.

토마 피케티,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이민주 옮김, 은행나무, 202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개정판,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8.

그레그 야타네스 연출, 짐 클레멘트 극본, 『맨헌트 유나바머, MANHUNT UNABOMBER』,  
(2017.08.01.~09.12, 미국드라마)

<Abstract>

A study of the pattern of proxy labor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 Park Hyeon-deok's Labor Sijo

Jo, Chun-hee(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aspects of proxy labor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with a focus on Park Hyeon-deok's modern sijo works on the problem of labor. Exploring labor literature in today's circumstances means examining essential questions about labor and the life of the subject constituted by labor.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labor structure predicted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questions they raise about human ident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reality of industrialization in the previous period, which was promoted as an aid to the capital system and imperial order. In other words, it is expected that the human-labor relationship can be reconsidered by exploring the problem of the capital-based modern system, which has differentiated human dignity and applied it as a standard of hierarchy, and the problem of proxy labor for the vulnerable class conceived in this logic. Thus, I applied the concept of proxy labor as a service economy as discussed by Jin-Kyung Lee to analyze works of modern sijo that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literary studies. To this

end, in the introduction, previous research on the meaning of labor is considered, and in Chapter 2, the human identity formed as a working being after the modern system began is explored. In Chapter 3, the actual conditions of proxy labor as manifested in Park Hyeon-deok's ancestors are examined in terms of industrial workers, sex workers, and migrant workers. Finally, in the conclusion, although briefly, reflections on post-labor are developed.

Keywords : labor, proxy labor, workers, Park Hyeon-deok, Modern sijo, Labor Literature, Labor Poetry, Labor sijo, industrialization, homo laborans, 4th industrial revolution, post-labor

이 논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조오현 선시조(禪時調)의 미적 특성 고찰

홍용희\*

### <국문초록>

조오현의 시조 세계는 선시조를 통해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세계를 궁극으로 추구한다. 선시조(禪時調)는 선(禪)과 시조의 합성어이다. 시조는 문자에 의존하는 양식이라면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속성을 지닌 선(禪)과 시조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조오현이 시조 장르를 통해 선(禪)의 심지를 밝혀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세계를 구현하게 된 배경과 연관된다.

이 글은 이점을 밝히기 위해 시조 장르의 속성이 성리학적 이념의 요체인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지향한다는 점을 탐색하였다. 시조가 집중하는 성리학의 이(理)의 세계는 선(禪)의 궁극에 해당하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과 상통한다. 물론 선(禪)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은 성리학의 이(理)와 달리 본연지성(本然之性)의 본체마저 부정하는 절대적 차원이다.

조오현은 시조를 통해 선(禪)을 추구하는 배경이 여기에서 찾아진다. 이점은 또한 선(禪)이 그의 시조 세계의 심지이며 동시에 형식과 내용 가치의 궁극이라는 점을 가리키기도 한다. 특히 그의 이러한 시조 세계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의식을 통해 구현된다. 특히 그의 득의망상의 미의식은 마음의 수행을 통해 외적 대상은 물론 내적 주체까지 무화시키는 경지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그의 득의망상의 미의식은 마음 공부로 집중된다. 여기에 이르면 그가 스스로 “중은 끝내 부처도 깨달음까지도/내동맹이쳐야하거늘/대명천지 밝은 날에/시집이 뭐냐”고 일갈하는 연유를 좀 더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지향하는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학에는 “깨달음”과 “부처”와 “시집”까

\*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

\* 이 논문은 2021년 8월 만해마을 행사, 『설악무산의 문학, 그 넓이와 깊이』에 발표한 글, 「선시조와 득의망상의 미의식」을 학술적으로 새롭게 재정립하고 발전시킨 글입니다.

지도 차별 없이 포괄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조가 가없이 활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제어: 시조, 선(禪), 성리학, 리(理),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득의망상(得意忘象)

## I. 서론

조오현의 시조 세계<sup>1)</sup>는 활연(豁然)하다. 그는 시조를 노래 하지만 시조에 갇히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음에서 자유롭다. 그는 스스로 “중은 끝내 부처도 깨달음까지도/내동댕이쳐야하거늘/대명천지 밝은 날에/시집이 뭐냐”(〈시인의 말〉 『아득한 성자』, 시학, 2007)고 일갈하듯, 부처를 따르면서 부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시집을 간행하면서 스스로 시집을 부정한다. 마치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버려야할 대상이지 머리에 이고 다닐 대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조오현은 자신의 시집 서문에서 다시 이렇게 말을 잇는다. “건져도 건져 내어도/그물은 비어 있고/무수한 중생들이/빠져 죽은 장경藏經 바다/뚝 내린 그 뱃머리에/줄고 앉은 사공아.” “장경”을 금과옥조로 받들면서 반복하여 읽고 외운다한들, “그물”에 건져 올려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공(空)일 뿐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래서 “무수한 중생들이” “장경藏經 바다”에 빠져 죽어 왔다고 전언한다. 수많은 수도승들이 팔만대장경에 묻혀 한 평생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전 역시 절대 자유와 구도를 위한 방편이

1) 조오현은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심우도』(한국문학사, 1978), 『산에 사는 날에』(태학사, 2000.2), 『만약가타집』(만약문도회, 2002. 3), 『절간이야기』(고요아침, 2003), 『아득한 성자』(시학, 2007.5), 『비슬산 가는 길』(시와 사람, 2008.) 등의 시집을 간행했다. 그의 시조는 권영민 편저, 『적멸을 위하여』(문학사상, 2012)에서 총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지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殺佛殺祖)는 임제록의 선(禪)의 가르침을 환기시킨다.

이와 같이, 조오현의 시조 세계는 중국 위나라 왕필(226-249)의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의식과 근원동일성을 지닌다. 정신을 터득한 후 형상을 버리라는 내용을 요체로 하는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적 방법론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상(象)이란 의(意)에서 나온 것이고 언(言)이란 상(象)을 밝히는 것이다. 의(意)를 극진히 함에는 상(象)만한 것이 없고 상(象)을 극진히 함에는 언(言)만한 것이 없다. 언(言)은 상(象)에서 오는 것이므로 언(言)을 자세히 탐구하게 되면 상(象)을 알 수 있게 된다. 상(象)은 의(意)에서 나온 것이니 상(象)을 자세히 탐구하게 되면 의(意)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언(言)과 상(象)에 집착하면 본래의 언(言)과 상(象)에서 벗어난다. 언(言)이란 상을 표명하는 수단이고 상(象)이란 의(意)를 담아 놓는 수단이므로 상(象)을 얻게 되면 언(言)을 잊어야 하고 의(意)를 얻게 되면 상(象)은 잊어야 한다.<sup>2)</sup>

언(言)이 상(象)을 드러내고 상(象)이 의(意)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상(象)을 알았다면 언(言)에 집착하지 않아야 상(象)을 얻을 수 있고 의(意)를 알았다면 상(象)에 집착하지 않아야 의(意)를 얻을 수 있다. 마치 획을 중첩해서 그 뜻을 다 실은 그림을 볼 때 획은 잊어도 되는 것(重畫以盡精, 而畫可忘也)과 같은 이치이다.

조오현의 시조 세계는 이와 같은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의식을 체감하게 한다. 마치 문(門)을 통해 문이 없음을 일깨우는 무문관(無門關)의 가르침과 같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선시조(禪時調)로 지칭해 볼 수 있다.<sup>3)</sup> 선시

2) 왕필은 <주역약례>의 명상 편에서 득의망상(得意忘象)에 대해 설명한다. 최병식, 『동양회화미학』, 동문선, 1994, 32쪽 참조.

3) 조오현은 “우리 문학사상 한국 최초의 선시조 창작자이자 본격적인 의미의 선시 완성자”이다. 오세영, 「무영수에 깃든 산세들」, <<시와시학>>, 2007, 여름호, 87쪽

조란 선과 시조의 합성어로서 선적인 시조, 즉 선을 추구하는 시조를 가리킨다. 조오현은 시조 장르를 통해 시선일여(詩禪一如)를 구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불립문자를 중지로 하는 선(禪)과 문자에 의존하는 시조가 어떻게 서로 만나서 공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그가 시조 장르를 붙잡아 선의 심지를 밝혀서, “무설설”, “무자화”의 공(空)<sup>4)</sup>의 세계와 공명할 수 있는 시조의 장르적 특성은 무엇일까? 이것은 시조 장르의 양식론적 특성의 근간과 선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이 조오현의 시조 세계의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의식을 인식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 II. 시조의 심지와 궁리(窮理)

조오현에게 시조는 뜻을 구하여 밝히는 형식론이면서 동시에 버려야 할 형상이다. 그렇다면 그가 득의망상의 대상으로 시조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선일여(詩禪一如), 즉 “선의 핵심이나 시의 핵심 모두 깨달음에 있다”<sup>5)</sup>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체로 선시가 한시로 구현되어왔으나 그가 시조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개연성은 무엇일까? 이것은 시조 장르가 지닌 이치의 터득과 깨달음 기조로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의 선행이 요구된다.

주지하듯, 시조는 성리학적 이념을 근간으로 발생한 민족 문학의 대표적인 전통 시가 장르이다. 시조 시인이 모델로 삼는 형식미학은 민족적 정서와 사회

4) 조오현의 시조 세계에 대한 논의에서 공(空) 또는 무(無)의 주제의식과 연관된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승훈, 『아방가르드는 없다』, 태학사, 2008. 권성훈, 「조오현 단시조의 죽음 연구」, 『춘원연구학보』, 2016. 12. 등이 있다. 특히 여기에서 권성훈은 오현의 단시조에서 보이는 죽음의식이 삼법인, 즉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5) 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 - 嚴羽 『滄浪詩話』, Public Domain Books, 2013.

의식의 반영태이다. 이를테면, 시조는 시조 시인들이 T.S 엘리엇이 「전통과 개인적 재능」에서 강조한 작가의 몰개성화를 통해 획득한 보편적 개성의 양식인 것이다.<sup>6)</sup> 여기에서 ‘몰개성화란 주체의 상실이 아니라 전통의식과 역사의식 속에 용해되어 있는 완전한 보편성을 획득한 개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조의 정형은 창작자에게 구속이면서 해방의 양식이다.

시조는 보편화된 전통 미학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언어들의 미적 양식인 것이다. 그래서 시조를 거듭 음미해 보면 개념들이 운을 맞추는 것을 느끼게 된다. 리듬의 역동성은 시인으로 하여금 말 사이에 존재하는 끌어당김과 밀침의 힘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세계를 창조하도록 이끈다. 리듬은 자석처럼 어떤 단어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어떤 단어들은 서로 밀치면서 상응의 관계망을 이룬다. 리듬의 작용에 따라 - 박자, 각운, 변주, 유사어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 시인은 말들을 불러 모은다.

그렇다면, 시조의 전통적인 리듬감을 형성시키는 이면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성리학적 이념이다. 시조가 성리학자들에 의해 고려 중엽부터 시도되어 고려 말에 이르러 완미한 형식을 갖춘 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초반기의 시조가 대체로 절의, 훈민, 강호, 학문, 충정 등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이를 거듭 확인 시킨다.

시조의 형성원리를 이루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기초는 크게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7)</sup>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은 주자(朱子)의 성(性)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자에 따르면,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천부자연의 심성으로 지선(至善)이다. 기질지성(氣質之性)은 타고난 기질과 성품을 가리키는데,

6) T.S. 엘리엇, 이창배 역, 「전통과 개인적 재능」, 『T.S. 엘리엇 문학비평』, 동국대학교출판부, 1999 참조

7) 이러한 시각의 논리는 조동일,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 설정」,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기린원, 1988. 제기된 이래, 임종찬, 『시조에 담긴 주제와 시각』, 국학자료원, 2010, 160쪽 등에 의해 거듭 언급된 바 있다.

타고난 기질의 청탁(淸濁)과 편색(偏塞)에 따라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악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기론으로 말하면,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이(理)에 해당되고, 기질지성(氣質之性)은 기(氣)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질지성(氣質之性)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양에 따라 탁한 것(濁)을 맑은 것(淸)으로 만들 수 있다.<sup>8)</sup>

따라서 유가(儒家)에서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정화시켜 지선(至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은 인욕을 억누르고 천명으로 받은 고유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도심(道心)의 천리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방법론으로 유가에서는 ‘거경궁리(居敬窮理)’가 강조된다. 거경(居敬)은 정신을 올곧게 집중시켜 도덕적 본성을 지키고 북돋우는 내적 수양이고, 궁리(窮理)는 인간과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는 외적 수양을 뜻한다. 거경궁리를 통해 사물의 본성과 이치를 터득하여 이를 내면화하여 적연부동(寂然不動)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성리학의 요체이다.

시조의 형식 미학의 형성 원리에는 이와 같은 성리학에서의 학문하는 실천 방법론이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기질지성(氣質之性)의 현상으로부터 그 이면의 원리를 터득하여 본연지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양상이 시조의 형식미학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조의 형식미학에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주리론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이 둘을 일원론적인 연속성으로 파악하는 주기론의 세계관도 포괄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설시조 양식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경우 역

8) 동방의 주자로 불리우는 이황의 4단 7정론 역시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다. 그는 측은지심(惻隱之心) · 수오지심(羞惡之心) · 사양지심(辭讓之心) · 시비지심(是非之心)의 4단(四端)을 본연지성에서 드러난 정(情)으로,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의 7정(七情)은 기질지성에서 드러난 정(情)으로 보았다. 그리고 4단(四端)은 도심(道心), 7정(七情)은 인심(人心)이라 하였고, “4단은 리의 작용으로 나타나며(四端理之發), 7정은 기의 작용으로 나타난다(七情氣之發)”고 설명한다. 정재현, 「四端七情論辯의 名學的 解釋」, 『중국학보』 46집, 2002 참조.

시 시조 종장의 첫 음보를 주일무적(主一無敵)의 비약적 전환점으로 삼아 현상적 사실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경과 궁리의 수양과 성찰의 방법론은 동일하게 구사된다. 이점은 시조의 기본 형식인 4음보격 3장 형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1음보	제 2음보	제 3음보	제 4음보
제 1행(초장)	■	■	■	■
제 2행(중장)	■	■	■	■
제 3행(종장)	■	■	■	■

시조의 가로 행의 음보를 이루는 짝수의 4는 안정수이고 세로 행의 홀수의 장을 이루는 3은 역동수이다. 안정수의 반복은 시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아와 세계의 합일을 이루는 보편, 이치, 본질, 근원, 평정, 형이상 등을 향해 나아가는 장중하고 진중한 리듬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로의 3장의 역동수는 초장과 중장의 개별, 차이, 감각, 갈등, 형이하 등의 현상적 사실로부터 거경 궁리를 통해 그 이면의 본질과 가치를 터득하여 내면화 하는 노력의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점은 특히 종장의 형식론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종장의 제 1음보는 기준 음절수 미만이고 2음보는 기준 음절수 초과이다. 첫 음보의 음절수 미만은 내적 집중의 응축적 전환의 긴장을, 2음보의 초과는 질적 고양 속에서 도달하는 평정의 이완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기준 음절수 미만의 응축적인 긴장의 첫 음보는 성정(性情)을 통합하고 이기(理氣)를 합일시키는 거경의 자리에 가깝고, 기준 음절수 초과 2음보는 궁리의 체득을 통한 고양된 해소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거경은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암시하는 정(靜)의 단계이다. 따라서 이점은 대부분의 시조 종장의 첫 음보가 감탄적 어사로 시작되는

‘제시부’이고, 마지막 음보가 감탄적 종결형으로 끝나는 ‘종결부’<sup>9)</sup>의 양상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제시부는 초장, 중장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는 계기점이며, 종결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해소의 단계를 가리킨다.<sup>10)</sup>

특히, 중장에서 격물치지를 통해 획득하는 이(理)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자는 “만물은 모두 한 그루의 나무와 한 포기 of 풀에 이르기까지 각각 ‘이(理)’를 갖추고 있다. 이(理)를 궁구해 나가면 활연(豁然)해지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설파한다.

이러한 이(理)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퇴계 이황(1501-1570)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만일 이를 탐구해서 투철하게 깨닫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진실한 이치를 가지고 있고(至虛而至實) 지극한 무이지만 동시에 모든 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극한 유이고(至無而至有) 만물을 움직이게 하면서도 스스로 운동하지 않고(動而無動) 만물을 고요하게 하면서도 스스로는 따로 고요함이 없는(靜而無靜) 희고 깨끗하여 순수하며 터럭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이 완전하며 음양과 오행 그리고 만사와 만물의 근본이 되면서도 음양오행과 만사만물의 가운데에 갇히지 않는다.<sup>11)</sup>

9) 김홍규, 「평시조 중장의 율격, 통사적 정형과 그 기능」, 『월암 박성의 박사 환갑기념논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참조. 김홍규는 시조 중장의 특성을 제시부와 종결부라는 용어를 통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그 내용가치를 규명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10) 시조 작품을 통해 이러한 시조의 형식미와 내용가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실감 있게 규명해 보기로 하자.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프 | 있네  
녀던 길 알프 | 있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이황, 「도산십이곡」 일부

초장과 중장이 현상적 사실과 인식이라면 중장은 이로부터 그 이치를 내적 집중을 통해 터득하여(居敬窮理) 내면화함으로써 세계의 자아화를 이루는 서정의 세계를 보여준다. 중장은 초장과 중장의 내용의 응축을 바탕으로 돌연하게 자각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비약적 전환을 통한 궁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理)의 위상과 존재성을 면밀하게 해명하고 있다. 이(理)의 속성은 있음/없음, 정/동, 구속/자유의 이분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을 동시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존재의 근원이며 원리이고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理)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면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에서만 헤매게 된다.<sup>12)</sup> 시조 장르는 바로 이러한 이(理)를 심지로 체현하는 것이다.

### Ⅲ. 득의망상(得意忘象)과 무(無)의 도정

조오현의 시 세계가 추구하는 궁극 역시 거경궁리에서의 이(理)의 세계와 연속성에서 해석된다. 그의 시조 세계의 중심을 역시 “지극히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진실한 이치를 가지고 있고(至虛而至實) 지극한 무이지만 동시에 모든 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극한 유(至無而至有)”와 상통하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세계가 근간을 이룬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은 우리의 본래성품, 즉 청정자성은 본래 아무것도 없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우주만유는 본래 아무 것도 없는 공(空)이어서 집착할 것도 탐욕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본래무일물 역시 그 기본 속성은 거경궁리에서 이(理)의 있음/없음, 정/동, 구속/자유의 이분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을 동시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텅 빈 존재의 근원이며 고요한 중심에 상응한다. 다만, 거경궁리의 이(理)와 달리 본체 자체도 없다는 무(無)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편차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가없는 활연대오(豁然大悟)의

11) 퇴계학연구원, 『陶山全書 二권』, 1988, 22.

12) 이 글은 줄고 「시조 미학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현재적 가능성」(『한국언어문화』, 45권, 2011.8)을 바탕으로 함.

13) 남종 돈오(頓悟)선시의 기원으로 꼽히는 혜능(638-713)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즉 본래 한물 건도 없다는 계송으로서 《육조단경》에 전한다. 계송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 또한 대(臺)가 아니다.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는 것이니,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리오(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경지를 열어 나가는 특성을 지닌다.

다음 시편은 이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날 밤 대중들이 잠이 들어 달빛을 받은 나뭇가지들이 산방 창호지 흰 살결에 얼룩덜룩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김행자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이란 어떤 물건인가?’ 라는 의문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지요. 땅바닥에 무릎까지 쌓인 풍경 소리를 한동안 뚫다가 거기 보타전 맞은편 관음지(觀音池) 독에 웬 낯선 사내가 두 무릎을 싸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요.

‘이 밤중에?’ 김행자는 머리끝이 쭈뼛쭈뼛 곤두섰지만 무언에 이끌리듯 사내의 등 뒤에 가 서서 사내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내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궤이적적한 수면에 떠오른 달그림자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 마치 무슨 짐을 몽둥그려 놓은 것처럼 미동도 없었지요. 마침내 달이 기울면서 자기 그림자를 거두어 가고 관음지에 흐릿한 안개비가 풀어져 내리자 사내는 늙은이처럼 시시부지 일어나며 ‘그것 참… 물 속에 잠긴 달은 바라볼 수는 있어도 끝내 건져낼 수는 없는 노릇이구먼…’하고 수척한 얼굴을 문지르며 흐느적흐느적 산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다음날 새벽녘에 보았지요.

— 「물 속에 잠긴 달 바라볼 수는 있어도」 전문

“본래면목(本來面目)이란 어떤 물건인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김행자의 발걸음 앞에 “수면에 떠오른 달그림자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마침내 달이 기울면서” 달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한다. 이때 사내는 혼자 중얼거린다. “그것 참… 물속에 잠긴 달은 바라볼 수는 있어도 끝내 건져낼 수는 없는 노릇이구먼…” 사내의 독백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물속에 잠긴 달을 건지고자 했던 노력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는 전언이다. 물속에는 처음부터 달의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없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행위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는 중생들의 행렬들이란 결국 이처럼 어리석은 행위의 반복이었다는 것이다. 조오현의 시조 세계의 전반은 이와 같이 일

체만상과 만법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이 출발이며 궁극을 이룬다. 다시 말해, 그의 시조 세계는 공(空)과 무(無)를 강조하고 지향하는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의식을 주조로 한다.

이러한 점은 조오현의 시조 세계의 출발을 이루는 「무산심우도」<sup>14)</sup>에서도 선명하게 부각된다. 불교의 선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 중의 하나인 심우도의 종지는 삼라만상 모두 실체가 없는 공(空)임을 깨닫고 이를 실현하는 수행의 도정이다.

히히히 호호호호 으히히히 으러러러  
하하하 으하하하 으이이이 이 호호호  
결결결 으아아아이 우후후후 후이이

약 없는 마른 버짐이 온몸에 번진 거다  
손으로 깊은 육갑 명씨 박힌 전생의 눈이다  
한 생각 한 방망이로 부서버린 삼천대계여

— 「인우구망(人牛俱忘)」 전문

1연은 깨달은 자의 통쾌한 원초적 웃음소리이다. 이점은 2연을 통해 확인된다. 온몸에 마른 버짐이 생기고 눈은 “명씨”가 박히도록 시달리던 번뇌가 벼락처럼 부서지고 있다. 광대무변한 세계가 오직 텅 빈 원상이라는 것이다. “인우

14) 「무산심우도」는 1978년 간행된 시조집 『심우도』에 발표된다. 조오현이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초기에 창작한 시조편에 해당한다.

한편, 심우도(尋牛圖)는 선(禪)의 수행 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도해한 그림으로서, 자기의 참마음을 찾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10단계로 도해하여 심우도(十牛圖)라고도 한다.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를 찾아 나선다.(尋牛)-소 발자국을 발견한다.(見跡)- 소를 발견한다.(見牛)-소를 잡는다.(得牛)- 소를 길들인다.(牧牛)-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騎牛歸家)- 이제 소는 잊어버리고 안심한다.(忘牛存人)- 사람도 소도 모두 본래 공(空)임을 깨닫는다.(人牛俱忘)-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닫는다(返本還原)- 중생 구제를 위해 저자거리로 나선다(入塵垂手) 광암, 『심우도』, 한국불교연구원, 1995 참조

구망”, 즉 소와 자기 자신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이다. 객관적 대상이었던 소를 잊었으면 주관인 자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객 분리 이전의 상태에 상응한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에 이르는 득의망상(得意妄想)의 도정이다.

다음 시편에서는 이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 옛날 어느 스님이 천하태평을 위하여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중을 만나면 또 중을……  
결국은 그 방망이에 그도 가고 말았다.

— 「만인고척·1」 전문

임제의 살불살조(殺佛殺祖)<sup>15)</sup> 사상을 통한 무애자재(無涯自在)의 무한이 노래되고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중을 만나면 또 중을” 죽이라는 언명은 이미 그 자체로 관습적 사고를 깨트리는 과격의 충격을 던진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살불살조(殺佛殺祖)의 방망이로 자기 자신도 죽이고 있다. 외적 대상뿐만 아니라 내적 자아까지 완전히 부정할 때 “천하태평”이 거침없이 열린다는 일깨움이다. 객체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내려놓을 때 걸림 없는 무애자재의 경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에 이르는 득의망상(得意妄想)의 대상에 득의망상을 주장하는 주체까지 포함된다는 설파이다.

그렇다면, 주관과 객관이 모두 무화된 “천하태평”의 경지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다음 시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시사해 준다.

15) 도 배우는 이들이여 범다운 견해를 터득하려 한다면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며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투철히 벗어나 자유자재 해진다.(道流 爾欲得如法見解 但莫受人感向裏向外 逢著便殺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不與物拘 透脫自在)

강물도 없는 강물 흘러가게 해놓고  
 강물도 없는 강물 범람하게 해놓고  
 강물도 없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뗏목다리

— 「부처-무자화 6」 전문

“강물도 없는 강물”이 “흘러가”고 “범람”한다. “없는 강물”은 무엇이고 “흘러가”고 “범람하”는 강물은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사실 이 둘은 하나이다. 모두 본래 아무 것도 없는 것이기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있음과 없음의 분별지로부터 저만치 먼 바깥의 영역인 것이다. “무자화” 즉, 무자(無字)화두만 타파하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선적 일깨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처럼, 무자화두란 조주 선사에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묻는 말에 “있다(有)고 했다가 다시 “없다(無)”라고 대답한 공안이다.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넘어설 때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시상의 중심 이미지리 강물은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강물에 물결을 일으킴이다(佛祖出世 無風起浪)”<sup>16)</sup>라고 할 때의 강물을 떠올리게 한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은 “바람이 없는 고요한 바다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라는 언설이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本來佛)인데, 팔만대장경을 설파하여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초장의 “강물도 없는 강물 흘러가게 해 놓고”는 석가모니가 고요한 인간 세상에 팔만사천법문을 설하여 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의 “범람하게 해놓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종장의 “강물도 없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뗏목다리”는 세상의 물

16) 서산대사, 범정 역, 『선가귀감』, 동쪽나라, 2010.

결에서 중생을 건져내던 뗏목다리, 즉 석가모니 또한 스스로 득의망상(得意妄象)의 대상에 해당하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강물 없는 강”, 마치 그림자 없는 나무(無影樹)와 같이 역설적 형상을 지닌 본래무일무(本來無一物)만이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진경을 일상적 삶의 감각으로 대상화 하면 다음과 같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아득한 성자”로 감각화 된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 「아득한 성자」 전문

“하루살이”는 늘 오늘을 산다. 일생에 걸쳐 어제와 내일이 없다. 그러므로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집착도 다가올 세상에 대한 허욕도 있을 리 없다. 그래

서 하루살이는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향유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현재가 도굴 당한다.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정작 “하루살이” 만큼도 온전한 하루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상의 전반에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나’를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의 정서가 스며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회한은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아지랑이」)라고 반문하는 성찰과 각성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라고 하는 것은 성자는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늘 ‘지금/여기’를 산다는 의미와 함께 하루살이야말로 성자의 삶이라는 일깨움을 전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지금/여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향유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성자”에 이르는 길이 “아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 세계는 물론 내적 주체를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객체와 주체를 모두 내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이 집착과 욕망의 허상에 사로잡히면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조오현의 시조 세계에는 마음에 관한 화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한 티끌 겨자씨보다

어찌면 더 작을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 「마음 하나」 전문

시적 화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마음의 부피와 질량을 암시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천하를 다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천하장수”라 할지라도 “마음 하나”는 “들지도 놓지도” 못한다. 비록 마음의 크기가 “한 티끌 겨자씨보다/어찌면 더 작을”지라도 이점은 마찬가지로이다. 마음이란 처음부터 가시적인 대상도 아니며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마음이 “한 티끌 겨자씨보다” 더 작다할지라도 “천하장사”가 들었다 놓는 “천하” 보다 더욱 무겁고 아득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각성하고 체현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강조이다.

다음 시편 역시 본래의 마음 찾기의 가치와 의미를 내밀하게 강조하고 있다.

사내라고 다 장부 아니여

장부 소리 들을라면

몸은 들지 못해도

마음 하나는

다 놓았다 다 들어 올려야

그 물론

몰현금(沒絃琴) 한 줄은

그냥 탈 줄 알아야

— 「몰현금(沒絃琴) 한 줄」 전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경지에 이르면 “몰현금(沒絃琴) 한 줄은 /그냥 탈 줄 알”게 된다. 줄 없는 거문고, 즉 “몰현금”을 탄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거문고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감각적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이다. 거문고의 음률 역시 마음의 소리의 산물이고 반영태인 것이다.

따라서, 장부다운 장부란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을 자유자재로 들어 올리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워내서, 본래의 텅 빈 공(空)을 회복하는 것이다. 집착과 탐욕은 물론 어떤 인위적인 의도나 의지마저도 벗어날 때 본래의 마음의 평정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다에 가면 바다/ 절에 가면 절이 되”(「무설설·2」)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정이 곧 수행자의 궁극적인 당위적 과제이며 목적이 된다.

다음 시편은 마음의 평정 속에서 무위자재(無爲自在)의 삶을 구가하는 대상에 대한 소묘이다.

화엄경 펼쳐 놓고 산창을 열면  
이름 모를 온갖 새들 이미 다 읽었다고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포롱포롱 날고……

풀잎은 풀잎으로 풀벌레는 풀벌레로  
크고 작은 푸나무들 크고 작은 산들 짐승들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하나로 어우러져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다 보이며  
 저마다 머금은 빛을 서로 비취 주나니……

— 「산창을 열면」 전문

“화엄경 펼쳐 놓고 산창을 열면” “이름 모를 온갖 새들”, 이미 “화엄경”을 다 읽었다며 “포롱포롱 날고” 있다. 어찌 새들 뿐이겠는가? 2연에 이르면 “풀잎”, “풀벌레”, “산들”, “짐승들” 모두가 화엄경을 읽어서 알고 실천하는 모습들이다. 이미 화엄경의 설법이 이러한 생명체들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 “저마다 머금은 빛을 서로 비취 주”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법신”의 구현이며 존재 방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산색은 그대로가 법신(法身)/물소리는 그대로가 설법(說法)”(「이 소리는 몇 근이나 됩니까?」)이라는 언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타고난 본성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곧 부처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부처의 존재를 자각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무위자연의 본성을 잃지 않았을 때이다. 이것은 또한 “허수아비” 같은 무념무상(無念無想)이 곧 부처이며 도(道)라는 일깨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풍년이 드는 해나 흉년이 드는 해나  
 — 눈두렁 밟고 서면 —  
 내 것이거나 남의 것이거나  
 — 가을 들 바라보면 —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도 웃는 허수아비

사람들은 날더러 허수아비라 말하지만  
 맘 다 비우고 두 팔 짝 벌리면

모든 것 하늘까지도 한 발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 「허수아비」 부분

허수아비가 “하늘까지도 한발 안에 다”안을 수 있었던 것은 위도일손(爲道日損)<sup>17)</sup>의 극치, “맘 다 비우고 두 팔 짝 벌”리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허수아비는 어느새 무위로서 천하를 얻는 성과를 구가하고 있다. 아니, 본래 허수아비의 존재는 천하와 소통하고 공명하는 우주적 자아였다. 모든 존재의 본색은 부처이고 우주라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스스로 마음의 본성을 찾아 부처가 되면 바깥 세계 또한 부처의 세상이 된다. 세상의 존재성은 부처의 인드라마이다.

시님, 우리가 시방 깔고 앉은 이 반석과 저 맑은 물 속에 잠겨 있는 반석들을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시지요, 이 반석들 속에 천진한 동불童佛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략) --- 헌데 시님 젊었을 때는 눈을 뜨고 봐도 나타나지 않아 먹줄을 놓아야 했는데... 이제 눈이 멀어 왔던 길도 잘 잊어버리는 데..., 눈을 감아야 알비치는 ...: 눈만 감으면 바위 속에 정좌해 계시는 부처님이 보이시니 ....

— 「눈을 감아야 세상이 보이니」 일부

시적 정조가 어눌하면서도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이다. 자신의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면서 세상이 모두 부처임을 자각하게 된다. 늙은 석수의 성근 목소리는 이미 부처의 목소리이다. 그래서 그의 눈에 세상은 부처의 나라이다. “젊었을 때는 눈을 뜨고 봐도 나타나지 않”던 부처가 “이제 눈이 멀어 왔던 길도 잘 잊어버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육안의 눈이 멀어지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17) 노자는 ‘학문을 하면 날로 늘어나고 도를 닦으면 날마다 덜어지거니와 덜고 또 덜면 이욕과 함이 없음에 이르게 되고 함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를 얻음에는 언제나 무위로써 해야한다.’(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無爲 無爲而無不爲 故取天下 常以無事) 고 설파한다.

차별상에 머물렀지만, 그 의도 자체를 버리자 본성의 세계를 환하게 보게 되는 형국이다. 주체와 객체가 무화된 본래무일물의 경지에서 체현되는 삶이다. 석수장이는 살아있는 “아득한 성자”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조오현은 시조를 통해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통찰하는 법안(法眼)의 눈으로 “아지랑이”(「아지랑이」)같은 삶의 현실에 대한 직시와 그 너머의 근원적인 “공(空)”의 세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를 동시에 노래하고 있다. 18) 그의 시조 세계의 궁극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근간으로 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 그의 시조 세계를 생성하는 심지이며 이를 통해 발견하는 자신과 세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시조세계는 이(理)를 추구하는 시조 장르를 통해 시조 장르마저 부정하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지점에 이른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가없는 활연(豁然)의 경지를 체감하게 한다.

#### IV. 결론

조오현의 시조세계는 선시조의 특성을 지닌다. 시조는 문자에 의존하는 양식이라면 선은 불립문자를 강조하는 “무설설”이며 “무자화”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속성을 지니는 선과 시조가 공존할 수 있는 개연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조의 양식이 성리학적 이념의 요체인 거경궁리의 표현태라는 점과 조오현의 선적 세계관이 근간을 두고 있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 상응한다는 점이다. 시조의 종장을 통해 집중하는 “지극히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진실한 이치를 가지고 있고(至虛而至實) 지극한 무이지만 동시에 모든 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극한 유(至無而至有)”의 속성을 지닌 이(理)의 세계에 대한 지향은 선적 세계의 모든 생성의 근원이면서 아무 것도 없는, 활동하는

18) 즐고 「마음, 그 깨달음의 바다」(「대지의 문법과 시적 상상」, 문학동네, 2007)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무를 표상하는 본래무일무(本來無一物)와 상통한다는 것이다. 물론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은 성리학의 이(理)와 달리 본연지성(本然之性)의 본체마저 부정하는 절대적 차원이다.

조오현이 시조를 통해 선을 추구하는 배경이 여기에서 찾아진다. 이점은 또한 선(禪)이 그의 시조 세계의 심지이며 동시에 형식과 내용 가치의 궁극이라는 점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기본적으로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의식을 체현한다. 여기에 이르면 그가 스스로 “중은 끝내 부처도 깨달음까지도/내동댕이쳐야하거늘/대명천지 밝은 날에/시집이 뭐냐”(〈시인의 말〉 『아득한 성자』, 시와시학, 2007)고 일갈하던 연유를 좀 더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지향하는 득의망상(得意忘象)의 미학에는 “깨달음”과 “부처”와 “시집”까지도 차별 없이 포괄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조오현, 『심우도』, 한국문학사, 1978.  
\_\_\_\_\_, 『산에 사는 날에』, 태학사, 2000.  
\_\_\_\_\_, 『만약가타집』, 만약문도회, 2002.  
\_\_\_\_\_, 『절간이야기』, 고요아침, 2003.  
\_\_\_\_\_, 『아득한 성자』, 시학, 2007.  
\_\_\_\_\_, 『비슬산 가는 길』, 시와 사람, 2008.  
권영민 편저, 『적멸을 위하여』, 문학사상, 2012.

### 2. 참고자료

- 곽암, 『尋牛圖』, 한국불교연구원, 1995.  
권성훈, 「조오현 단시조의 죽음 연구」, 『춘원연구학보』, 2016. 12.  
김홍규, 「평시조 종장의 율격, 통사적 정형과 그 기능」, 『월암 박성의박사 환갑기념논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서산대사, 범정, 역, 『선가귀감』, 동쪽나라, 2008.  
嚴羽, 『滄浪詩話』, Public Domain Books, 2013.  
오세영, 「무영수에 깃든 산새들」, 《시와시학》, 2007, 여름호.  
이승훈, 『아방가르드는 없다』, 태학사, 2008.  
임종찬, 『시조에 담긴 주제와 시각』, 국학자료원, 2010.  
조동일,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 설정」, 『우리문학과외의 만남』, 기린원, 1988.  
정재현, 「四端七情論辯의 名學的 解釋」, 『중국학보』 46집, 2002.  
최병식, 『동양회화미학』, 동문선, 1994.  
퇴계학연구원, 『陶山全書 二권』, 1988.

홍용희, 「시조 미학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현재적 가능성」, 『한국언어문화』 45권, 2011.

\_\_\_\_\_, 『대지의 문법과 시적 상상』, 문학동네, 2007.

T.S. 엘리엇, 이창배 역, 「전통과 개인적 재능」, 『T.S. 엘리엇 문학비평』, 동국대학교출판부, 1999.

<Abstract>

## Aesthetic Consideration of Jo Oh-hyeon's Seonsijo(禪時調)

Hong, Yong-hee(Kyunghee Cyber University)

Jo Oh-hyeon ultimately pursues the world of original intangible things (本來無一物) through his ancestors. Seonsijo (禪時調) is a compound word of Seon (禪) and Sijo. While Sijo is a style that relies on letters, Zen emphasizes non-literate characters. How then can Zen (禪) and Sijo, with these opposite attributes, coexist? This is related to Jo Oh-hyeon's realization of the world of original intangible things via the core of Zen through the Sijo genre.

To reveal this point, the article examines the fact that the attributes of the Sijo genre are directed toward Geogyonggung-ri (居敬窮理), the essence of Neo-Confucian ideology. The world of Li (理) in Neo-Confucianism, as the focus of the Sijo,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intangible things of Zen. Of course, unlike the Li of Neo-Confucianism, the original intangible thing of Zen (本來無一物) is an absolute dimension that denies even the very essence of original nature (本然之性).

The background of Jo Oh-hyeon's pursuit of Zen through his ancestors is found here. This simultaneously indicates that Zen is the core of his ancestral world and is ultimate in form and content. His eponymous world

is realized through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delusion of gain (得意忘象), not only in form but also in content, aiming to a state of nullifying both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subject through mental practice. Thu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his delusion of profit is focused on studying the mind. Thus, one can more clearly guess the reason why he is arguing, “In the end, even the Buddha and even enlightenment/I have to throw myself away/On a bright day in Daemyungcheonji/What is the book of poetry?” The aesthetics of his delusion of gain (得意忘象), which aims for the original one-of-a-kind thing, indiscriminately encompasses “enlightenment”, “Buddha” and “book of poetry”. It is the reason why his ancestors were so active.

Keywords : Sijo, Zen, Neo-Confucianism, Li, 本來無一物, 得意忘象

이 논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2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한국시조학회 이사회 자료

### 1. 한국시조학회 2021년도 하반기 이사회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13:30 ~ 13:50

장소 : 온라인

참석자 : 이경영, 박영주, 권성훈, 김남규, 이두의, 김태경

주요내용 :

- 1) 인사말 및 총회 안건 검토
  
- 2) <시조학논총> 56집부터 JAMS 활용 예정
  
- 3) <시조학논총> 활성화 방안 논의
  
- 4) 기타  
학술발표대회 등

## 한국시조학회 제7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 주제 : 시조와 세대성
- 장소 : 줌(ZOOM) 온라인
- 일시 :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2시
- 주최 : 한국시조학회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3:50~14:00 접속 사회 : 권성훈(경기대)

14:00~14:10 개회사 이경영(경기대 · 한국시조학회장)  
인사말 박영주(강릉원주대 · 한국시조학회 편집위원장)

제1부 자유발표 사회 : 김태경(인하대)

14:10~14:50 영화와 그림을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 교수법  
- 시조 쓰기를 중심으로

발표 : 이송희(전남대) / 토론 : 조춘희(부산대)

14:50~15:30 전시조와 득의망상의 미의식

발표 : 홍용희(경희대) / 토론 : 고봉준(경희대)

제2부 기획발표 사회 : 배은희(인천대)

15:30~16:10 영상콘텐츠에 재현된 시조의 양상과 의미 연구

발표 : 이채영(동국대) / 토론 : 김지은(중앙대)

16:10~16:50 현대시조 전후세대의 불교성 연구

발표 : 권성훈(경기대) / 토론 : 노춘기(강남대)

16:50~17:00 폐회사

## 한국시조학회 편집회의

### 1. 제1차 편집회의

일시 : 2022. 1. 7. (금) 10시 50분

장소 : 온라인 회의(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참석자 : 박영주(편집위원장), 배은희(편집이사), 김지은(편집이사), 권성훈(편집위원, 총무이사), 김성문(편집위원, 기획이사), 김용기(편집위원), 류찬열(편집위원), 박상영(편집위원), 김태경(편집간사)

주요내용 : 『시조학논총』 56집 심사위원 배정 및 발간 건.

- 1) 총 투고논문 : 11편
- 2) 투고논문별 심사위원 선정
- 3) 발간 일정 논의 : 개략적으로 논의함

### 2. 제2차 편집회의

일시 : 2022. 1. 17.(월) 10시 50분

장소 : 온라인 회의(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참석인원 : 박영주(편집위원장), 배은희(편집이사), 김지은(편집이사), 권성훈(편집위원, 총무이사), 김성문(편집위원, 기획이사), 김용기(편집위원), 류찬열(편집위원), 박상영(편집위원), 김태경(편집간사)

주요내용 : 『시조학논총』 56집 발간 건

- 1) 투고논문 심사결과 논의 및 게재 편수 결정
  - 11편의 투고논문 중 '게재' 4편, '수정후게재' 3편, '게재불가' 4편
  - 최종 게재 편수 : 7편
- 2) 발간 일정 논의
  - 발간일정
  - 2022. 1. 16. 제2차 편집회의(온라인 편집회의) - 심사 결과 판정 및 심사 결과 메일 공지(1월 20일까지 수정후게재 논문 수정본 취합)

- 2022. 1. 24. 수정후게재 수정 사항 확인(수정후게재 3편 게재 판정)
- 2022. 1. 17.~1. 28. 필자 교정 완료 및 출판사 인계
- 2022. 1. 28.~1. 29. 최종 교정(고요아침)
- 2022. 1. 30.~1. 31. 한국연구재단 탑재

### 3. 제3차 편집회의

일시 : 2022. 1. 27.(목)

장소 : 온라인 편집회의

참석인원 : 박영주(편집위원장), 배은희(편집이사), 김지은(편집이사), 권성훈  
(편집위원, 총무이사), 김태경(편집간사)

주요내용

- 1) 최종 편집 및 교정
- 2) 『시조학논총』 발송자 명단 및 발송 부수 확정
- 3) 1월 31일 전후로 편집이사(편집간사)가 한국연구재단에 탑재하기로 함.
- 4) 총 투고논문 10편 중 7편 게재로 게재율 63.6%

## 『시조학논총』 56집 논문 심사 경위

이번 『시조학논총』 56집에 투고된 논문은 모두 11편이었습니다. 회칙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투고 논문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3명씩 총 33회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과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심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① 1차 심사 취합 결과 : 게재 논문 4편, 게재불가 논문 4편  
수정후게재 3편
- ② 2차 심사 결과 : 수정후게재 3편 ‘게재’ 결정
- ③ 총 투고 논문 11편 가운데 7편 최종 ‘게재’ 결정
- ④ 제56집 논문 게재율 : 63.6%  
(제56집 게재 논문 7편 / 제56집 투고 논문 11편)

엄정한 심사로 인해 탈락하게 된 논문 중에는 아쉬운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시조학회가 한 단계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진통이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韓國時調學會 會則

### 제1장 총 칙

제1조 이 학회는 韓國時調學會라 칭한다.

제2조 이 학회는 시조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계발, 자료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회원간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시조가 지니고 있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창달하고, 현대 사회에도 독창성을 지닌 현대시조가 계속 창작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 개최
2. 학회 논문집 『時調學論叢』 발간
3. 연구 자료 및 연구 논저 발행
4. 시조에 대한 교육 기관과 문화 기관의 자문과 건의
5. 시조에 대한 유공자의 현창 사업
6. 해외 학술 교류
7. 2년 1회(회장 임기중 시조학논총 게재 논문 대상) 시조학술상 시상  
- 회장은 학술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회장, 부회장, 평의원,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총무이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회 별도 구성)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이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로써 시조 연구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1. 시조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시조문학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저서 1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학술지에 발표한 자.
3. 이사회에서 그 회원임을 인정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이 학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부회장 중 과반수이상을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거주자로 한다.)
3. 이사(실무이사 및 지역이사) 약간명
4. 감사 2명
5.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평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 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과 평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 이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 중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되어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3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6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실천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대 및 개선
4. 회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12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학회지 『時調學論叢』의 발간과 연구논저의 발행을 위해 출판편집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다.

### 제4장 재정

제15조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1985년 4월 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개정 회칙은 198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개정 회칙은 1991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개정 회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 개정 회칙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개정 회칙은 2014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6월 1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시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07. 07. 21 (규정 제3호)

개 정 2017. 06. 17

개 정 2018. 12. 15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조학논총』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준수를 위하여 세부 평가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아래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심의를 맡은 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로 한다.

4. 소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예비조사
- 나. 자료 검토와 보완 요청
- 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라. 본 조사에 상정할 지에 관한 여부 결정

###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 판단의 기준

###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제4조(저자의 연구부정행위)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저술에 관련된 쏨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논문 분할 행위, 연구 윤리 관련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

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자기 표절)"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전체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논문 분할 행위 :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8. 그 밖에 국문학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5조(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저자는 본문에서 인용 표시한 것을 참고문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5.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원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7.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헌이라면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선행연구 검토 시, 선행 연구의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집이나 미출간된 자료를 참고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유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상식화된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아이디어 표절)

1.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예시,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3.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또는 기고된 원고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내용 표절)

'내용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내용 일부를 표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내용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제10조(중복게재)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학위 논문 포함)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에서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다만,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학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장 또는 학위 수여 기관의 장)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나 학위논문도 이에 해당한다.
3.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11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주장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의)

1. 논문이 학술지인 『時調學論叢』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인용 표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인용의 분량이 지나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표절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위조, 변조, 표절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4조(비공개 심사 원칙)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제15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로 삼가야 한다.

- ①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②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③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④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16조(회피·제척에 관련된 윤리적 행위)

논문을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회피나 제척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시 주의사항)

1. 논문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 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2.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평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18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피심사자의 논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자로서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에 자신의 입장과 도덕

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 제3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9조(기본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 제20조(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하되, 회피·제척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 제21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회피, 제척 사유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제22조(회피, 제척)

논문 투고자와 사제 관계이거나 동일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 또한 투고자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시에 학위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분야의 전문가가 회소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논문 비공개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심사 결과의 전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논문 게재 여부 판정과 함께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별도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제25조(투고자 이의제기의 처리)

논문 투고자가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편집위원장이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의 제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26조(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논문 심사자
- ② 실명의 제보
- ③ 실명의 신고

④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저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일주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 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국문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국문학계의 관행과 특수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국문학계 전반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기간)

1.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예비조사
  - ② 본조사
  - ③ 판정
2. 예비조사는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4.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5.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로 인한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제30조(제보자, 피조사자 보호)

1. 제보자는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였거나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1.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조사위원 전체에서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조사위원이 5명인 경우 외부인은 1명도 가능)
  - ②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학회 소속이 아닌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3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실명의 경우)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저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전달하도록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대한 실행 여부를 조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35조(판정)

1.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사위원회에서 피조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면, 조사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3.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사실 전달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양형 등의 조치가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8조(기록보관)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한다.

### 제39조(문서 등의 공개)

관련 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명단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참여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장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 제40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제출)

학회 회원은 논문 투고 시, 투고한 논문이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및 세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時調學論叢』 第50輯 (2019년 1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한국시조학회 출판·편집 규정

(2019년 12월 14일 개정)

### 제1조 총칙

1. (발간 목적) 시조 작품, 이론, 교육 및 상호 학제적 연구와 비평을 진작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2. (원고의 성격) 1항의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으로써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
3.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한국시조학회 회원으로 정한다. 단, 기획 특집에 한하여 한국시조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비회원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4. (간행)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2002년 12월 30일에 『시조학논총』 제18집이 발간 되었으므로, 『시조학논총』 제19집은 2003년 7월 31일에 발간하기로 한다).

### 제2조 연구 윤리 활동

5. (연구 진실성)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7.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
  -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와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접수한다.
  - 2) 제보 접수 후 40일 이내에 예비 심의 및 본 심의를 완료한다.

3) 제보자와 동의자의 신원은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만 공개될 수 있다.

8. (예비심의회) 제보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예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1) 심의회장: 부위원장이 예비심의회를 관장한다.
- 2) 심의위원: 위원 중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 3) 특별위원: 제보된 부정행위의 사안과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 4) 심의위원과 특별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

9. (예비 심의)

- 1)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로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2) 심의와 판명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판명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판명은 예비심의회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경우 결과 보고에 소수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 4) 예비 심의의 판명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어느 쪽으로도 2/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명불가'로 결과 보고한다.
- 5)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자, 혹은 제보자를 예비 심의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함께 직접 면담할 수 있다.

10. (본 심의 및 판명 결정)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본 심의

- 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을 결정한다.
- 2) 예비 심의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어 결과 보고된 사안에 대한 추인 결정과 ‘판명 불가’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판명 결정은 본 심의 참석, 위임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 3)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에 대한 추인이 부결되는 경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 결과물의 저자(들)가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각각의 판명에 의해 책임을 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학회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 한다.
- 1) ‘부정행위’로 판명된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on-line 출판과 DB의 탑재 파일을 삭제한다.
  - 2) ‘부정행위자’는 1차시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2차시 영구제명한다.
  - 3) 학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차기호 학회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 의에 의해 심의과정 및 결과, 소수자 의견, 조치 사항을 포함한 ‘공시’ 를 발표한다.
  - 4)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책임을 지는 제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이 사회의 결정으로 의뢰할 수 있다.
  - 5)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재단 및 기관에 심의결과를 이 사회의 결정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3조 원고의 전체 형식

12. (표기)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의 경우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외국어를 넣는다.
1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14. (저자)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저자명을 앞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명 또는 교신저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앞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아랫부분에 기재하여 제1저자와 참여저자, 교신저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15. (초록) 각 논문마다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제목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로 출판 지면 1쪽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는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영문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1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6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Keywords)를 명기한다. 한글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쓰고 영문 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쓴다.
17. (참고문헌)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12 포인트 굵은글씨체)라는 제목 하에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한다. 서지 정보와 인용 횟수는 인용지수(citation impact)의 진산화와도 관련되므로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고용 자료는 제외한다.

#### 제4조 논문의 편집 형식

18. (전체 편집)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1) 용지 설정 :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 2) 용지 여백 :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 3) 문단 모양 : 여백은 왼쪽 0ch, 오른쪽 0ch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 4) 글자 모양 :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19. (목차) 목차의 장 절 항의 표기 형식은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아라비아 숫자-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 I ……  
 1 ……  
 1) ……  
 (1) ……  
 ① ……

20.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서 기술하며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한다.

21. (각주) 자료의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1)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

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신는다.

2) 각주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설정한다.

3) 각주의 인용 문헌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국문도서 예) 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 대방출판사, 1986, 19쪽.

영문도서 예) Groothuis, Douglas R., Unmasking the New Age,

Downer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p.23(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류준필, 「안민영의 매화사론」,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95, 570쪽.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저서명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4) 학위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수.

예) 최동국, 「조선조 산수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1992, 25쪽.

(5)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 발행처(또는 발행주

체)명, 출판년도, 쪽수.

예) 김상진, 「'시조와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시조학논총

』 50, 한국시조학회, 2019, 7쪽.

(6) 신문의 경우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 (7) 웹사이트의 경우  
  -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 (8)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 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 인용한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 22. (참고문헌표기)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을 원칙으로 하며 각 주의 인용 문헌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영문 저서의 저자명은 First Name, 2nd Name의 이니셜으로 한다.
- 23. (강조)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밑줄 혹은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4. (기타) 논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을 따른다.
  - 「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 강조, 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 25. 규정되지 않은 양식은 일반 논저 저술 양식을 따른다.

### 제5조 투고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절차와 게재

- 26. (기고) 원고는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신청에 접수하거나 편집이사에게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7. (논문 게재 신청서) 논문의 심사는 필자를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필자의 신상 명세는 투고 당시 작성한 ‘논문 게재 신청서’에만 명시한다.
  - 1) 신청서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의 이름, 필자의 소속 직장, 우편과 이메일

일 주소, 전화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28. (시간과 횟수)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상반기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하반기의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한다. **연속 게재는 2회까지 허용한다.**
29. (심사)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마감일 경과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접수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편집인이 의뢰한다. 심사평은 투고논문 심사조서 양식을 사용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심사조서를 검토한 후 게재 평가를 관장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 6) 특집 혹은 청탁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0. (게재 평가) 심사위원의 평점과 게재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조서의 10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당 5단계(A:아주 우수 1~0.9, B:우수 0.8~0.7, C:보통 0.6~0.5, D:미흡 0.4~0.3, F:아주 미흡 0.2~0.1)로 평가한 뒤 점수 합계를 산출한다.
  - 2) 심사위원의 산출점수가 8점 이상은 (1)게재, 7.9~6.0점은 (2)수정후 게재, 5.9~4.0점은 (3)수정후 재심사, 3.9점 이하는 (4)게재 불가이다.
  - 3) (2)수정후 게재, (3)수정후 재심사, (4)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4)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8점 이상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점 미만이면 수정후 게재
- 5) '수정후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7.9~6.0점 사이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6) '수정후 재심사' 최종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게재불가'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3.9점 이하
  -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4.0점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사
- 31. (수정) 게재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들이 명시한 수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편집위원회와 해당 심사위원의 합의로 처리한다.
  - 1) 수정 이행에 대한 조치가 5일 이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 집필자에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을 학회지 발행 이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학회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 및 발간

- 32. (교정 및 편집과 공동저자) '게재'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는 제 1저자와 제 2저자의 구분은 순서대로 하며 제 1저자 이름 앞에 \*표를 표시한다.
- 3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투고한 필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기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 34. (저작권) 『시조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시조학회는 저작권을 가

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 편집 위원회의 구성

35.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36.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편집위원장 1인과 최소 7명 이상 최대 2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38.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성과가 높은 원로 학자를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시조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이 뛰어난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8조 부 칙

39. 본 규정의 시행과 수정은 한국시조학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0. 본 규정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본 규정의 시행으로 이전의 논문 심사규정과 논문투고규정은 폐기한다.)
41. 본 개정된 규정은 2014년 6월 21일부터 적용한다.
42. 본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43. 본 개정된 규정은 2017년 6월 1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4. 본 개정된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5. 본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6. 본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시조학논총』 ( ) 논문 평가 심사서

소속 대학( ), 심사자 성명( )

<b>논문 제목</b>	
------------------	--

	평가지표	평가등급	A	B	C	D	F
			0.9~1	0.7~0.8	0.5~0.6	0.3~0.4	0.1~0.2
<b>평가</b>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제인가?					
	2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인가?					
	3	기존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검토가 적절한가?					
	4	논리적 전개(서론, 본론, 결론)가 타당한가?					
	5	논문의 전개에 통일성과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가?					
	6	어휘, 문장 및 문단의 구조가 분명하고 적절한가?					
	7	체제 및 형식이 원고 작성 요령에 맞는가?					
	8	사실의 정확성과 근거가 명확한가?					
	9	정확한 인용을 하고 있는가?					
	10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내용이 적절한가?					
<b>총괄 판정</b>	◎ 총점 : ___점 *게재: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위의 평가 항목에 의거해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 및 형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을 기입해 주시고, 해당 결과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b>총평</b>							
<b>수정 요구 사항</b>							

\* 총평 및 수정사항 난이 부족한 경우 다음 면을 이용하십시오.

## 한국시조학회 회원 주소록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	강경훈	성경대학교		031) 702-71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APT 109-2301		123
2	강관진	중앙대학교		010) 3709-129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22
3	강구을	동양대학교	054) 630-1204	054) 637-2259	(직장) 경북 영주시 풍가읍 교촌동 1번지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 (주택) 750-754 경북 영주시 신비로 215 1동 610호 현대강변타운 bongarrm@daum.net	윤리위원	154
4	강명주	중앙대		010) 3620-1041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30 청담신원아침도시마인 413호		247
5	강명혜	강원대학교 국문과	033) 250-8120	033) 253-6265	강원도 춘천시 교동 148-18 019-367-5795 MYONGHYE@chollian.net	지역이사	54
6	강성상	한국문인협회		010) 7937-75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청솔마을 609동 205호		267
7	강영미	서경대학교		016) 273-4539	성북구안암동고려대학교한국학관A동106호		237
8	강진구	중앙대학교	02) 820-5903	010) 2109-5904	서울시동작구흑석동221중앙대국어국문학과		224
9	강혜숙	민족사관 고등학교		02) 226-3838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목련APT 106-201		92
10	강호정	한성대		010) 2423-0863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42길 301호	홍보이사	240
11	고경식	경희대학교 국문과	02) 961-0019	422-1968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26
12	고미숙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공7단지APT 704-1102		80
13	고순희	부경대 국문과	051) 620-6619	051) 621-9410	부산시 남구 대연동 599-1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kosb@pknu.ac.kr		139
14	고승관	제주대		010) 4612-7854	제주시 금월길 66(이리2차마다움) 202동 401호	총무간사	248
15	고은희	경기대학교		010-3308-8081	용인시처인구경기동로705번길28 세광엔리치타워 108동 801호	편집간사	237
16	공종원	중앙일보사 논설위원	02) 7515-253	02) 353-1830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논설위원실		17
17	곽지영	중앙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14
18	구사회	선문대학교			336-708 충남 아산시 당경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4
19	구수영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042)822-0101~11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45-2		11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0	구애영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8254- 1509	인천시계양구 황어로139 이화산동아 203-301		286
21	국윤주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30-313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3
22	국효문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71-8211	062) 232-2929	광주시 동구 핵동 612-24		82
23	권근화	경기대학교		010 9275-171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7길16, 101동1906호(신매동시지태양하이츠)		273
24	권두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880-6048	031) 423-3089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우성아파트 201-1502		147
25	권성훈	경기대		010 5305-497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신현대아파트 1동 301호	총무이 사	242
26	권순희	고려대학교	02) 3290-2501		서울시 성북구 인암동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6
27	권오경	부산외국어대 학교	053 850-7761	053) 763-7355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산55-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7
28	권용주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	02) 3408-3463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		87
29	김 중	조선대학교 문리대국문과	062 222-8151	062) 222-5669	광주 서구 화정3동 우미APT 102-210		12
30	김갑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2260-3146	02) 412-8712	서울 송파구 삼삼동 우성APT 283-105		32
31	김경옥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8870-384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34 6209동 501호		303
32	김교은	통신대학교		010 9333-073	전남 평양시 중마로309 덕진봄아파트 203동 202호		312
33	김금남	남서울대학교		010 3669-655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강아파트 410-304		210
34	김기현	경북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53 950-5118	053) 741-689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 gihyun@knu.ac.kr		42
35	김난주	종로구안국동 풍문여고	02) 732-5574	02) 886-2713	서울 관악구 봉천1동 181-6 현대APT 101-1408		79
36	김남규	고려대학교		010 9145-6795	부천시 역곡로 472번길140, 102동 302호	총무간 사	306
37	김대행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02) 362-0151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9-96		28
38	김동준	동국대학교	02) 260-3391	010 2017-0719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삼성(아) 107동 1801호 kidoon@hananet.net	평의원	1
39	김명순	대구한의대학 교	053 819-1315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번지 대구한의대 한문학과		152
40	김명준	한림대학교	033 248-3423	010 6526-1332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연암관 4층 2430호 국어국문학과		111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41	김명희	강남대학교 국문과	(01) 2803-677	(01) 263-6174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산 6-2 강남대학교 kmh@kns.kangnam.ac.kr		50
42	김민기	경북대학교		(03) 950-5825	대구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67
43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02) 2243-8282	(011) 9586-008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6동 304호	섭외이 사	180
44	김병국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내동 산 30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31
45	김보람	고려대학교		(010) 9332-1166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63번길 13 롯데캐슬 골드파크 102동 2001호 우) 11629		316
46	김상선	중앙대학교	(02) 829-5031	(02) 589-219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419-50 (우) 156-091	평의원	5
47	김상진	한양대학교		(010) 4824-5313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금강아파트 910동 1602호		163
48	김석배	금오공대	(054) 467-4359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금오공대 인문사회과학부		185
49	김선풍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02) 812-0944		서울 중구 신당2동 432-13 장충근린빌라 102		83
50	김선희	대전 충리효등학교	(042) 633-7684	(042) 635-5837	대전광역시 태극구 범동 보람APT 114-502		126
51	김선희	경기대학교		(010) 2369-3361	경기도 과천시 쇠재로30, 710-1801 (금촌동 서원마을)		288
52	김성기	조선대학교 국문과	(062) 230-6515	(062) 265-8190	광주 북구 각화동 471 금호타운 12-202		72
53	김성동	선아고등학교		(018) 351-566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랜더APT 4-1306		213
54	김성면	전북대학교	(041) 956-6612	(063) 245-0056	전주시덕진구우에2가롯데아파트108동603호		161
55	김성문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820-6476	(010) 7727-753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문과	기획이 사	204
56	김성찬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5330-0079	서울 강동구 상일로 74 313-405 (교터리엔파크) 우편 05287		293
57	김세림	한양대		(010) 4652-2852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301호 국어교육과 사무실	홍보이 사	250
58	김승재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7315-7357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길 10 (일산동)		291
59	김시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02) 290-0089	(02) 557-6905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31
60	김신중	전남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62) 530-3137	(062) 373-8383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 국문과 scim@chonnama.ac.kr	지역이 사	64
61	김양희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106-2222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1 (혜화동)		282
62	김영돈	제주도청 문화체육부	(064) 23-6141 교)306	22-8856 53-1838	제주시 일도2동 162-31 신산비화APT 다-107		35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63	김영운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연구실	(031) 709-8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08-7 정문연사택 101-4		104
64	김용기	중앙대		010) 6207-7741	(215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금호타운아파트 105동 1801호	연구이 사	245
65	김용찬	한중대학교 국문과	(033) 520-9203	(033) 535-2650	강원도 동해시 차흥동 산 119 한중대학교 국문과		93
66	김우연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6626-6 162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16길 19, 105동 1501호(월성동 코오롱하늘채)		290
67	김원태	(주)MODA 대표이사	86)216-11 3-5233	86)139-16 60-0701	3/Floor, 3B Panish Bldg. No.158, Guyang Rd. Shanghai, China.		227
68	김월수	경기대학교		010) 9730-3345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6길7, 신도브레이크아파트 103동 1502호		275
69	김은미		(031)371- 6211~4	(031) 92-088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월비구 379-2501		74
70	김의숙	강원대학교 국문과	(033) 50-6114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57
71	김인구	춘천간호보건 전문대학	(033) 240-9024	(033) 261-577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45 금호APT 201-201		39
72	김임순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563-3799	부산시 연제구 고봉로 200, 111동 1806호 (연산G+아파트)		300
73	김정민	수원대학교	(032) 552-9407	010) 5272-9407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74-7 대양하이츠빌차 1011호		209
74	김정오	중앙대학교		011) 630-600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문과		186
75	김정혜	한성대학교		010-3377-1 041	(2497)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8가길 52		284
76	김정화	동국대학교		(032) 438-4709	인천시 남구 관교동 성시APT 102-703		94
77	김정화	영남대학교		(053) 986-6262	대구시 동구 둔산동 214-1번지		165
78	김종규	대불대학교		(061) 273-5770	전북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307-304		146
79	김종빈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678-9729	전북 진주시 덕진구 빛내2길 17, 태화송림터미 307호		304
80	김종환	육교3사관학교	(054) 330-4611	010) 3337-3926	경북영천시교경면창하리사서함35-9호		150
81	김좌기	전교장		(033) 652-5279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40-23 대림맨션 1003		53
82	김주식	강원대학교	(02) 956-4256	010) 3243-4253	(우)132-758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서원아파트 104동 706호 juserk@naver.com		237
83	김준욱	여수대학교 국문과	(062) 659-3556	(062) 262-8401	광주 북구 가좌동 금호타운 12-501		97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84	김중열	군산대학교 국문과	(063) 60-1315	(02) 336-284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16-38		71
85	김지용	전교장	(081) 88-5300		인양시 동안구 평촌동 888-6 초원(大元)APT 309-130G		30
86	김지은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915-2731	(010) 3686-7734	서울시 성북구 상원곡동 동아아파트 105동 1303호	편집이 사	225
87	김진대	수원동생명과 학교등학교		(010) 3411-7352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성로276번길19-3		256
88	김진희	인천대학교		(016) 466-4435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6
89	김정원	경기대학교 국문과	(031) 249-9131	(010) 2266-9703	서울시 성북구 경위동 219-49	국제이 사	112
90	김태경	전국대학교		(010) 8550-4522	경기도부천시석천로107(중동) 보람마을 동남아파트 1125동 1801호	편집간 사	253
91	김태용	경기대		(010) 3928-043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저리 산호아파트 103-803		244
92	김태용	성균관대		(010) 3928-043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저리 행복마을아파트 113동 304호		238
93	김태준	동국대학교 국문과	(02) 260-3147	(02) 815-8888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36
94	김풍기	강원대학교 국교과	(033) 250-6618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7
95	김학성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02) 760-0238	(02) 704-2903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삼성APT 111-502		70
96	김현선	경기대학교		(018) 356-9108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0
97	김현장	경기대학교		(010) 3601-5636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로 22 (백제 동물병원)		270
98	김형태	연세대학교	(033-760-22 18	(010) 3224-7963	(264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263
99	나정순	한남대학교		(011) 768-394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4 트윈타워 B동 1405호		156
100	남대국	삼육대학교		(010) 6418-173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쌍용예가 아파트 3707동 804호		258
101	남동걸	인천대학교	(032) 441-5073	(010) 4326-2933	인천시 서구 검암동 신명3차APT 302동 1004호		99
102	남상득		(042) 863-7173	(042) 489-5731	대전 광역시 서구 월령 3동 황실타운 아파트 106- 607		132
103	노규호	한중대학교	(033) 520-9204	(010) 2557-9353	강원 동해시 지룡동 한중대 한국어문화부		219
104	노인숙	교원대학교	(043) 230-398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 교원대 부속고등학교 noinsok@hanmail.net		133
105	노경수	한국문인협회		(010) 2604-0650	61267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60번길20 운암동 나산건강아파트104동 303호		268
106	노인숙	경기대학교		(010) 8732-67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6-808		27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07	潮문 子			(02) 751-1788	日本國 名古屋市 昭和區 元高町 6-17		49
108	류경환	천안 북일고등학교		(02) 341-1639	경기 부천 소사구 범박동 33-2 2/7 연립 가-204		78
109	류성신	경기대학교		010) 2172-2714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50. 419동 706호(금촌동. 후곡마을) 우편번호:10920		280
110	류수열	한양대학교		(03) 220-2320	서울시성북구한양대학교국어교육학과		170
111	류재순	(주)미창석유 대표이사		(051) 403-6441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추석회사 미창석유		228
112	류찬열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02) 820-5905	010) 6366-288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부회장	215
113	류해춘	성결대학교 국문과	(031) 467-8153	016) 343-32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한국학부 국어국문학전공 rhc@sungkyul.edu		58
114	문무학	영남일보	(053) 757-5113	(053) 985-7524	대구 영남일보 논설위원실		56
115	문영오	동덕여자대학 교 국문과	(02) 913-2001 ~5	(02) 391-8063	서울 종로구 홍지동 63-5		19
116	문주석	영남대학교			대구시 동구 방촌동 1113-284 대천빌라 101호		162
117	민병관	부산대학교 국문과		010) 8581-5493	부산시 금정구 정전동 부산대학교 국문과		205
118	박규홍	경일대학교	(053) 850-7105	(053) 732-2033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601번지 시지보성타운 203-903 khpark@bear.kyungil.ac.kr		68
119	박기호	신구전문대학 출판학 강사		(02) 782-98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2 은하APT C-903		63
120	박길남	한남대학교	(042) 629-7311	(042) 226-5080	대전시 중구 대사동 계룡APT 2-1501 Yu6080@komet.net		95
121	박명희	전남대학교 국문과 강사	(062) 520-6631	(061) 333-2095	전남 장성군 영천리 944-12		66
122	박미영	백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1) 550-0511	010) 7448-6511	충남 천안시 안서동 천안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역이 사	145
123	박상영	대구가톨릭대 학교 국어교육과	(053) 850-3114	010) 8817-415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로 13-13 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201
124	박애경	연세대학교	(02) 909-4389	010) 3248-4389	서울 성북구 정릉2동 192-175 vivelavie@hanmail.net		142
125	박연호	충북대학교	(043) 261-20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 국문과	지역이 사	184
126	박영주	강릉원주대학 교		010) 9219-9927	강릉시 죽헌길7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편집이 사	310
127	박영준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820-5905	010) 8389-9091	서울시 도봉구 방학4동 우성1차 아파트 104동 604호		194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28	박영환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10) 8999-9833	서울 중구 필동3가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218
129	박요순	한남대학교 국문과	042) 672-6410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45-2		34
130	박용관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053) 950-781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198
131	박을수	순천향대학교 국문학과	041) 542-4755	02) 355-5885	(우) 336-912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56	평의원	4
132	박종수	용인대학교			경기도용인시삼가동신117-6용인대학교		125
133	박준규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20-6632	062) 55-5205	광주 북구 중흥동 329-12		61
134	박지애	경북대		010) 8011-9804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239
135	박진형	용인한국외국 어대학교부설 고등학교		010) -6290-030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8번길 34, 102동 1105호		254
136	박철희	서강대학교 국문과	02) 715-0141	02) 723-8093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20
137	박현숙	숙명여자대학 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현대아파트 201동 2303호		172
138	박형준	동국대학교		010) 3893-1950	04739)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40길 25 옥수현대아파트 108동 202호	홍보이 사	322
139	배경희	경기대학교		010) 4053-4092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9길 59 현대힐스테이트 2021동 2502호		278
140	배우식	중앙대학교		010) 5337-3322	(1698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 71번길 40-10 1층(청탁동)	기획이 사	296
141	배은희	인천대학교	032) 770-8110	010) 4535-1989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편집이 사	144
142	백수아	한국가사문학 진흥위원회		010) 6243-4366	전남 광양시 광소3길 27	정보이 사	238
143	백순철	대구대학교 국문과			경기 과천시 아들동 산58 대방아파트 107동 401호		109
144	변도우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6747-7727	부산시 동구 초량로 94-1 J빌딩 (주)케이코		265
145	변성환	경북대학교 국문과	053) 950-510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
146	변중현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bjhyun@kyungnam.ac.kr		143
147	서영숙	한남대학교	02) 708-4950	02) 396-2574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4-2 효동빌라 B동 101호		171
148	서정화	경기대학교		010) 8450-4972	(162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5번길 15-1, 402호 (장안동, 서호빌라)		264
149	서종남	성신여자대학 교 국문과		02) 469-3886	서울 양천구 신철동 313 목동신시가지AAPT 903-401		102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50	성무경	성균관대학교		(02) 505-8137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49
151	성호영	인천대학교	(02) 460-3464	(02) 469-2722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번지 인천대 국문과		100
152	손대현	경북대학교 국문과	(053) 950-510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
153	손영화	전북대학교		(053) 451-2351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종리 875-4		178
154	손예화	경기대학교		(010) 3483-7268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9다길 22		280
155	손은규	제주대학교	(064) 754-3216	(010) 3080-27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아리알동,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지역이 사	220
156	손찬식	충남대학교 국문과	(042) 821-6501	(042) 863-6302	대전시유성구궁동220충남대국문과		128
157	송원호	고려대학교		(02) 930-7428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33-15 30/1		148
158	송인영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639-54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동길 47-1		292
159	송정란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내동 대학로 119 건양대 건양회관 419호		193
160	송종관	영남대학교		(053) 742-2489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85-11 5/2 chang92@chollian.net		69
161	신경숙	한성대학교 국문과	(02) 760-4014	(010) 3069-4014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국문과 diaz@hansung.ac.kr	지역이 사	130
162	신상성	용인대학교	(031) 417-5258		경기도 안산시 사동 요진APT 205동 204호		124
163	신연우	서울산업대학 문예장악과	(02) 970-6294	(02) 2644-2569	서울시 양천구 목6동 목동APT 613-1904		105
164	신영명	상지대학교 국문과	(033) 730-0217	(033) 761-0196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88
165	신용대	충북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43) 261-2029	(043) 262-343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2-4		14
166	신용순	중부대	(041) 750-6882	(010) 4572-9654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중부대학교 인문학부		153
167	신은경	우석대학교 국문과		(010) 8944-489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00		52
168	신성섭	경민대학교	(031) 828-7143	(010) 4188-7143	경기의정부시가능동562-1		217
169	신현규	중앙대학교		(010) 2299-889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223
170	안동주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91-8211	(062) 227-2450	광주 동구 용산동 200-6		76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71	안민정	선문대		010-8880-030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41
172	안영길	성결대학교	(031) 467-89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 국문과		183
173	안지영	서강대학교	(031) 901-32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마을 극동APT 202-702		118
174	양훈식	선문대학교		010) 2441-353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85 동일하이빌 2003동 1403호		307
175	염장권	광주교육대학 교		010) 5153-4121	광주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우.61204)	정보이 사	301
176	오동춘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제장작	(02) 734-5048	(02) 2602-4234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61-114 ODC@post.or.kr		62
177	오민필	울산 남고등학교	(052) 72-7896	(052) 73-3016	울산시 남구 신강3동 491-20		41
178	오선주	전북대학교	(063) 270-3167		전북 군산시 태어면 지종리 875-4 전북대 국문과		190
179	오승희	동백문화재단 출판 문화국	(051) 643-6268	(051) 56-8735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4-5 7/4		51
180	오영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02) 434-5195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21-16		179
181	오종각	강동구 상일동 삼일공고	(02) 428-0732	(031) 577-3975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우성APT 114-1002		77
182	용창선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4202-3109	목포시 양율로 42(대성 엘에이지 컨트리뷰아파트 106-605)		320
183	우은숙	경희대학교		010) 4246-56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내로 239. 포스코더샵APT 103동 1802호		317
184	우응순	고려대학교	(02) 3290-196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 국문과		181
185	원용문	한국교원대학 교	(043) 230-3511	(02) 452-6786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1-53	평의원	6
186	유성호	한양대학교		010) 8646-043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회장	302
187	유유래	조선대	(062) 230-7628	010) 9730-2630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309조선대학교기초 교육대학자유전공학부		239
188	유지화	서울교대	(02)918-396 3	010) 5267-3963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19번지 동신아파트 101동 1402호		238
189	윤승준	민족문화추진 회	(02) 389-5563	(02) 299-2394	서울 성동구 옥수2동 70 22/4		60
190	윤여송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71-8211	(062) 371-4196	광주 서구 생촌동 96 광명하이츠 101-911		75
191	윤태현	동국대학교	(02) 290-3146	(02) 442-483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미주APT 5-1102		120
192	이격주	경기미급시급 곡중학교	(031) 592-7087	(031) 64-1702	경기 남양주시 전건면 사릉리 626-2 주공APT 105-104		73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93	이경민	경희대		010 7196-19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보라매경남아너스빌) 108동 703호		249
194	이경영	경기대학교	02)390-51 14	011) 603-317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1	회장	221
195	이경철	중앙일보	02) 751-5589		고양시 주엽2동 문준마을 대원APT 1805-301		122
196	이계홍	문화일보	02) 3701-5290	02) 445-0148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APT 114-602		121
197	이규원	경기대학교		010) 7349-288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0 리버뷰자이 104동 2004호		319
198	이남순	오늘의시조시 인회의		010) 5411-6237	12246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219번길 89		287
199	이노형	울산대학교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번지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9
200	이대구	장학사	042) 580-7441	042) 525-9795	대전시 중구 문화1동 279-2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dgl@cmoe.or.kr		106
201	이동연	이화여자대학 교 강사	02) 360-2139	02) 383-2812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104동 110호		89
202	이두의	경기대학교		010) 9885-2004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3가길 53, 101동 1704호	충무간 사	272
203	이명현	중앙대학교	02) 820-5904	010) 7346-2854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08
204	이민홍	성균관대 사범대 한문과	02) 760-0114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차APT 200-102		43
205	이병기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063) 220-217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북대학교		21
206	이병용	중앙대학교	02) 820-5084	02) 423-670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43-33 태종아트빌 B동 302호		189
207	이병주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02) 267-3131	02) 392-0916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22		24
208	이상보	국민대학교 국문과	02) 914-3141 -5	02) 286-8774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186-1 미성맨션 5-1002		18
209	이상원	조선대학교	062)230-6 560	062) 653-285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7
210	이석수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546-5948	경북 김천시 약물새기길 18 - 4		294
211	이송희	전남대학교		010) 3180-8492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69번길 43 102-1404(용봉근로아파트)	기획이 사	308
212	이수곤	서경대학교	02) 242-9022		서울시 동대문구 정인3동 456-19		114
213	이순희	경북대학교		010) 8218-5253	(41462)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4길 61 이지메아파트 102동 302호		236
214	이승남	동국대학교	02) 260-3146	02) 834-24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APT 15동 1702호		11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15	이승돈	대원고등학교	(02) 447-9352	(02) 424-7536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APT 452-105		13
216	이승현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7646-5334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46길 35		257
217	이영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02) 300-1469	(02) 307-7484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18 영지출판사/ H/P. 019-306-7484 Lyji@korea.com		8
218	이영태	인하대학교	(032) 860-8717	(011) 264-9472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88
219	이원형	배재대학교		(010) 4467-2779	대전시 서구 연지길 14번지 배재대학교 국문과		206
220	이원희	중앙대학교	(02) 6247-5321	(011) 9968-2845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0 삼호가든4차아파트 나-903		226
221	이은성	성균관대학교	(02) 744-8447	(011) 9917-8447	서울시중구동승정50-36번지202호		191
222	이은주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9968-1423	수원시 영통구 동안원천로1109번길 37. 한더와 A 106동 405호		315
223	이임수	동국대학교 국문과(경주)	(054) 770-2120	(054) 743-438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 경주캠퍼스 lis@dongguk.ac.kr		33
224	이재곤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2432-6754	경기도 서울시 옥구원동로 399, 209동 103호(건영2차 아파트)		274
225	이정선	한양대학교		(02) 335-1418	서울시중로구기동동진발리2동102호		173
226	이정옥	위덕대학교		(054) 760-1692	경북 경주시 위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8
227	이종건	수원대학교	(031) 220-2389	(02) 2602-4615	서울 강서구 화곡1동 424-6 43/4 017-255-4615 jlee43@chollian.net		48
228	이종문	계명대학교		(010) 9750-5368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실역북로 55 동화아이워시 107동 2001호	지역이 사	314
229	이종출	증부대학교	(041) 750-6782	(02) 581-1690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6-1 현대APT 10동 505호	평의원	15
230	이중원	한양대학교		(010) 9229-0806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대림아파트 7동 1001호	편집간 사	252
231	이진령	인천대학교		(031) 203-7235	수원시 팔단구 영통동 955-1 황골 주공APT 148-403		101
232	이찬옥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820-5086	(017) 235-2734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3-5 lcwchungang@hanmail.net	평의원	85
233	이창식	세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267-81 31 교)3132	(02) 591-0323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 21-1 세명대학교		45
234	이창환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	(062) 520-6631	(062) 529-2124	광주 북구 중흥1동 716-25		65
235	이채영	동국대학교		(010) 2362-8822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효관 2층 의사소통교육부 사무실		211
236	이충희	麗水港 海潮社士		(010) 8207-1409	전남 순천시 상사면 마물리 461-13		235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37	이태희	인천대학교	032 770-8646	019 375-5627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 인천대 국문과		192
238	이택동	카톨릭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63-1		135
239	이현자	경희대학교			양천구 신정6동 목동 아파트 1405-403		129
240	이형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3290-2491	010) 6275-5070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leehd@korea.ac.kr		141
241	이서연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2566-2316	서울 중로구 홍지문길 52 103호(상명하이츠빌라)		276
242	이홍식	한양대		010) 7587-7703	서울시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40
243	이화형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031) 201-2270	041) 632-6227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경희대학교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평의원	90
244	임기중	동국대학교	02) 260-3054	02) 543-54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20-1203		22
245	임미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063) 270-3736	010) 3835-7202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234
246	임석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247-6233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64 102동 801호(삼호아파트)		289
247	임유경				미국		136
248	임재욱	경북대		010) 4139-3638	대구시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신관 416호 국어교육과		241
249	임종찬	부산대학교 국문과	051) 512-0311	051) 755-4602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01-43 금정빌라 501호	평의원	37
250	임주동	경기대학교		010-3682-4 876	전북 익산시 선화로 10길 17, 106동 801호		281
251	임주탁	부산대학교	051) 510-2601	011) 9609-416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32
252	임채주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9267-774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원로 34,104동 303호 (대원동 꿈에그린)		321
253	林德道	공주시범대학 교	041) 850-5114	041) 852-3338	충남 공주시 중학동 173-1		10
254	장기숙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8717-4010	경기도 과천시 강천258(금촌동)		261
255	장성진	창원대학교		055) 279-7207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5
256	장정수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8
257	전규태	전주대학교 국문학과			서울 마포구 상수동 86-32		9
258	전원범	광주교육대학 국어교육과	062) 520-4020 ~1	062) 262-4816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07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59	전재강	안동대학교	(054) 820-5358	(011) 9597-7622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51
260	전준걸	동국대학교	(02) 260-3114	(02) 802-2296	서울 금천구 시흥5동 253-5		55
261	정경수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887-3865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513, 101-1903(개동리수빌@)		309
262	정기철	한남대학교	(042) 629-7800	(010) 2408-8253	대전시 서구 도마2동 대아APT 106-902		96
263	정병기	영남대학교		(010) (06-2269)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55
264	정세정(정별샘)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9331-5433	경남 하동군 금남면 은방길 39		311
265	정수자	이주대학교		(010) 3300-314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다리로 306번길 13, 104-608	연구이 사	285
266	정영신	명지대학교 (사진작가)	(02) 375-8265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77-12 HP. 017-256-8265		116
267	정우락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국문학전공		169
268	정재호	고려대학교 국문과	(02) 94-4381- 9	(02) 92-270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8-17		23
269	정종진	서강대학교	(02) 635-450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3가 한양APT 3-804		115
270	정진희	경기대학교		(010) 3656-2497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서약길 33		269
271	조규연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7739-6760	종로구 평창 16길 18, 202호		318
272	조규익	송실대학교 국문과	(02) 820-0326	(02) 533-8442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05번지 우성아파트 302-1103호 kicho@saint.songsil.ac.kr		59
273	조명숙	명지대학교 (시인)	(02) 3151-0622		서울시 은평구 용암4동 263-171호		117
274	조완호	도서출판 해진사과 대표	(02) 324-7313	(02) 483-0719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13-701		86
275	조유영	경북대학교		(010) 3293-3069	대구시 경북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12
276	조태성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30-3130	(010) 2614-383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
277	조태흠	부산대학교	(051) 510-2082	(010) 2202-2082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6
278	조평환	건국대학교	(043) 840-3322	(011) 9919-9663	충북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230
279	조희경	성결대학교	(031) 467-8922	(010) 2354-058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 국문과		182
280	주강식	부산교육대학 교	(051) 500-7215	(051) 528-6894	부산 해운대구 반연동 현대APT 502-105		38
281	진순분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4163-2604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62,101동 3002호(오산동, 서해그랑블)		266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82	진애라	경희대		010) 5671-6842	화성시 동탄반석로 41 나무마을 신도브래뉴 619-301		246
283	진재식	단국대학교 (천안)	041) 550-3252	041) 573-70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1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법대 교학과		98
284	차주원	광문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02) 426-6642	02) 442-6669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APT 331-206		91
285	차혜원	강남대학교	031) 2803-871	011) 235-6479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6-2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134
286	최 옹	강원대학교	033)250-8 122	011) 365-908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229
287	최 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02) 392-0131	02) 923-8748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25
288	최강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02) 880-7662	02) 584-7423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27
289	최규수	명지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림APT 201-101 cho63@dreamwiz.com		140
290	최동국	인천대학교 국문과	032) 770-8116	032) 505-7878	인천 북평구 삼곡동 142-3 경남APT 106-1007	평의원	16
291	최성아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7520-3360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181, 1101호(명랑동 금림빌라자 )		299
292	최연근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3864-9388	경기도 김포시 신곡로 48, 510-803		277
293	최영희			02) 545-0951	서울 강남구 삼성2동 해청APT 나-505		103
294	최용수	경상대학교		055) 751-5843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4
295	최은숙	경북대학교	053) 850-7763	053) 383-1180	대구시 북구 북현동 서한타운 106동 903호 olive7007@daum.net		138
296	최재남	이화여자대학 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47
297	최재선	한국산업기술 대	031) 496-8342		경기도 시흥시 평왕동 2121번지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197
298	최철호	경북대학교		053) 761-7326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613번지 신세계아파트 3동 305호		155
299	최한선	전남도립대학	061) 380-85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산 262전남도립대학 문화예술학부	부회장	233
300	최호석	부경대학교	051) 629-5418	010) 2485-603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1
301	최홍렬	중앙대학교		010) 6390-361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3-5		187
302	최희선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5393-7729	용인시 처인구 송주로 231-3		285
303	표문순	한양대학교		010) 9130-4405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70, 호매실동 CS아파트 106-704		259
304	하경숙	선문대		010) 3169-211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 112동 1503호	섭외이 사	243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지택			
305	하순희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2588-0336	창원시마산 합포구 3-15대로 154,107-1301(벽산블루밍 A)		283
306	하종기	중앙대학교		010) 4606-5259	17785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40번길 46, 101동 1602호(한국아델리움아파트)	섭외이 사	313
307	하품경	경희대		010) 7463-96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1 305호		251
308	한정찬	한국시조시인 협회		010) 7463-963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60, 104동 1103호(불당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262
309	허창순	경기대학교		010) 4578-5824	전북 익산시 신화로 41 105동 (모현동1가 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		271
310	황치복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010) 4264-6365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21 가길 41, 108동 501호(미아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305
311	김윤수	대전대학교		010) 4040-5377	경남 함양군 병곡면 다벌길 99-25 인산죽엽 지리산 문학관		311
312	윤종영	경기대학교		010) 7377-959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13 향촌마을 현대5차 아파트 110동 304호		312
313	김명희	경기대학교		010) 8578-3316	경북 안동시 옥서1길 70 호반베르디움 105동 604호		313

## 한국시조학회 단체회원 주소록

순번	단체명	전화	주 소
1	동국대학교 도서관	02)2260-3452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02)94-4381~9 교)488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3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031)8005-2359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4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031)612-9711~2 예광복스(02-336-0267)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래구 역곡2동 산 43-1
5	세종대학교 도서관	02)3408-3072	143-747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6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02)713-9391~7 교)414	140-742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7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02)2290-1374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8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42)629-7689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9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50-3264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10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조직원도서관	041)2-4180-4190 교)300	339-7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808
11	순천향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1)530-1106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 53-1
12	중앙대학교 도서관	02)829-5031~7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13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063)850-5445, 6114, 7114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14	성신여자 대학교 중앙도서관	02)920-7318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15	경상대학교 도서관	055)751-5115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16	충남대학교 부속도서관	042)822-6320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17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02)902-9151 교)252	132-030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18	신라대학교 도서관	051)999-5000	617-736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산 1-1
19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052)73-6101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
20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02)940-4214	136-714 서울 성북구 월곡동 23-1
21	부경대학교 도서관	051)620-6998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2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02)760-1181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23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도서관	031)400-5114	425-791 경기도 안산시 시1동 1271

순번	단체명	전화	주 소
24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043)53-9165 교)3359	363-840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1호
25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02)362-6161 교)649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학동 11-1
26	경북대학교 도서관	053)950-4715 교)3039, 3021	702-701 대구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도서관 연속간행물실
27	동아대학교 중앙도서관	051)200-6342~3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
28	서울대학교 도서관	02)886-0101 교)3705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29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063)80-2191~9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30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02)970-5030	151-742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26
31	국회도서관	02)788-4211	150-703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 국회도서관 협력과
32	성결대학교 도서관	031)467-8284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산147-2
33	국립중앙도서관	02)535-4142	137-702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34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032)770-8082	402-749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7번지 인천대학교
35	대진대학교 도서관	031)539-1114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도서관
36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10-1675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37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055)279-7810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소나무5길 65
38	경주대학교 중앙도서관	054)770-5062	780-712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39	백석대학교 도서관	02)336-0267	121-837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4-4 백석대학교 도서관(예광복스)
40	경희대학교 도서관	031)201-3217, 3222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참고열람과
41	국립중앙도서관	02)3483-8813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처
42	국회도서관	02-360-0040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국회도서관(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

## 제18대 임원명단

평 의 원 : 김동준(동국대 명예교수), 황순구(동국대 명예교수),  
박을수(순천향대 명예교수) 원용문(교원대 명예교수),  
이종출(중부대 명예교수), 최동국(인천대 명예교수),  
임종찬(부산대 명예교수), 이찬욱(중앙대),  
김상진(한양대), 이화형(경희대)

作故 : 심재완(고문), 김상선(평의원), 최진원(평의원)

회 장 : 이경영(경기대)

부 회 장 : 최한선(전남도립대) 이승하(중앙대) 유성호(한양대)

총무이사 : 권성훈(경기대)

편집이사 : 박영주(강릉원주대) 배은희(인천대) 김지은(중앙대)

기획이사 : 박영우(경기대) 김성문(중앙대) 배우식(중앙대) 이송희(전남대)

연구이사 : 박진임(평택대) 김용기(중앙대) 정수자(아주대) 김미랑(동신대)

정보이사 : 최홍원(상명대) 유순덕(경기대) 엄창권(광주교대) 백숙아(순천대)

섭외이사 : 하경숙(선남대) 김민정(성균관대) 조동범(서울예대) 하종기(중앙대)

홍보이사 : 박형준(동국대) 홍성란(성균관대) 김세립(한양대) 강호정(한성대)

국제이사 : 김창원(경기대) 순첸(천진외대), 오시(낙양사범대) 허남춘(제주대)

편집위원 : 박영주(위원장·강릉원주대)

이승하(중앙대) 류찬열(중앙대) 김성문(중앙대) 김용기(중앙대)

유성호(한양대) 방민호(서울대) 정우택(성균관대) 박상영(대가대)

박형준(동국대) 권성훈(경기대)

윤리위원 : 이화형(위원장·경희대)

방민호(서울대) 노훈기(강남대)

장만호(경상대) 유성호(한양대) 강구울(동양대)

지역이사 : 서울지역 : 신경숙(한성대)

경기인천 : 김창원(경기대)

대구경북 : 이종문(계명대)

부산경남 : 장만호(경상대)

강원지역 : 강명혜(강원대)

충북지역 : 박연호(충북대)

대전충남 : 박미영(백석대)

전북지역 : 최현재(군산대)

광주전남 : 김신중(전남대)

제주지역 : 손오규(제주대)

감 사 : 이승하(중앙대) 박영우(중앙대)

	일반회원	기관회원
입회비	30,000원	50,000원
연회비	30,000원	50,000원
심사료	60,000원	
게재료	일반 : 150,000원	연구비지원논문 : 300,000원
입금은행(예금주)	(한국시조학회 이경영)	

<논문투고일 안내>

상반기 5월 31일까지 논문 투고 마감

하반기 11월 30일까지 논문 투고 마감

연속 게재는 2회까지만 허용

논문 투고 : 한국시조학회 JAMS <https://koreasijo.jams.or.kr>

---

**時調學論叢 第56輯**

---

2022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경영  
발행처 韓國時調學會

인쇄·보급처 도서출판 고요아침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12-27, 102호

전화 : (02)302-3194~5

E-mail : goyoachim@hanmail.net

출판등록 : 2002년 8월 1일 제1-3094호

---

ISSN 1226-2838

정가 15,000원

---